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설립100주년기념 | 100년의 은혜, 빛으로! 미래로!

1912~2012



# 총회설립100주년기념 신학정체성 포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준비위원장 인사

#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의 어깨위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찰과 생활신앙의 정착을 위하여

오정호 목사

신학정체성포럼 준비위원장  
새로남교회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은 그 사람이 추구한 가치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합동교단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왔으며 또한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육화되어 나온 결과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성경적 신앙과 순교적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신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총회설립 100년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높이 송축하며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삶의 동반자와 동역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록 환경이 연약하더라도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손길이 따뜻하다면 그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외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둘째 질문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입니다.

곧 소명과 직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 이 질문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셋째 질문은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거나 영웅적인 사람, 혹은 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 질문은 이 땅위에서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생을 결정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삶도 그가 추구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듯 삶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면, 여러 사람들 나아가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루어 가는 삶은 얼마나 진지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무게감 있는 질문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 I. 신앙의 세대계승 문제

선의 역사는 계승의 역사이며 점의 역사는 단절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으면서 동시에 현존하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당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신앙의 세대계승입니다. 레갑의 후손은 선조들의 유언을 생명처럼 지켜내었기에 오고 오는 역사에 귀감으로 쓰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하며 논찬하는 과정이 신앙의 세대계승을 위한 우리 모두의 치열함이 묻어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선교초기부터 성경적 신앙과 순교자적 열정으로 무장된 믿음의 조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무는 물려받은 신앙을 다음세대에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계승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로마서 11:36



## II. 신앙과 생활의 문제

생활과 괴리된 신앙은 반드시 바리새주의로 변질됩니다.

립 서비스는 결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따르지만 그들의 행위 곧 삶은 결코 본받지 말 것을 엄명하셨습니다. 지나간 100년 동안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신앙의 형식주의, 영적관료주의, 천박한 지방색과 교권주의, 자본주의화 된 물량주의의 침울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지는 않은지 날카로운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 이웃들은 무례한 기독교에 대하여 신물나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약한자의 친구가 아니라 강자편에 선 힘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본질은 물려받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몰두한 값을 처절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메시지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생활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할 때라 확신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뒷모습을 통하여 배우는 것처럼 성도들과 신학도들은 목회자들과 스승의 뒷모습을 통하여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찰할 때 때로는 주님 앞에 황송함과, 성도들과 후배들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정체성포럼이 생활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내실 있는 모임이기를 소원합니다.

## III. 총신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총신의 확대판입니다. 총신 없이 어떻게 우리 교단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신의 정신이 흐려지면 우리 교단의 목회현장에는 영경귀와 독초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총신 양지에서 신학정체성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평양신학교로부터 물려받은 주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성경적인 신앙을 사수하고자 하는 순교자적 영성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총신에서 배출된 수많은 목회자와 복음전도자들이 한국강산 이곳저곳에서 자기희생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총신이 이제는 민족의 제단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총신에서 연마한 주님사랑의 정신과 학문적인 심오함을 가지고 신음하는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신학정체성포럼이 은혜가운데 진행되도록 귀한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발제와 논찬으로 수고해주신 분들과,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전국교회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신의 여러 교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늘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Soli Deo Gloria!*

## 인사글



이기창 목사

총회장  
전주북문교회

##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는 신학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는 신학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담아내는 데는 개혁주의 신학체계가 으뜸입니다. 성경의 완전축자영감과 정확무오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언약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구주 되심과 성령의 독점적 구원 사역을 믿는 개혁주의 신학체계만이 교회를 영적, 도덕적 부패 및 도리 오해로부터 지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계시의존사색을 근본으로 하는 구속사 신학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체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단 신학의 정체성을 확실케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거룩한 부흥과 창조적 발전의 초석을 바르게 놓는 중대 사입니다.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으면서 이 영광스런 일에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 격려사



이완수 목사

부총회장  
성문교회

##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우리 총회를 지난 100년 동안 진리의 말씀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단이 지켜온 신학과 신앙을 재확인하며, 미래의 100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는 신학 정체성 포럼을 개최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면면히 살펴 보는데, 다양하고 급진적인 변화의 파도에 부딪치며, 밀려오는 세상 물결 속에서 신앙인이 어떠한 자세로 현실에 대처해야 할지를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졌지만, 우리 사회 속에는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포장하여 우리의 눈을 속이고 마음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이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단과 종교 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세력들이 교회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들의 영안과 영적 식별력을 흐리게 하며, 우리 주변에 범람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으며 개최하는 신학 정체성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신학의 정체성 위에 바로 세워 정립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바로 교육하므로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진리의 반석위에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한 포럼을 준비하기에 앞장서 수고하신 준비 위원장 오정호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격려사



정준모 목사

부총회장  
성명교회

## 더욱 역동적 개혁신학으로 성숙되길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적인 2012년입니다. 한 세기를 보내고 또 한 세기를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총회와 교단을 지켜주신 에베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또 한 세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겸허히 간구드립니다.

장로교는 성경 역사와 교회사를 통하여 신학적 전통과 함께 정치적 전통을 발전, 정착시켜왔습니다. 수많은 논쟁과 싸움, 위협과 죽음 앞에서 장로교의 거룩하고 빛나는 역사적 전통을 지켜왔고, 보존되었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적 전통과 뿌리는 초대 교회, 그리고 칼빈(1509년)과 그 후예들인 개혁자들에게서 찾습니다. 장로교의 개화와 전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8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신학원리는 칼빈에게서 시작되나, 장로교(長老敎)라는 정치형태는 영국에서 본격적 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는 칼빈주의로, 네델란드 등 유럽에는 개혁교회로, 영국 및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장로교로 불리웁니다.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 영미로부터 꽃피운 장로교가 어떻게 100년 한국장로교 신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한국 장로교 정체성이 무엇인가? 등 신학적 평가와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깊은 학문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회 설립 100주년 신학정체성 포럼을 통하여 본 교단 신학, 본 교단이 속한 장로교 신학, 본 교회의 심장인 총신의 신학에 포럼을 통하여 본 교단 신학이 더욱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지며, 세계 속에 한국장로교 신학이 세계 개혁신학을 주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신학정체성의 성공적 행사를 치루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과 연구 논문을 발제하시고 논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축사



고영기 목사

총준비위원장  
상암월드교회

## 100주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학정체성포럼을 비롯해 목사장로대회, 기도한국, 기념전시회 같은 행사들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들입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세워졌으며, 얼마나 많은 선배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은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곧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이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과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총회 신학정체성 포럼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학이 무엇이며, 앞으로도 지켜 계승해야 할 바른 고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학정체성포럼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과 한 마음으로 자리를 같이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규철 목사  
총회 총무

## 총회100년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총회설립 100주년 신학정체성포럼을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을 추진해주신 준비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총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각도로 기념행사와 함께 문서로 만들어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신학과 보수신앙을 우리의 신학과 신앙으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오직 하나님중심, 교회중심의 신앙을 주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기반이나 목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유독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인들은 우리를 근본주의자들이라 공격하고, 시류에 뒤떨어져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교단은 분명히 한국교회를 주도하면서 한국교회 전반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지배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정치를 잘했다거나 어떤 행정의 리더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그 믿음의 충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돌아보면 우리 교단의 역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졌고 성장했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정체성포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포럼이 될 줄로 알고 진심을 담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오정호 목사 (준비위원장, 새로남교회)

묵상기도 \_\_\_\_\_ 다같이

신앙고백 \_\_\_\_\_ 사도신경 \_\_\_\_\_ 다같이

찬 송 \_\_\_\_\_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_\_\_\_\_ 다같이

기 도 \_\_\_\_\_ 김길수 목사 (포럼회계, 청주중앙교회)

성경봉독 \_\_\_\_\_ 누가복음 13:31-35 \_\_\_\_\_ 다같이

설 교 \_\_\_\_\_ 바른 신학, 옳은 신앙 \_\_\_\_\_ 이기창 목사 (총회장, 전주북문교회)

축 사 \_\_\_\_\_ 고영기 목사 (100주년기념사업총준비위원장, 상암월드교회)

광 고 \_\_\_\_\_ 정창수 목사 (포럼서기, 산돌교회)

찬 송 \_\_\_\_\_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_\_\_\_\_ 다같이

축 도 \_\_\_\_\_ 정준모 목사 (부총회장, 대구성명교회)

#### 본 문 <누가복음 13장 31~35절>

31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 여지리라 하라

33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 하도다 아멘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예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1 과거회고 : 감사

좌장 박희석 교수(신대원장)

발제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조직과 발전	정일웅 교수	10
논찬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조직과 발전” 논찬	안인섭 교수	30
발제 2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 100년의 회고와 전망	김길성 교수	34
논찬 2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 100년의 회고와 전망” 논찬	박용규 교수	63

## 2 현재진단 : 평가

좌장 박건택 교수(개혁신학연구센터원장)

발제 3	조직교회로서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장로교회의 성장과정과 그 특징 고찰	김성태 교수	70
논찬 3	“조직교회로서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장로교회의 성장과정과 그 특징 고찰” 논찬	박희석 교수	89
발제 4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상규 교수	92
논찬 4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 논찬	이상원 교수	110

## 3 미래전망 : 방향

좌장 오정호 목사(포럼위원장)

발제 5	한국 장로교와 통일	주도홍 교수	114
논찬 5	“한국 장로교와 통일” 논찬	심창섭 교수	131
발제 6	예장총회 100년과 나아갈 방향	장차남 목사	136
논찬 6	“예장총회 100년과 나아갈 방향” 논찬	김경원 목사	155





정일웅 교수  
총신대학교 총장

- I. 서론
- II. 한국사회의 역사적 배경
- III. 미국 북 장로교회의 한국선교배경
- IV. 세계장로교회의 선교사파송현황과 활동
- V. 예수교장로회공의회 조직
- VI.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와 총회의 조직
- VII.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조직
- VIII. 결론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조직과 발전

## I. 서론

하나님은 19세기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양으로 옮겨지도록 섭리하셨고, 그 말미 1884-85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 지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에 중엽에 이르러 아시아의 한복판인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활짝 꽃피우는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이제 127(1884-5)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2012년 9월이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총회가 설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와 같이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본 합동측 총회는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장로교회의 총회설립의 역사와 발전과 부흥의 역사를 되새겨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신앙선조들의 헌신과 정신을 되새기면서 그 뜻을 함께 이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 뜻에서 필자는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합동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작업의 맥락에서 1차적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

회들이 설립되고 노회와 총회가 설립될 때까지 대한예수교장로교회의 조직과 발전에 대한 역사를 밝혀보려고 한다. 여기서 다루어질 내용은 한국장로교회의 선교

배경과 언더우드 선교사의 활동과 총회조직 이전의 한국교회 초기 부흥의 역사와 총회가 설립되기까지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의 초기 발전사를 소개하려고 한다.

## II. 한국사회의 역사적 배경

1884-85년 미국 북 장로교회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와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기 전, 조선사회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하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그리고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구미열강들과의 국제교류를 단절하고 있던 시기였다. 마침내 대원군이 물러나고, 조선의 황제였던 고종은 밀어닥치는 외세를 견디지 못하고, 문호를 개방하기에 이르게 된다. 1876년 조선정부는 일본과 수교를 맺도록 강요당한다. 비로소 조선은 열강들이 약소국들을 식민지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무자비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1882년 미국과 통상보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884년에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와 체결하였고, 1886년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과도 수교를 맺게 된다. 그리고 1894년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민중봉기로서의 동학혁명이 일본군에 의하여 진압되고, 곧이어 청나라와 일본은 그해에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1904-1905년에 러일전쟁이 조선 땅에서 또한 발발하게 된다. 참으로 조선은 혼란스런 시기였다. 일본은 마침내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곧이어 1905년 ‘을사늑약’이라 부르는 을사보호조약을 조선과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허약해진 조선을 돕는다는 차

원에서 1910년에 한일합방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은 조선이 국권을 상실한 채, 일본의 속국이 되어 약 36년간 지속적인 식민통치를 받게 되는 민족의 시련기를 맞이하게 된다.

### 1. 한국장로교회의 선교배경

조선 땅에 장로교회의 선교사로 공식 파송된 최초의 사람은 언더우드(H.G.Unerwood)목사이다. 그는 미국 북 장로교회의 선교사로 파송 받아 조선 땅에 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장로교회의 선교역사는 1885년에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 땅에 전파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성경까지도 한국어로 부분적인 번역(쪽 복음)이 이루어져 복음서들이 조선 땅에서 전하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sup>1)</sup> 그리고 실제로 이미 중국과 만주일대에 파송되어 와서 활동하고 있던 영국선교사들에 의하여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위대한 선교업적을 남긴 사람은 바로 존 로스(J.Ross, 1842-1951)선교사였다. 그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속한 자였으며, 그의 인척 매킨타이어(McIntyre, 1837-1905)목사와 함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선교사로 만주에 파송되어 활동하였다.<sup>2)</sup>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이미 북한 국경에 이르러 조선인들

을 접촉하였다. 놀라운 것은 한국인 이용찬을 만나서 한국어를 연구하였고, 1877년부터 한국어 성경번역을 시도한 일이며, 또한 성경번역에 참여했던 서상윤은 1879년에 매킨타이어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며, 이보다 훨씬 앞서서 1876년에 조선인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용찬 등은 이들 선교사에 의하여 이미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sup>3)</sup>

한국교회의 선교역사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1883과 1884년, 1885년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 복음, 마가복음 로마서 등이 우리말로 간행되었으며, 1887년에는 신약성경전체가 출판되었던 것이다.<sup>4)</sup> 그리고 이러한 우리말 성경은 서상윤에 의하여 전국에 매서하는 방식을 통하여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1884년 그의 고

향 황해도 장연의 대구면 솔내(소래)로 돌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도하여 마을 사람 대부분은 교회로 모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베풀려고, 중국에 있는 로스선교사가 입국하도록 연락하였다. 하지만 그는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언더우드선교사가 인천항에 입국하여 서울에 선교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한국장로교회의 선교역사는 분명히 복음전도와 성경번역과 세례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이 준비된 조선 땅에 언더우드는 최초의 장로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일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경험하는 여호와이레의 복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 Ⅲ. 미국 북장로교회의 한국선교배경

미국남북장로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오늘의 한국장로교회를 형성하게 한 모체교회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장로교회가 자립하여 독립된 교회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 남북장로교회는 그들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여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다. 여기 간략한 역사적 배경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 1) 알렌선교사의 활동

1882년 한국과 미국사이에 수교조약이 맺어진 후로 미국교회들은 한국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처음으로 입국한 선교사는 알렌(H.N.Allen)이었다. 그는 1883년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

교부에서 파송되어 먼저 중국으로 갔다가, 1년 후에 다시 본국교회의 허락 하에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 이 때는 아직 조선정부가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허락하지 않았던 때이므로, 알렌은 미국 영사관의 의사신분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여러 서방국가들의 영사관 직원들을 돌보는 의술활동을 전개하다가 마침내 고종황제의 인정을 받게 된다. 그것은 1884년 12월 4일에 개화당의 봉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구파의 지도적인 인물인 민영익이 상처를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알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생명을 보전하게 되었다. 바로 민영익은 고종황제의 황후인 민비의 사촌오빠였기 때

문이다. 고종의 인정으로 알렌은 광혜원이란 병원설립을 허락받게 된다. 후에 병원 이름은 제중원으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황제의 건강을 돌보는 시의로 공적인 직무를 부여받기까지 하였다.

알렌의 활동은 한국교회의 선교역사에 있어서 인간을 돕는 인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사역에 디아코니아(사회봉사)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 2) 언더우드선교사의 입국과 활동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아침에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입국하게 된다. 그는 입국하자마자, 당장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비교적 빨리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미 조선 땅은 이미 기독교의 복음을 수용했던 서상륜을 비롯한 기존신자들과 로스선교사를 통하여 번역된 성경의 도움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조선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국에 온 선교사들에 의하여 전파되었고, 믿는 신자들이 생겨,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게 된다.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밝혀진 일이지만, 서상륜은 로스선교사의 소개장을 들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미 소래교회에서 생겨난 믿는 신자들에게 선교사가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어주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선교사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불가불 소래교회의 신자들이 오히려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으며,<sup>5)</sup> 이들이 중심이 되어 1887년에 언더우드는 처음으로 서울에 새문안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는

설립에서부터 14명의 세례교인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두 명의 장로를 선택하여 장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서상륜과 백홍준으로, 이미 로스선교사에게서 복음을 전해 받았고, 세례를 받았던 인물들이었다.<sup>6)</sup> 또한 여기 언급된 14명도 그 중 13명은 서상륜을 통하여 이미 목음전도를 받았으며, 믿는 자들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물론 언더우드는 서울에서 복음전도에 힘쓴 결과 1886년 6월 11일에 노도사로 알려진 노춘경이란 사람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할 때는 소래교회와 같은 규모의 예배처소의 형태로 구성된 교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밝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주와 정주, 그리고 강계 등에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교회들은 미조직교회로서 성례를 행하고 공적인 예배를 인도하며, 조직된 교회를 이끌어 줄 선교사나,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러한 정황의 소식을 접하고, 1887년 북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 그해 가을에 소래를 방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네 사람의 매서인을 선정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장연, 평양, 의주 지역에 성경을 반포하고 전도하도록 독려했던 것이다.<sup>7)</sup> 이러한 일은 조선교역자임명의 효시였던 것으로 평가된다.<sup>8)</sup>

생각하면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지기보다는 이미 우리 조선 신앙인들을 통하여 준비되어 있었으며, 후에 선교사의 공적인 파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며, 한국교회는 이러한 정황에서 공적으로 생

겨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신앙은 매우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열정적인 선교활동을 인지할 수가 있다. 특별히 1885년 부활절에 함께 조선 땅에 감리교회

의 선교사로 입국했던 아펜젤러와 함께 복음전도를 위하여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교파가 서로 다르지만 복음전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오늘 교파를 초월한 교회연합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인지된다.

## IV. 세계장로교회의 선교사파송현황과 활동

미국북장로교회가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일 외에도 미국남장로교회를 비롯하여 호주와 캐나다 장로교회 등은 여러 선교사를 조선 땅에 파송하였고, 오늘날의 한국장로교회를 형성하는 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지된다. 물론 이들 여러 나라에서 파송된 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은 대체로 조선 땅에 여러 지역을 교파별로 분할하여 선교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를 분할하여 복음을 전하며, 남 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은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캐나다 장로교회는 주로 함경도 지역에서, 그리고 호주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주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한다.<sup>9)</sup>

1884년에서 1907년 사이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입국하여 복음전도와 봉사활동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은 아래와 같다.

### 1) 미국 북 장로교회로부터 파송 받은 선교사

1884년 알렌의사 부부, 1885년 언더우드목사, 1885년 6월 헤론부부(의사), 1886년 엘리즈(의사), 1888년 3월 홀튼양(의사,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함, 1888년

10월 키포드목사, 1888년 파워(의사), 게일목사, 1889년 가드너 목사, 1890년 모펫 목사, 1890년 도티양, 후에 필러 부인이 됨, 1891년 브라운(의사), 1891년 빈톤 부부(의사), 1892년 리 목사, 1892년 무어목사 부부, 1892년 스왈론목사 부부, 1892년 밀러 목사부부, 1893년 에비슨 부부(의사), 1895년 이빈부부(의사), 1895년 야콥손양 간호원, 1895년 휘팅양(의사), 1895년 아담스 목사 부부, 1895년 피에타스 목사 부부, 1895년 웰즈(의사), 1895년 왓볼드 선교사, 1896년 체이스양(간호원), 1896년 휘터모아 목사, 1897년 베스트 양, 1897년 로스 목사 부부, 부인은 의사, 1897년 쉴즈양(간호원), 1897년 필드양(의사), 후에 피에타스 부인이 됨, 1897년 헨트 목사, 1897년 피쉬양,(의사), 후에 모페트 부인이, 1897년 (의사)부부, 1899년 샤록스 부부(의사), 1899년 사이트보탐 목사부부, 1900년 렉크목사 부부, 1900년 샤프 목사부부, 1900년 베른하이젤 목사, 스누크양, 1901년 블레이 목사 부부, 1901년 바렛 목사부부, 1902년 클라크 목사부부, 1902년 칸즈 목사 부부, 1902년 스미스 목사부부, 1903년 존손목사, 1903년 큰스 목사, 1903년 휘팅 의사부부, 1904년 허르스트 의사, 1904년 맥과랜드 목사, 1904년 블레이 목사, 1905년 맥쿤 목사

부부, 1906년 어드만 목사, 1907년 로버트 목사부부 등이 입국하였다.<sup>10)</sup> 목사 31명, 의사 19명, 간호원 5명 등이었다.

### 2) 미국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1892년에 테이트 목사, 테이트양, 데이비스양, 레이놀즈목사 부부, 전킨 목사 부부 등이 조선에 선교사로 왔다.1893년에 두루 부부(의사), 벨 목사 부부 등이 입국하였다. 1896년 오웬목사부부가 왔다. 부인(G.Whiting)은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선교사였다. 같은 해에 헤리슨 목사가 왔다. 1897년 잉골드양(의사), 1899년 볼 목사와 스타라퍼양이 입국하여 부부가 되었다. 1900년 알비양, 1902년 맥크첸 목사 등이 입국했다. 1903년 프레스턴 목사부부, 1904년 포사이스 의사와 다니엘 의사부부와 놀란 의사가 입국하였고, 1906년 월손 의사부부가 선교사로 왔다. 1907년 녹스 목사 부부가 왔으며, 같은해 니스벨 목사부부가 입국하였다.<sup>11)</sup> 목사 선교사11명, 의사4명 등이었다.

### 3)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

1889년 데이비스 목사, 같은 해 데이비스 양, 1891년 매카이 부부, 같은 해 멘지스 양, 포세트양 페리양 등이 입국하였다. 1892년 무어양, 1894년 아담손목사가 입국했다. 1895년 부라운 양이 왔으며, 1907년 앵겔과 결혼 함, 1896년 페인양이 왔으며, 그녀는 후에 아담손과 결혼함, 1900년 앵겔목사 부부, 1902년 케렐 의사부부가 왔으며, 1905년 켈리양이 왔으며, 그녀는 1919년에 입국한 맥켄지 선교사와 결혼함, 1907년 스크즈양이 입국하여 장로교 선교를 힘썼다.<sup>12)</sup> 목사 선교사 4명, 의사 1명 등이었다.

### 4) 캐나다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

1893년 맥켄지목사, 1898년 그레이슨 부부(의사), 같은 해 푸트 목사 부부가 왔고, 맥레이 목사가 입국했다. 1900년 맥켄리양이 왔으며,1901년 립 목사부부가 왔으며, 같은해 맥미란 양이 입국했다. 1903년에 롱 양이 왔으며, 1906년 영 목사부부가 왔고, 1907년에 로쓰 목사가 입국하였다.<sup>13)</sup> 목사 선교사6명, 1명 등이었다.

우리는 이상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장로교회(미국 남북장로회, 호주 및 캐나다 장로회)가 얼마나 많은 그들 선교사들을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조선 땅에 파송했는지알 수 있으며, 오늘날의 한국 장로교회를 형성하는 일에 4개교단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느껴보게 된다. 특별히 현재 한국장로회의 여러 교파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은 그 역사와 신학적인 전통에 있어서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형성된 교단임을 확인하데 된다.

### 4)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상황

1884년에서 1907년까지 장로교회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 의술활동을 통한 선교사역이며, 둘째, 복음전도를 통한 교회설립이며, 셋째, 학교설립을 통한 인재양성이었다. 선교사들이 펼쳤던 선교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의술에 의한 선교활동

의술에 의한 복음전도는 먼저 1884년에 입국한 알렌 선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부는 조선에 의사인 알렌선교사를 보내면서 5000불의 선교비를 지원하였고, 그 다음해 1885년에는 6319



불을 배정하였으며, 매년 상승하여 1896년에는 35860 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안다.<sup>14)</sup> 그리고 북 장로교회는 알렌과 함께 일할 의술선교사인 헤론을 1885년에 새로 이 파송하였다. 조선사회의 부녀자 치료를 위하여 북 장로교회는 1886년에 여의사 애니 엘러즈를 파송하여 돌보게 하였다. 그리고 곳곳에 병원이 설립되었는데, 먼저는 1885년에 고종의 배려로 세워진 왕립병원이라 할 수 있는 제중원이 있었으며, 그 병원은 오늘날에 이르러 연세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이다. 또한 호주와 미국 남 장로교회 등에서 파송된 의료선교사들에 의하여 전국 곳곳에 병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의사인 어빈선교사는 ‘매리 위팅 진료소’를 설립하여 환자를 돌보았고, 후에 선교부로부터 거금을 지원받아 전킨기념병원을 설립하기도 했다.<sup>15)</sup> 1906년 웰즈 선교사는 평양에 다 라드여사의 헌금으로 카로라인 라드병원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1898년과 1902년에 존슨 의료선교사는 대구에서 병원을 설립하였고, 사로크스 선교사는 평안도 선천에 역시 병원을 설립하였다.<sup>16)</sup>

남장로교회의 선교부도 역시 처음부터 의료선교에 집중하였는데, 1895년 두루 선교사가 서울 성문 밖에 진료소를 설치하여 사람들을 치료하였다. 1897년 군산지역에서 윤치호의 도움으로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1897년에 오웬 선교사는 목포에다 진료소 하나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잉골드 선교사는 전주에서 부녀 진료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sup>17)</sup> 호주 선교부는 선교사 커렐을 통하여 부산에다 진료소를 개설하였고, 이어서 진주에다 병원을 개설하였던 것이다.<sup>18)</sup> 1897년 부산에 선교사들이 한센병 치료를 위한 병원을 설립하였다. 1901년에는 전남 광주에 설립하였고, 1915년에 대구에 한센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설립하였다.<sup>19)</sup>

이러한 의료선교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 질 수 있는 선행사역으로 이해되며, 조선에서 서구에서 전파된 복음이 쉽게 조선 백성들에게 접근되도록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 (2) 학교설립을 통한 선교 활동

선교사들 역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여 조선에 기독교 인재들이 양성되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며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것이 오늘의 정신학교이다. 1890년에 장로교회에서 운영한 최초의 여학교는 오늘의 ‘정신’이었다. 이 학교 역시 미스엘레스 선교사가 한 고아를 데려다가 가르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다.<sup>20)</sup> 이러한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1909년에 950개로 늘어났고, 그 가운데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약 605개교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 운영된 학교는 현대식 교육제도의 도입과 교육방법으로 조선사회를 개화시키고, 수많은 기독교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3) 교회설립을 통한 선교활동

최초의 한국장로교회는 소래교회에서 시작하여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새문안교회로 연결되어 조선 땅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된다. 년도 별로 보면 1883년에 소래교회와 의주교회가 설립되었고, 1887년에 새문안교회와 남대문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893년에 승동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이듬해 1894년에 연동교회의 전신인 연못골교회가 설립되며, 같은 해, 행주교회와 김포읍교회가 설립되었다.<sup>21)</sup>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1893년 방위량, 소안론 선교사들에 의하여 초량교회를 비롯하여 부산진 교회와 부산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설립되었다.<sup>22)</sup> 1894년에 대구제일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895년에 울산의 병영교회, 1897년 밀양의 춘화교회, 함안의 신흠교회가 설립되며, 1898년에 김해읍교회 설립되었고, 1899년에 이령교회, 1900년에 군위배성교회와 용천군 조곡리교회가 설립된다. 그 외에도 1893년부터 전라도 지역에서는 테이트, 레이놀즈, 전킨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전주 서문교회를 비롯하여 군산, 김

제, 목포, 광주, 순천 등지에 교회가 설립된다.<sup>23)</sup>

이러한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으며, 1897년에 이르러 장로교회의 교인 수는 6800명에서 72968명으로 급성장하게 되었고, 1905년의 통계에 따르면, 선교사의 수는 50여명에 이르렀으며, 1892-1902년 사이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교회는 135개 처가 생겨났고, 예배처소가 185개였으며, 아직 안수 받지 않고 활동 중에 있는 조선인 교역자 수는 21명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인지된다.<sup>24)</sup>

# V. 예수교장로회공의회 조직

한국선교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던 선교사들은 비록 그들의 소속선교부가 다르긴 하지만, 통일된 선교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선교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sup>25)</sup> 그래서 처음에 입국한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 알렌부부와 언더우드와 헤론부부는 1885년 6월 21일에 ‘미국 북 장로회 선교회’를 조직하였다.<sup>26)</sup> 역시 1889년 호주장로교회의 선교사 데이비스는 ‘미국북장로회 미순급 박토리아(호주) 미순병합 공의회’를 조직하게 된다. 하지만, 데이비스 선교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연합공의회’는 폐지되었고, 1893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와 함께 북장로교, 호주장로교가 연합하여 ‘장로회정치를 쓰는 미순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를 조직하게 된다.<sup>27)</sup> 이 공의회의 회원 자격은 선교사들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처리권은 없으

나, 다만 토의, 권고, 보고, 간청 등을 행하는 연합기구였다.<sup>28)</sup> 그리고 본 공의회는 조선 전역에서 장로회 정치를 시행하는 연합교회의 설립을 목적하였는데, 조선의 전교회를 처리하는 상회로서의 기능은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으며, 아직은 조선인들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 일은 190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게 되는데, 1898년에 캐나다 선교부가 조직되자, 1901년 한국인 총대가 참여하여 ‘조선 야소교 장로회 공의회’를 조직하게 되었다.<sup>29)</sup> 이러한 장로회 공의회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회와 영어를 사용하는 회를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그리고 장로회 공의회는 한국인 정식 노회가 조직되기 전의 과도체제로서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문제를 처리해 나가게 되었다.<sup>30)</sup>

하지만 장로회공의회는 단순한 협력기구차원을 뛰어 넘어 앞으로 독노회 조직을 위한 예비기구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01년 장로회 공의회의 회의록 서문에 이러한 뜻을 담아 기록해 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 1회 공의회에서 경성과 평양에 대리회를 각각 두는 것과 전라도와 경상도에도 각각 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으며, 또한 조선 장로회 설립과 방침의정위원과 장로회헌법번역위원, 혼인에 관한 선교사들의 의견탐지와, 공의회 규칙제정위원 등을 택하여 놓았던 것이다.<sup>31)</sup>

## 1) 1901년 장로회공의회는 신학교설립을 결정함

1901년 장로회공의회는 한국장로교회를 이끌 조선인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설립을 건의하였고, 신학위원을 선정하여 학교를 평양에 세우기로 결의하였다.<sup>32)</sup> 특별히 평양에 조선아소교장로회신학교를 세우게 된 것은 평양을 중심으로 조선의 북부지역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고, 교회들이 왕성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역대 공의회 회장을 역임한 분들은 아래와 같다.

제 2회공의회회장은 이눌서 선교사였으며, 제 3회는 구례선 선교사였으며, 제 4회는 왕길지 선교사, 제 5회는 마포삼열 선교사, 제 6회는 배유지 선교사 등이 역할을 하였다. 1905년 제 5회 대리회에서 독노회 조직을 결정하였고, 노회가 조직된 후에는 공의회를 폐지하고, 노회 총대원들을 목사와 장로로만 허용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다.<sup>33)</sup>

## 2) 복음전파와 교회성장

1901년에서 190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결성될 때까지의 기간에 조선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 확대되어 한국장로교회는 큰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설립통계는 1901년에 용천군 일대에 43개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902년 안주군 일대에 하리교회를 비롯하여 53개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원산부흥운동이 시작되던 1903년에 평양남문외교회를 비롯하여 35개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78개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905년에는 김제 두향리교회를 중심으로 303개의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1906년 시흥군 지역에서는 노량교회를 중심으로 179개교회가 설립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한 모습을 직시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희망을 걸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다.

## 3) 평양신학교 설립배경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복음전도를 위하여 먼저 매서인을 활용하였다. 매서인의 역할을 가장 모범적으로 해 냈던 분이 바로 최초의 한국교회인 소래교회를 설립한 서상륜과 서경조 두 형제였다. 그들은 언더우드 가 입국하기 전에 중국에 온 선교사들(존 로쓰와 매킨타이어)의 전도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은 자들이 있었다. 이들에 의하여 한글성경이 만들어졌고, 신약의 쪽 복음서들은 그들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판매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경 판매를 통하여 복음이 전국 곳곳에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바로 이러한 매서인을 세워 복음이 전하여 지게 했으며, 여기서 매서인이란 직분이 생겨나게 된다. 다른 한편 선교사들이 많은 신자를 얻으면서 곳곳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교회의 수가 늘어가면서 교회 내에는 조사의 직분이 생겨나게 된다. 조사는

선교사를 도와 그들이 지방을 순회할 때, 함께 동행하며, 여러 지교회를 돌보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조사는 오늘날 전도사의 직에 해당하는 역할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최초의 조사로는 언더우드선교사를 도와 왔던 백흥준 조사가 있으며, 1891년 마포삼열 선교사를 도와 평양과 관서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왔던 조사 한석진이 있다. 이들은 모두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를 하고 한국장로교 최초의 목사가 되었던 인물들이다.<sup>34)</sup> 또한 교회는 ‘전도부인’이란 직분을 세워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사상이 지배하는 조선사회에서 남자선교사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직분이었다. 그리고 또 한편 평신도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직분 역시 ‘영수’라는 직분이었다. 선교사는 이들이 더 적극적이며 책임적으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사경회와 기독교신앙의 기초교리를 가르치는 반 등의 운영이었다.

날이 갈수록 한국교회는 성장하며 교세가 급격히 늘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사들은 한국인지도자인 목사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성경학교의 운영과 신학교의 설립이었다.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에서는 신학교설립의 배경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선교사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교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는 지금까지의 사경회나, 조사제도만을 가지고는 너무나 벅찬 일이 되었고, (2) 다음으로는 새로 믿게 된 본국 한국인

들이 그야말로 뜨거운 감격과 소명의식을 느껴 자기들도 복음전선에 나서서 일하기를 열망하게 되었던 점 이요, (3) 또한 언어, 풍속, 생활양식 등이 같은 동국인끼리의 전도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4) 자주, 자치, 자급을 원칙으로 한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권고도 있고 해서, 이제는 한국 교인 중에서 정식 교역자를 양성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다.”<sup>35)</sup>

## 4) 평양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의 탄생과 발전

1901년 한국장로회공의회가 평양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평양신학교는 2명의 학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분은 바로 마포삼열 선교사였다. 그는 미국 맥코믹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1890년에 입국하여 전국을 순회전도를 하였으며, 이때는 평양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신학교설립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학생은 방기창과 김종섭 두 학생이었다. 그리고 마포삼열과 이길함 선교사가 교수로 이들을 가르쳤다. 이 두 분의 선교사는 모두 미국 맥코믹 신학교 출신들이었으며 이 당시 평양에 설립된 장대현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었다. 그리고 두 학생도 그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었던 분들이다.<sup>36)</sup>

이와 같이 시작된 평양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는 1902년에는 5년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신학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천하여, 명실 공히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한국인 목회자를 양육하게 되었던 것이다. 1902년에 장로 양백전, 길선주, 조사 이기풍, 송인서를 학생으로 받아 1903년 봄학기에는 학생이 6명으로 늘어나



게 되었다. 신학교운영은 5년 동안 매년 3개월씩 집중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sup>37)</sup> 3개월간을 가르쳤다. 이때 교수진으로 마포삼열과 배위랑, 소안련, 이길함, 한위렴, 편하설 등의 선교사가 참여하였다.<sup>38)</sup> 1904년에 학생수는 19명으로 늘어났다. 그해에 각 지방 공의회에서 선발된 목사후보생들이 장로교공의회의 인준을 받아 입학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평안공의회에서 추천된 학생은 한석진, 이원민, 김창진, 정기정, 장관선, 김찬성, 최관홀, 채정민, 김덕선 등이며, 경성공의회에서는 서경조, 천광실, 고찬익, 송순명, 김홍경 등이며, 전라공의회에서는 김필수, 윤식명, 최중진, 김창국 등이며, 경상공의회에서는 심취명한 사람이었다. 1904년에 장로교공의회는 마포삼열박사를 2년간 신학교 교장으로 인준하고, 장로교 여러 공의회에 신학생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교수진으로 북 장로교회의 언더우드와 남장로교회의 전킨,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회의 앵겔 선교사 등이 가르쳤다. 1906년에는 3개학급으로 늘어나, 전체 학생수가 50명에 이르렀다. 학년별로는 1학년에 29명이 재학하였고, 2학년에 14명, 4학년에 7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1906년에 전국교회에서 신학생들을 돕는 지원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이들의 학비까지 지원되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sup>39)</sup>

1907년 6월 20일 평양신학교는 첫 졸업생들로 7명

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들 7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길선주(40세), 양전백(31세), 서경조(58세), 한석진(41세), 송인서(40세), 방기창(58세), 이기풍(40세) 등이었다. 첫 졸업생을 배출하던 해 1907년에 평양신학교는 조선장로회신학교'로 공식명칭을 가지게 되었다.그 이후에 평양신학교는 해마다 발전하여 1908년에는 학생수가 138명으로 늘어났고, 5개 학급으로 증가하였다. 1909년에 제 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졸업생 이름은 다음과 같다. 김필수, 이원민, 최충진, 윤식명, 장관선, 정기정, 최관홀, 김찬성, 등 8명이었다. 1916년에 이르러 전체 학생이 171명에 다다르게 되었고, 재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1914년에는 196명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평양신학교의 신학전통과 역사는 근본적으로 장로교신학(개혁신학)의 역사와 전통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구 프린스톤의 찰스 하지의 신학전통을 이어갔으며, 철저하게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의 삶의 범칙임을 믿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동시에 그 당시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친 대부분의 교수들이 미국에서 일어나 복음적인 무디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선교사들로서 특별히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신학교의 전통을 이어갔던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복음적이며, 열정적인 복음전도에 충실한 신앙을 가르쳐 준 복음실천의 신학이 평양신학교의 가르침의 중심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VI.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와 총회의 조직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조직은 19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원산대부흥운동과 1907년에 평양

에서 이루어진 평양대부흥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조선은 1905년 을

사보호 조약으로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민족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고, 희망을 잃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민족을 구원하는 빛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들이 전하는 열정적인 복음은 조선인들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빛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사경회를 동반한 기도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회개운동을 불러 일으켰으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에 감동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교회의 부흥을 전망하면서 선교사들은 그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며,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의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된 교회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1) 평양대부흥운동과 교회성장

평양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있었던 1907년 이래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었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지역교회로 찾아오는 신자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이 당시 한국장로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서북지역에서의 부흥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1905년 한 해 동안에 883명이 세례를 받고, 1577명이 학습을 받게 된 것이다. 평양 북장로교회 선교부는 입교인이 5468명, 학습인이 3841명이 되었고, 교회의 예배에 출석하는 신자는 16744명에 이르렀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교회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흥은 남부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

다. 먼저 호남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하였고,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김제 등의 교회들도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부산대구지역에서도 크게 부흥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마침내 한국장로교회가 독노회를 조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2) 조선 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조직

먼저 1905년에 선교사들로 중심이 된 조선장로교공의회는 독노회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결과였다. 1907년 9월 17일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한국인 장로 36명과 선교사 33명, 찬성위원 9명을 합하여 총 78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행사에 참여한 회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마삼열, 리길함, 배위랑, 방위랑, 편하설, 윤산온, 스왈론, 위대모, 방혜법, 로세영, 피득, 한위렴, 군레빈, 항혈리, 곽안련, 리눌서, 괴일, 사우엽, 밀의두, 권일두, 하운림, 최의덕, 배유진, 오월번, 마노덕, 전위렴, 거령우, 안이와, 심익순, 맹이와, 업아력, 민로아 등 선교사 33인과 장로대표로, 장연, 송천, 성경조, 룡강, 제제, 박의창, 증산, 한천, 송인서, 평양장대제, 길선주, 장천, 한석진, 태평동 김용주, 신흥동, 방승건, 남문밖, 박덕찬, 룡천 덕천무, 김건두, 봉산모동 최덕립, 문화종산 우종서, 털산읍 장관선, 이안이, 덩기정, 선천읍 리성삼, 덩주읍 최성두, 관산읍 최관홀, 함흥 김창보, 부산 심취명, 천광실, 원산 류태연, 순안읍 강유훈, 양유통 오리 김봉환, 안주읍 김찬성, 안악교동 고찬익, 목포 임성옥, 밀양 김웅진, 창령 토산 방원명, 진령 신헌포, 한치순, 대구 박덕일, 립피 만자산, 최흥서, 태인 미계 최중진, 황주용수

골 덕명리 36명이었다.”<sup>40)</sup>

이날 진행된 노회는 먼저 예배와 성찬식을 거행하였고, 노회설립을 선언한 후, 노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장로교 공의회 회장인 배유진 선교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설교한 후, 게일 목사가 분명하고, 배유진 목사가 분잔하여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교장이신 마포삼열 선교사는 성찬식이 끝난 후, 위원들 앞에 나아가 독노회가 결성되었음을 선언하였다.<sup>41)</sup> 그리고 이어서 임원선출에 들어갔는데, 게일 선교사의 추천으로 마포삼열교장이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선출된 노회장 마포삼열은 단상에 올라 노회의 장으로서 회를 주재하게 되었는데, 절차위원장 편하설(벤하이젤) 선교사가 은으로 십자를 면에 새기고, 청홍으로 태극을 머리에 돌린 광채 있는 은으로 띠를 띤 망치를 건네면서 “대한국에 수교장로회를 견고히 십자가로 설립하여 영광을 돌리며 세세토록 노회회장에게 전쟁하옵소서!”<sup>42)</sup>라고 말하니, 그것을 받은 노회장은 “이맞치는 회장의 물건이 아니오 영원토록 대한장로교노회의 맞치니 회원들은 그리아시기 바랍니다.”<sup>43)</sup> 그리고 이 때,맞치(망치)라는 이름이 속되니 게일씨와 한석진 두분에게 맡겨 새로운 이름을 만들도록 가결하였고, 이를 후에 맞치라는 이름을 고되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부노회장에는 방기창 장로가 선출되었으며, 한석진이 원서기, 송인서가 부서기로 선출되었다. 회계로는 이길함 선교사가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임원들이 다 선출됨으로 최초의 독노회가 역사적으로 조직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언더우드 선교사는 독노회를 조직할 때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때 문에 회에서는 오늘이 대한장로교회가 조직된 날이니,

대한에 처음으로 입국하신 원두우선교사(언더우드)에게 전보로 알리기로 결의까지 하였던 것이다.<sup>44)</sup>

이날 처음으로 조직된 노회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갔는데, 장로교공의회에서 결정했던 신조준비위원의 건은 일년 더 연구하여 결정하기로 했으며, 길선주의 제안으로 전국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세우기를 결정하였다. 또한 노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하여 미국 남북 장로교회와 영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장로교회 등 네 곳 총회에 대한장로교회 노회가 조직됨을 감사한 편지로 전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노회장은 만국장로교연합회가 개최되면 미국에 간 목사를 대한장로교회회원으로 파송할 것을 회중에게 묻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처음부터 장로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되어 교제해야 하는 교회연합정신의 실현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이 날에 노회의 회무진행은 계속되었는데, 회장은 평양신학교 졸업생 7인(서경조,방기창,이기풍,길선주,송인서,양전백,한석진)을 시험하기 위하여 14인 목사를 검사위원으로 정하고, 오후 7시 30분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튿서 선교사는 이들의 신학에 관하여 검사하고, 안의화 선교사는 정치문답에 관하여, 전위림 선교사는 성회 사기에 관하여 묻고, 기일선교사는 성경에 관하여 물었으며, 이러한 검사 후에 모두 시험에 합격시킴으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노회장 마포삼열은 이들 신학사 7인의 문답에 관한 결과를 확인하고, 강도와 해석을 모두 잘 하였다는 답을 확인한 후 목사로 장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첫날 노회의 회무는 잘 끝나치고, 다음날 다시 속회하여 회무가 진행되었는데, 역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 첫째로 노회는 전국을 8개 행정 단위(북평안, 남평안, 남전라, 북전라,경상,함경,경기,황해)로 구분하

고, 당회라는 이름을 두어 8개의 당회로 명명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해 1908년 서울의 연동교회에서 개최된 노회에서 경기와 충청,평북,평남,황해,경상,함경 및 전라 지방에 7개의 대리회를 두어 노회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결의하였다.<sup>45)</sup>

이러한 결정은 한국장로교회가 단순히 독노회차원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장차 총회가 조직되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 (1) 12신조의 채택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독노회는 이제 한국교회 신앙의 근본과 토대가 되는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칼빈주의 신학사상에 뿌리를 둔 구라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미 미국남북장로교회와 호주와 캐나다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들에 의하여 받은 신앙의 가르침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장로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연결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한국교회의 신앙사상에 근본토대가 된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의 독노회는 12신조를 먼저 채택하게 된다.<sup>46)</sup> 이것은 선교사들이 인도 장로교회에 전하려고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조 33개 조항을 12항목으로 축소해 놓은 것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개하여 그것을 수용하게 한 것이다. 인도장로교회는 1904년에 인도장로교회의 신조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장로교회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조 35개 조항과 대소요리문답서를 독노회를 통하여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과목들이었다. 또한 이 내용은 강도사와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되

려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으로 삼았다.

독노회가 채택한 12신조는 간략하게 요약된 것이지만,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를 잘 반영해 놓은 것이다. 특별히 성경에 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창조와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성례와 종말과 심판에 관한 기본 교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 독노회는 이러한 신조를 조선예수교장로회 신조로 1907년 공포하게 되었다.<sup>47)</sup> 독노회가 조직과 함께 이러한 12신조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인 내용과 틀이 무엇인지를 밝혀준 일로 이해된다.

### (2) 장로교회 정치규범의 제정

독노회는 회무진행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을 제정하여 채택하게 된다. 이것은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기 위한 헌법과 같은 것으로 교회의 모든 공적인 행위를 뒷받침 하는 표준적인 규범인 것이다. 총 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조는 교회에 관한 것이며, 제 2조는 예배절차에 관한 것이며, 제 3조는 직원에 관한 것이며, 제 4조는 교회의 치리에 관한 것이었다. 장로교회의 신(조)경은 개혁신학과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으로서 신앙의 대원칙을 말한 것이라면, 규범은 구체적인 교회의 치리에 관한 규범이요, 법이라 할 것이다.

제 1조 교회에 관해서는 유형과 무형의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는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성경말씀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임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신자의 성결한 삶과 복음전파를 교회에 위임 한 가장 중요한 사명과 과제임을 명시하였다.

제 2조 예배절차에 관한 것은 주일에 모든 신자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적시하였고, 예배하는 절차와 기도와 찬미합과 성경말씀을 낭독하는 것과 강도하는 것, 연보하는 것 안수기도 하는 것 성례를 베푸는 일에 관하여, 세례와 성찬 등의 진행방식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제 3조에서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을 규정해 놓은 것인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의 책임과 역할을 규명해 놓은 것이다.

제 4조에서는 교회의 치리회로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처음으로 조직된 교회와 노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해 준 것으로 이해된다.

### (3) 독노회에서 선교사 파송

1907년 독노회가 처음으로 조직되면서, 행한 여러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결정 하나는 역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다. 역시 한국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제 1회 졸업생 가운데 가장 은사가 많았던 이기풍 목사를 제주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일이었다.<sup>48)</sup> 또한 제 2회 독노회 때, 강원도에 선교사 파송의 헌의를 받아들여, 전도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sup>49)</sup> 1909년에 최관훈 목사를 블라디보스토크에, 한석진을 도쿄에 각각 선교사로 파송하였으며, 1910년에 김영재, 김진근 목사를 만주 간도지방에 선교사로 파송하였으며, 또한 방화중 목사를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에 파송하였다.<sup>50)</sup> 이러한 모습은 처음부터 한국장로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선교사역을 교회사역의 중심에 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00여개국에 25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은 이미 초대 한국교회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 3) 독노회의 발전

제 2회 독노회는 1908년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연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참석회원으로는 7명의 목사와 51명의 장로, 선교사 38명 등, 총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 노회장으로 기일 선교사가 선출되었고, 부 노회장으로 이눌서 선교사가 선출되었다. 서기에 한석진 목사가, 회계에 김필수 목사가 뽑혔던 것이다. 이 때에 신조와 정치(규범)가 채택되었으며, 그리고 만국장로회공의회에 총대를 택하여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추수감사절을 양력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지키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sup>51)</sup>

제 3회 독노회는 1909년 9월 3일 오전 9시에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참여 회원으로는 목사 15인, 장로 70인, 선교사 33인, 총 118명으로 제 2회 때보다 회원수가 더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 때, 노회장으로는 원두우(언더우드)선교사가 선택되었고, 한석진 목사가 서기에 부회장에는 이기풍목사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 날에 신학교 졸업생들은 김필수, 김찬성, 최중진, 윤식명, 이원민, 정기정, 장관선, 최관훈, 등 모두 8명이었다. 이들은 평양신학교 제 1회졸업생들이 배출된 이후 두 번 째 졸업생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전국 각 지역의 있는 기존 교회의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와 동사하는 목사로 청빙되어 시무하게 되었다.<sup>52)</sup>

한국장로교회는 1909년 9월 현재로 목사 63명, 장로 108명, 조사 171명에 이르는 대 발전을 하게 되었고,

지역적으로 살펴 볼 때, 목사의 수는 경기, 경상, 남 평안에 11명이 시무하였고, 북평안, 황해, 함경이 각 6명, 전남과 전북이 각 7명과 5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로의 수는 평안남도에 40명, 황해도가 16명, 평안북도가 14명, 경상도 11명, 전북 9명, 함경도 7명, 경기도 6명, 전남 5명 등이 증가하였다.<sup>53)</sup>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한국교회는 교인수도 급증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1909년에 세례교인과 학습교인, 원입교인은 11만 9273명에 이르렀고, 서울을 포함하여 경기지역이 7782명 정도였으나, 평안남도는

3만 128명에 이르렀고, 평안북도는 2만 5천 910명이었다. 그 당시 한국교회의 수적성장을 주도했던 지역은 서북지역과 경상도 지역이었으며, 서울은 그렇게 많은 수의 신자가 생겨진 것은 아니었다.<sup>54)</sup> 하지만 1907년의 평양 대 부흥운동은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독노회는 1911년에 이르러 제 5회까지 회집이 지속되었으며, 1910년에 이르러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연합하여 백만인 구령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실은 마침내 전국규모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결성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VII.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조직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고 1912년 총회가 조직되기까지는 실로 5년간의 짧은 기간이었다. 그 기간에 한국교회와 조선제국은 참으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시기였다. 특별히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1907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1910년 마침내 일제의 흥계로 한일합방이 선언된다.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한 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전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정치적이며 민족적인 비통함을 극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이며 사회적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곧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의 조직과 총회의 조직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민족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성취되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총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조직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리회의 발전과정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고 1912년 총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독노회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새로이 설립된 교회는 737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을 관장한 독노회는 광범위한 지역을 사무적이며 행정적으로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7개의 대리회 조직으로 나누어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게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총회가 조직되면 그대로 노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체제였던 것이다. 7개의 대리회는 평북대리회(1907), 평남대리회(1893), 황해대리회(1907), 경기충청대리회(1893), 전라대리회(1901), 경

상대리회(1901), 함경대리회(1902) 등이었다.

이러한 대리회의 규모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북대리회는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된 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160교회가 새로이 설립되어 한국교회의 선교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평남대리회는 같은 기간에 89개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황해대리회 역시 같은 기간에 47개의 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경충대리회 역시 50개 처에 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또한 전남북대리회도 127개 처에 교회를 설립한다. 경상대리회는 186개 처에 교회를 설립한다. 그리고 함경대리회도 78개 처에 교회를 설립하는 성과를 얻게 된다.

그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해서 19010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을 전개하여 대대적인 전도운동을 힘쓴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부흥은 마침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조직하는 단계로 발전해 갔다고 할 것이다.

## 2) 제 5회 독노회에서 총회조직 결의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된 지 4년이 지난 후 1911년 제 5회 독노회에서 총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총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한 배경은 한국장로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때문이며, 또한 독노회의 조직으로만 전국적으로 부흥하는 장로교회를 치리하고 그 업무를 이끌어 가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벌써 1906년에 1만 2500명이던 세례교인수는 1910년에 3만 2500명으로 증가하고, 교인수도 4만 4000명에서 무려 11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독노회의 규모로, 외형적인 한국교회의 성장을 소화해 낼 수가 없었던 것이

다. 그리고 교회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치리회의 행정적인 뒷받침 없이 교회성장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조직되어 있었던 7개의 대리회가 크게 성장한 상황에서 1911년 9월 17일 대구 남문교회에서 개최된 제 5회 독노회는 1912년에 7개 대리회를 노회로 승격하여 7개 노회가 총회를 조직하는 것이 순조로운 발전임을 전제하여 총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sup>55)</sup>

이러한 제 5회 독노회의 결의에 따라, 각 지역의 대리회는 노회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1911년 10월 15일에 전주 서문밖 교회에서 목사 12명, 장로 21명이 모여 노회를 조직하였고, 경충노회 역시 12월 4일 목사 12명, 장로 21명이 새문안교회에 모여, 노회를 조직했으며, 황해노회도 봉산모동교회에서 목사 10명, 장로 34명이 회집하여 12월 8일 노회를 결성하였다. 1912년 1월 28일 경상노회는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28인, 장로 96명이 회집하고, 노회를 조직하였으며, 평북노회는 1912년 2월 15일에 신천북교회에 회집하여 목사 26인, 장로 15인이 회집하여 노회를 조직하였다.<sup>56)</sup>

##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조직(1912)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역사적인 총회 조직은 1912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평안남도평양경창문안여성경학원’에서 제1회 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가 개최됨으로 성사되었다. 이날 행사의 진행은 먼저 이눌서 선교사가 히브리서 12장을 가지고 ‘장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이어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성찬식 진행은 한국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마포삼열 선교사와 언더우드선교사가 각각 분병, 분잔을 집례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9월 2일 7개 노회가 파송한 목사 총

대 96명(목사 52명, 선교사 44명)과 장로 총대 125명으로 총 221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무가 진행되었다.<sup>57)</sup>

이날 역사적인 총회현장에 일본교회 장로인 제택이 마포삼열의 소개로 단에 올라 김필수의 통역으로 ‘문안과 축시를 포’하였던 것이다.<sup>58)</sup> 그리고 미국 장로교 연합회와 미국 남장로교 총회에서 보낸 문안과 축사의 편지를 낭독하고, 길선주가 총회서기로 하여금 이 두 기관과 영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장로교총회에 답신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독노회장 이눌서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었는데, 총회장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부총회장에 길선주 목사를, 서기에 한석진 목사, 부서기 김필수 목사를, 회계에 방위량 선교사를, 부회계에 김석창목사를 각각 선출하였다. 명실 공히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조직되었고, 또한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구성을 끝마치게 되었다.

제 1회 총회에서 결정된 임원구성을 보면, 여전히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서 일생을 복음전도와 교회설립에 헌신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첫 총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역사적으로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역시 부회장을 한국인 길선주목사를 선택한 것은 그동안 복음전도와 부흥운동의 주역을 담당했던 인물이며, 그 당시 총회를 결성하기까지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던 인물로서 선교사의 시대에서 이제는 조선인의 자립적인 교회의 시대로 전환됨을 보여준 것으로 인지된다.

# V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1884-1885년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한 이래로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기까지의 전 과정의 역사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발전된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헤아리게 된다. 그것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합동 측 교단이 깊이 있게 성찰하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새로운 발전을 열어가게 될 때, 착안하여 실천해야 할 중

요한 관점들이 되기를 바란다.

첫째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지향해야 할 신학적인 정체성은 칼빈주의적인 개혁신학에 근거한 장로교회의 신앙교리인 웨스트민스터신조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평양장로회조선신학에서 장로교신학의 정체성을 위하여 강의되었던 내용들이며, 오늘날 총신대학교를 통하여 가르쳐지고 있는 신학의 근본토대라고 할 것이다.

둘째로, 총회설립은 급성장한 한국교회가 정상적이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일에 역사적으로 크게 기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오늘날에 와서 한국 장로교회가 전 세계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오늘날 100년의 역사를 가진 총회가 이 시대에 걸 맞는 장로교회 총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일에, 그리고 총회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셋째로, 총회의 조직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다. 그런 점에서 100년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민족복음화와 해외선교를 힘쓰게 된 모범은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일로 판단된다. 특히 독노회가 조직될 때부터, 선교사파송을 감당하였던 일은 총회의 조직과 함께 더욱 활성화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선교, 동경선교, 산동성 선교, 러시아선교,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등지에 선교사 파송 등이 그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선교의 정신은 오늘 본 합동 총회가 GMS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는 세계선교사역으로 인지되며, 선교를 받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세계선교를 스스로 담당하는 교회로 발전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넷째로, 신학교육을 통하여 목회자와 선교사양성을 힘쓰게 된 일이다.

1901년 선교사들에 의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가 먼저 조직되고, 이 공의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먼저 목회자양성을 위한 신학교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1901년에 시작한 평양장로회신학교이다. 이러한 신학교육을 통하여 배출된 목사들에 의하여 1907년에 독노회가 조직되는 발전을 초래하였으며, 1912년에 이르러 총회가 조직되는 토대가 신학교육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총신대학교는 이러한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로

서, 본 합동교단의 목사와 선교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학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로, 교회연합의 정신을 발휘한 일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설립 시에서부터 세계장로교회, 특히 4개 교단의 유대관계 속에서 복음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점은 오늘날 다양한 교파로 분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깊은 교훈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특별히 이미 선교초기부터 한국교회의 복음 선교는 미국 북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미국 남 장로교회와 캐나다와 호주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잊지 못할 일이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가 신학 사상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세계장로교회와 국제적인 교단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은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추진해 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바라기로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합동교단이 세계최대의 장로교회로 장족의 발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신학정체성은 오직 장로교회가 지향했던 역사적으로는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대적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신앙정신에 근거한 개혁신학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가야할 것을 다짐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확립과 견지에 깊은 감동과 과제를 짊어진 교육기관이 총신대학교의 책임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 미 주

- 1) 발행인, 맹용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년사, 1984, 8-11쪽.
- 2) 김영재, 한국교회사, 3판, 2009년, 80쪽.
- 3) 맹용길(발행인), 전게서, 7쪽.
- 4) 맹용길, 전게서, 8쪽.
- 5) 전게서, 14쪽.
- 6) 참고, 전게서, 15쪽.
- 7) 참고, 김영재, 한국교회사, 116쪽 이하.
- 8) 김영재, 전게서.
- 9) 대한예수교장로회백년사, 236쪽.
- 10) 참고, 대한예수교장로회백년사, 전게서, 60-62쪽 이하(통계표).
- 11) 참고, 전게서, 62-63쪽 (통계표).
- 12) 참고, 전게서, 63-64쪽 이하(통계표)
- 13) 참고, H.G.Underwood, Reminiscences, Quarto Papers, 1909, p.99. 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년사, 1984년 각주 231번에서 재인용함.
- 14) 참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백년사, 전게서, 64-65쪽.
- 15) 참고, 전게서, 70쪽.
- 16) 참고, 전게서, 70쪽.
- 17) 참고, 전게서.
- 18) 참고, 전게서, 71쪽.
- 19) 참고, 전게서.
- 20) 참고, 김영재, 한국교회사, 102쪽.
- 21) 참고,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499-524.
- 22) 참고, 이상규, 부산지방기독교전래사, 2001, 99-127.
- 23) 참고, 김수진, 호남기독교 백년사, 1998년, 30-103쪽.
- 24) 참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백년사, 184쪽.
- 25) 민경배, 대한예수교장로회백년사, 232쪽.
- 26) 광안련 편, 장로교회사 전회집, 조선야소교회, 1918, 10쪽.
- 27) 서기행, 홍정이, 한국장로교회의 합동운동, 새한, 2009, 36쪽.
- 28) 광안련, 전게서, 15-16쪽 이하.
- 29) 광안련 편, 전게서, 18쪽 이하, 조선인장로 3명, 조사 6인이 참석하게 되었다.
- 30) 참고, 서기행, 홍정의, 전게서, 37쪽.
- 31)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 83쪽.
- 32) 참고, 전게서, 82쪽.
- 33) 차재명, 조선장로회 사기, 상 146.
- 34) 차재명, 전게서 상 9쪽.
- 35) 참고,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 30쪽 이하.
- 36) 참고, 채필근, 한국기독교개척자 한석진과 그 시대, 118쪽.
- 37) 참고, Harry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CUSA

- 1884-1934, 162쪽.
- 38) 참고, 채필근, 한국기독교개척자 한석진과 그 시대, 119쪽.
- 39) 참고, 신학의 경비, 그리스도신문, 1906년 8월 16일자, 제 21면 2단.
- 40) 참고, 제 1회 독노회록, 1907년 4-5쪽.
- 41) 참고, 제1회 독노회의록, 전게서.
- 42) 참고, 전게서, 6쪽.
- 43) 참고, 전게서.
- 44) 참고, 전게서, 7-8.
- 45) 참고, 전게서, 광안진, 한국교회사 1966, 136-137쪽.
- 46) 참고, 조선장로교회 신경, 제4회 독노회록, 19010, 2-7쪽. 1907년 독노회에서 채택한 12신조 원문은 제 4회 노회에서 공개되었다. 현대어로 교정해 본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문, 대한장로교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으로 신경을 삼아 목사와 및 인허 강도인과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청중케 하는 것이 대한 교회를 설립한 본 교회의 가르친바 취지와 표준을 보임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성경요리문답 대소책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임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요리문답을 적은 책을 더욱 교회문답으로 삼는다.
- 신경의 조목, -신구약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니 믿고 행할 본분의 확실한 법레인데, 다만 이밖에 없느니라. -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니 오직 이만 경배할 것이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 무소부재하며, 다른 신과 모든 형용물과 부동하시며, 그 계신 것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 하시느니라..
- 47) 참고, 제1회 독노회록, 1907년 13쪽.
- 48) 참고, 전게서, 17쪽.
- 49) 참고, 제 2회 독노회록, 1908년 5쪽.
- 50) 참고, 김양선, 한국기독교회사, 109쪽,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회의록, 1907년, 1909년, 1910년, 1911년, 1912년, 1914년, 1917년.
- 51) 참고, 제 2회 독노회록, 1908년 2쪽.
- 52) 참고, 제 3회 독노회록, 1909년 23-24쪽.
- 53) 참고, 전게서, 30쪽.
- 54) 참고, 전게서.
- 55) 참고, 제 5회 독노회회의록, 32쪽.
- 56) 참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년사, 제1권 375쪽 이하.
- 57) 참고, 전게서 375-377쪽.
- 58) 참고, 제1회 총회록, 1912, 1-4쪽.

## 참고문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년사,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제 1권, 2006.  
 대한예수교 장로회백년사, (통합측 교단) 1984.  
 김영재, 한국교회사, 1992년, 2004년 판.  
 예수교장로회 독노회록, 제1회기에서5회기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록, 1-2회.



안인섭 목사  
역사신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의 조직과 발전” 논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합동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작업은 그 자체로 한국 교회사적인 의미를 갖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본 논평문은 먼저 발제자가 제시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조직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진술한 후에,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평가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논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논문에 대한 이해를 더욱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논문의 각 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논문은 먼저 한국 교회가 출범하여 전개된 무대가 되는 구한말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잘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했던 1884년 이후의 조선은 한마디로 내외외환의 시기였고 민족의 시련기였다.

둘째 장에서 논문은 미국 북장로회 출신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내한 이전부터 만주 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과 자율적인 성경 번역 사역이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 장로교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출범을 잘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정일웅 총장님은 미국의 남북장로교회의 한국 선교 초기 사역을 기술하고 있다.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과 사역을 논하면서 특히 그들의 내한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소래교회 등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자발적이며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처음부터 견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초기의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은 물론이거니와 의료 선교와 학교 설립까지 진행함으로써 보다 전인격적이고 통전적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네 번째 장에서 제시해 주듯이 1901년에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가 조직된 후 그 해에 “평양신학교”가 설립되었고, 1907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정일웅 총장은 이 신학교의 신학적 기초를 장로교신학(개혁신학), 성경 무오설 중심의 신학, 또한 열정적인 복음 전도에 충실한 신학으로 요약하였다.

다섯째 장에서는 1903년 원산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그 당시의 한국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 논하고 있다. 즉 1905년의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 민족의 최고의 수난기에 오히려 한국 교회는 민족의 고난 속에서도 민족의 정신을 새롭게

게 하고 소망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족의 고난기에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1907년) 9월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됨으로 총회가 조직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특히 이 독노회는 한국교회 신앙의 근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요약과 같은 12신조를 채택하여 신학적 기초로 삼았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규칙”을 제정함으로 교회 치리의 법을 세웠다. 또한 이 독노회는 제주도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한국 교회는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교 독노회 설립 5년 후인 1912년에 총회가 조직되었다. 정일웅 총장의 논문은 특히 이 시기가 을사늑약(1905), 고종의 강제 퇴위(1907), 그리고 한일합방(1910)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고난의 시대라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고난 중에 세워지는 한국 교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1912년 최초의 총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부회장으로 길선주 목사가 세워졌다.

정일웅 총장은 본 논문을 5가지 관점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칼빈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인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기초하였고 또 평양신학교에서 그것을 강의되게 함으로 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둘째로 1912년에 총회를 설립함으로 당시 급성장한 한국 교회를 체계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되게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셋째로 총회가 조직됨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초석을 놓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넷째 1901년에 평양장로회신학

교가 세워짐으로 조선 출신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섯째로 1912년 총회가 세워질 때부터 세계장로교회와 유대관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 교회(교단)은 신학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면 교회 연합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본 논문은 독자들에게 한국장로교회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조직되었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명확하고도 설득력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논평자는 이어서 몇 가지 점으로 본 논문이 갖는 의의와 공헌한 점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본 논문은 일차적인 원자료들과 연구도서들을 충실하게 활용하여 작성함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출범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를 내려주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둘째로 본 논문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개혁주의적인 신학적 근거 위에 세워졌다는 점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었다. 특히 현대에 접어들면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에 대해 스스로 폄하하면서 세속주의와 편의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신비주의와 주관주의로 달리기하는 한국의 장로교회의 목회 현장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장로교 총회는 칼빈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줌으로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었다고 사료된다.



셋째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로교 총회의 초석을 놓았던 선교사들이 1884년에서 1907년까지 활동했던 사역의 내용을 보면, 복음전도와 교회 건립과 동시에 의료 선교와 학교 설립 및 교육 사역이 통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잘 제시해 주었다. 비록 다섯 가지로 요약한 결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논문의 본문에서는 잘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 점은 앞으로 200년을 열어가는 총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학교 공교육은 거의 황폐화 되어 있다. 자녀들을 외국에서 교육시킬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대다수의 한국의 기독교 학부모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개혁주의적인 교육을 받게 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그렇다면 차제에 한국의 초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시대에도 교단 차원에서 바람직한 공교육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어렵던 1900년대에도 학교를 세워 기독교 인재를 양성했다면, 이 시대에는 더욱 그 정신을 계승해서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 개혁주의적인 학교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교단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본 논문은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해 준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논평자는 이와 관련해서 장로교 총회의 초대 총회장인 언더우드 선교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후, 12세부터 화란개혁신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또한 언더우드는 뉴 부른스위크에 있는 화란개혁신학교(the Dutch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열정적으로 공부한 후에 1884년 봄에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11월에 화란개혁신교회의 뉴 부른스위크 노회에

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물론 언더우드는 결국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부터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혁교회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더우드의 개혁주의적인 신앙적인 배경은 언더우드가 왜 한국에 와서 교회 사역과 함께 사회를 위한 사역(학교와 병원)도 동시에 감당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장로교회도 개혁주의적인 통전적인 시각으로 교회 부흥과 교회 건설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사회를 위한 디아코니아의 사역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본 논문은 균형있게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된다.

이어서 논평자는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은 한국 선교의 출발점을 1885년 서양 선교사의 입국 시기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1879년에 서상륜이 매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역사학계에서는 이 두 관점이 공존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발제자는 한국 선교의 출발 시점을 위의 두 사건 중에서 어느 시기로 보며, 그렇게 보는 신학적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둘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장로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대개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기독교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서 한국 장로교회를 세어나갔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로교회 정치라는 것은 회중가운데서 투표로 장로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

은 사회적인 신분제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초기에 한국의 봉건적인 신분제도(사농공상, 남존여비 등)를 혁파하고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제자의 고견을 경청하기를 원한다. 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한국의 장로교회의 발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논평을 마치면서 본 논평자는 발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매우 성실하고

수려하게 작성된 논문을 통해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형성되어간 초기의 역사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다. 정일웅 총장님의 논문은 미시적으로 보면 합동교단의 신학적 토대와 역사적 기초를 연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 한국 교회의 발전을 20세기 교회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한다면, 거시적으로 볼 때는 세계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인정된다. 많은 학교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좋은 논문을 작성하여 유익하게 해 주신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김길성 교수  
조직신학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 I. 서론
- II. 서구신학의 격변기에 복음전래
- III.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적 배경
- IV.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적 근거
- V. 결론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 100년의 회고와 전망

## I. 서론

본 논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100주년기념 신학정체성포럼을 위해 준비한 논문이다. 한국 땅에 장로교회 총회가 설립된 지 100주년을 맞이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적 흐름을 회고하고, 그 신학의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논문이다.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들은 대체로 성경에 충실한 보수적인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의 신학은 선교사 본국의 교단들과 연계되어 있다. 한국에 장로교회를 세운 초기 선교사들은 4개 선교부 소속이었

다. 1889년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호주장로교회 선교부 사이에 연합공의회를 조직하고, 1893년에는 미국의 남장로교회가 참여하여 선교사공의회가 조직되고, 1901년에는 선교사와 한국인대표가 참여한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가 조직되어, 미국의 북장로교회(미합중국장로교회, PCUSA), 남장로교회(PCUS), 호주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이 참여한 4개선교부에서 공의회를 통해 평양에 설립한 신학교가 평양장로회신학교이다. 이 때문에 한국장로교회는 초기부터 영

미계통의 장로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대체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을 영미계통의 신학전통과 유럽, 특히 화란계통의 신학전통으로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화란계통의 신학보다는 영미계통의 신학이 한국에 뿌리를 내린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적 방향을 역사 속에서 돌이켜 보고 확인하

기 위하여,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전래된 19세기 말 격변기 시대를 돌아보고, 또한 그 시대 4개 선교부를 통해 1개의 신학교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미합중국장로교회(PCUSA)에 속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적 몰락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한국장로교회의 출발과 관계된 신앙고백서 채택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서구신학의 격변기에 복음전래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단 사상은 항상 교회 주변에 맴돌거나 혹은 교회 내부 속에 침투하여 정통적인 교회를 괴롭혀 왔다. 자유주의 신학은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향한 도전세력으로 성장하여 왔다. 특히,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기독교의 기본적 신앙을 뒤흔들어서 서구 교회의 악화 내지 몰락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18세기에 이르러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이미 고백주의, 신학의 상아탑화, 맥빠진 정통에 반대하여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과 합리주의에 의해 현대성경비평, 일명 고등비평(Higher Criticism)의 수용과 주관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의 길로 가는 대로를 열어놓고 말았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향을 받은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의 주관주의적 자유주의 신학과 헤겔의 역사주의가 19세기와 20세기 초엽의 신학계를 지배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지성인이 기독교 진리를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의 비평적 연구 방법을 수용하여 기독교의 초자연적 메시지를 수정 없이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게 되었다. 이들은 인간활동이 단순히 지적 영역 외에 예술적 표현이나 삶의 신비성을 나타내는 다른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낭만주의의 경향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적 환경 속에서 쉐라이어마허는 그의 저서들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는 그의 『종교론』에서 “종교란 사고의 양식으로서 신조나 교리가 아니요 절대존재감정”이라고 말하고, 그의 『기독교 신앙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란 그리스도의 신의식과 신자의 일체성 의식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받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고립된 현상에서 자유로워지며 해방되어진다고 하였다. 쉐라이어마허에게 있어서 신학의 출발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인간이해이다. 그는 종교의 주관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활

짜 열어놓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영국에서 일어난 자연신론(Deism)과 유럽대륙에서 라이마루스(Hermann Samuel Reimarus)에 의해 제창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는 스트라우스(David F. Strauss)의 『예수의 생애』(Leben Jesu, 1835), 홀츠만(H. Holtzmann)의 『예수전』(1863), 르낭(J. Renan)의 『예수전』(1863) 등을 남겨 놓았다. 이들은 한결 같이 독일에서 발달된 고등비평을 그대로 수용하여,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 있어서 예수의 신성은 무시되고, 복음서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는 모두 삭제하고 자연적인 요소만으로 인간예수의 모습을 재구성해 보고자 시도했다. 현대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술라이어마허의 주관주의와 헤겔의 역사주의가 19세기 신학을 지배하고 있을 때, 리츨(Albrecht Ritschl)은 기독교 복음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윤리적 공동체로서 하나님나라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리츨은 복음의 강조점을 개인 구원에서 사회적 구원, 곧 현세적 하나님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리츨의 영향은 헤르만(Wilhelm Herrmann), 카텐부쉬(Ferdinand Kattenbush), 하르낙(Adolf von Harnack), 트뢰츨취(Ernst Troeltsch) 등의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주자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1919년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으로 비유되는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의 로마서주석(1919년 초판, 1921년 개정판)이 나타날 때까지 신학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일종의 결합이 아니라 지적 생동력의 표시로 또는 교화된 관용의 승리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 동

향의 절정으로서 “역사주의”가 나타났다. “역사주의”라는 술어는 모든 사물들의 절대적 사실성 때문에 상대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을 의미하거나, 또한 역사는 고정된 모형을 따라 진행된다고 하는 신념, 곧 헤겔이나 마르크스, 헨리 애덤스, 허버트 스펜서, 윌리엄 쉰너 등에 의해 발상된 신념 때문에 결정론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의미한다.이 때문에 일률적 발전의 원리들이 모두 과거의 사건들에 적용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의 생애, 또한 기독교의 발흥에서 이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제외되었다. 또한, 성경이 고대의 다른 문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벨하우젠(H. Wellhausen)같은 학자는 구약 오경과 기타 부분들의 저작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그 문학적 통일성을 의문시하였으며, 신약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도전이 있었다. 아울러, 종교들의 비교연구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바울의 종교에 대한 고대 이교사상의 영향에 관하여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기타 세계 종교들, 특히 동양의 종교인 불교, 힌두교 등에 대한 기독교의 절대 우월성과 유일 진리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에 회의를 표명했다,

위와 같이, 모든 사물들을 역사적 발전의 관점에서 보는 이러한 지적 상황으로부터 신약해석의 주요한 세 학파가 생겨났다. 그 첫 번째 학파가 바우어(F. C. Baur)가 이끄는 튀빙겐학파였다. 두 번째 학파는 종교사학과인테 부셋(Wilhelm Bousset)이 가장 탁월한 대변자였다. 세 번째 학파는 하르낙(Adolf von Harnack)과 말부르크대학교에서 메이첸(J. Gresham Machen, 1881-1937)의 스승이었던 헤르만(Wilhelm Herrmann)으로 대표되는 리츨학파였다. 튀빙겐학파는 메이첸보다 시기적으로 앞섰으나 메이첸이 독일 유학중 독일에서 아

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두 학파, 곧 종교사학과와 리츨학파는 메이첸의 독일 체재중 한창 전성기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당시 자유주의에 강력하게 대응한 보수연합 운동으로서 근본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메이첸은, 독일 유학중 말부르크대학교에서 바로 리츨학파의 빌헬름 헤르만 교수를 통해 유럽 자유주의의 진수를 맛보게 된 것이다.

19세기 신학계를 지배하던 술라이어마허의 주관주의적 자유주의, 헤겔의 역사주의, 리츨의 사회복음주의 신학은 이미 19세기 말엽부터 바이스(Johannes Weiss)나 브레데(Wilhelm Wrede)의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1906년 슈바이처의 저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예수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오직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는 임박한 천국의 도래를 외쳤으나,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죽음으로써 그의 생애는 실패로 끝났는데 바로 이 예수의 실패야말로 영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슈바이처의 종말론적 예수 이해는 켈러(Martin Kaehler)에 의해 역사적 예수와 참역사의 그리스도를 분리함으로써 역사적 예수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역사적 예수는 복음서의 기록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복음서는 참역사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보았다. 그로나, 복음서의 초자연적인 요소는 성경비평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할 것으로 여지없이 부서지고, 이후, 신학의 초점이 사실 또는 사건으로서의 역사(Historie)에서 참역사, 곧 실존적 도전으로서의 역사(Geschichte)로 옮겨가게 되었다. 칼 바르트(Karl Barth)와 볼트만(Rudolf Bultmann)이 새 조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스위스 바젤에서 신약신학자의 아들로 태어나 당시 신리츨파로 이름난 하르낙과 헤르만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1911년 그는 스위스의 자펜빌에서 시골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발견된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유주의 신학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닌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신학을 접근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위기의 신학”, “신 정통 신학”, “스위스 학파”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 지지만, 그에게 기록된 성경 자체는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요 통로였다. 그는 키엘케골의 초월주의와 변증법적 사고의 영향으로 계시와 역사를 분리하고, 계시를 본질상 역설로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숨은 하나님이요, 동시에 계시된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요 동시에 유기된 자이다. 그에게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파악된 역사로, 창세기의 기사를 설화(Saga)로 이해하고, 예수의 부활은 그것이 사실 또는 사건으로서의 역사(Historie)가 아닌 실존적인 역사(Geschichte)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의 지나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의 전개는 구원론에 있어서 만인구원론적 경향을 면치 못하고 말았다. 반틸(Cornelius Van Til) 교수가 바르트의 신 정통 신학을 일컬어 “신 현대주의”(New Modernism)이라고 표현하여, 바르트가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초월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내재를 부인한 것과, 현대주의 또는 자유주의의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을 끝내 버리지 못한 신 현대주의 신학자로 평가한 것은 의미 있는 평가이다. 자유주의에 뒤이은 새로운 신학의 경향(신 신학)과 더불어 또 한사람 볼트만이 있다. 볼트만은 궁켈, 슈미트와 더불어 양식사학과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공관복음 전승사」(1921년)에서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아니며, 초기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소유한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이전에 복음서를 구성한 단위들을 그들의 양식에 따라 구별하여야 하며, 그 당시 권위 있었던 민속 자료와 복음서의 단위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복음서의 동정녀 탄생 기사를 위시하여 광야의 시험, 변화산 사건, 이적, 부활 등의 모든 기사가 모두 신화(Myth)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 신화 처리를 위하여 그는 비신화화 작업을 제창했다. 볼트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여 버릴 것이 아니라, 다만 새롭게 재해석하여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실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르트와 볼트만으로 시작되는 신 신학의 경향을 따라. 존재의 신학을 강조한 틸리히(Paul Tillich), 종교성 없는 기독교를 주장한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 기독교 현실주의 윤리를 강조한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또한, 세속화 신학을 주장했던 로빈슨, 알티저, 반 뷰렌, 하비 카스, 플레처, 희망의 신학의 주창자인 몰트만(Juergen Moltmann), 기타,

남미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쉘라이어마허로부터 칼 바르트 이전까지의 현대주의 또는 구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또한 칼 바르트와 볼트만으로부터 시작하는 현대신학(Contemporary Theology)의 다양한 경향 속에서도 반틸이 신 현대주의라고 부를 만큼 현대 철학에의 정도와 성경의 고등비평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메이첸(J. Gresham Machen, 1881-1936)이 자신이 속한 미합중국장로교회(PCUSA) 내에서 자유주의자들과 고군분투한 것도 바로 이 자유주의의 파괴적 원리들에 대한 그의 응전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도, 1934년 성진 중앙교회 김춘배 목사의 여성 임직에 대한 도전이나, 오경의 모세 저작에 대한 부인, 또한 김재준 목사의 잘못된 신학 사상 등은 때로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도 하였으며, 때로는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돌아보며 시대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며 그 파괴적 함축성을 더해 가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 사상과 신앙에 대한 우리의 경계와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III.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적 배경

#### 1. 프린스턴 신학교의 설립

미국의 장로교회가 남북전쟁(1861-1865년)으로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로 나뉘기 전 하나의 미합중국장로교회(PCUSA)로 존재할 때, 프린스턴 신학교는 미합중국장로교회의 목사양성을 위한 직영신학교로 출

발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미국 교회사에 있어서 대부흥 운동, 특히 제2차 대각성운동의 결과로 1812년에 설립되었다. 1812년 설립으로부터 프린스턴 신학교는 미합중국장로교회(PCUSA)의 목사 양성 기관으로 출발했다. 당시 뉴저지 대학(College of New Jersey; 현 프

린스턴 대학교의 전신)이 오래 동안 목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나, 1800년대 초에 이르러, 미합중국장로교회 목사양성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실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지적되었다. 이리하여 대학과 구별되는 전문적인 목사양성기관의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

1811년에 7인 위원회가 학교설립에 대해 총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총회는 그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 계획서에 따르면, 신학교는 총회에 직접 책임을 지는 운영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사회는 교회에 대해 철저한 감독, 심지어 교수들이 가르치는 과목의 변경을 허락하는 정도까지 감독권을 행사한다. 계획서는 적어도 3인의 교수를 요청했다. 각 교수는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여야 했다. 또한, 각 교수는 엄숙하게 미합중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자기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고, 받고, 서약해야 한다.

이후, 프린스턴 신학교는 1929년 신학교 이사회의 개편 직전까지 보수적인 구학파(Old School)의 신학유산을 유지했다. 워필드(B. B. Warfield)와 메이첸(J. Gresham Machen), 그리고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진의 대다수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설립자들의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학파의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고 믿었다.

워필드는 메이첸이 자기 시대에 그러한 것처럼, 성경에 대한 근대주의(또는 현대주의)의 비판의 많은 부분을 거부했다. 워필드는, 사람이 전문방법에 대한 지식 없이는 성경을 읽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필경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는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워필드의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를 충실히 따랐다. 워필드와다른 프린스턴 교수진은 1903년 신도개요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는 그 개정이 개혁주의 성격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넓어지는 교회로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인식 때문이었다.

찰스 브릭스(Charles Briggs)의 경우만 해도, 교회가 그를 포용할 만큼 충분히 넓어져야 한다고 하는 점증하는 인식이 장로교회 안에도 있었다. 그러나 통일과 평화를 갈구하는 열망이 종종 교회의 성경적 순결을 희생하게 된다. 광교회주의에 대한 경향은수많은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진영에서도 현존하는 바, 필경 신학적 다원주의와 기독교 교리에 대한 현대주의적 무관심, 그리고 장로교회 안에 보수세력의 쇠퇴로 인도했다.

#### 2.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들 사이의 갈등

1914년 로스 스티븐슨(J. Ross Stevenson:1866-1939)씨가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으로 임명된 사건은 프린스턴의 신학적 좌경화에 불을 당겨 놓은 썸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장차 스티븐슨은 신학교 이사회를 해체하고 새 이사진으로 재편성하는데 주역을 담당한 인물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메이첸은 스티븐슨에 대하여 “신학교에 대한 그의 학문적 공헌은 프린스턴의 표준이하”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신앙의 “명백한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았다.<sup>1)</sup> 그러나 스티븐슨의 순수성에 대한 메이첸의 판단은 점차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스티븐슨은 프린스턴의 강한 보수주의에 대한 매우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학장직을 수락했다. 그러나 그는 신학교를



교단내의 포용주의 주류와 일치시킬 목적과 또한 자신을 교수회의 의장 및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학교의 실질적 권한소유자로 만들 대권을 취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직을 수락했다.<sup>2)</sup> 그는 일단 학장에 취임한 후, 신학교에 대한 지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프린스턴 신학교]는 결합된 교파와 기관이다. 신학교 학장으로서 나의 포부는 신학교가 미합중국장로교회의 어떤 특별파벌이 아닌, 전체 미합중국장로교회의 어떤 특정파벌이 아닌, 정체 미합중국장로교회를 대표하게 하는 것이다.<sup>3)</sup>

메이천은 스티븐슨의 이런 정책이 미합중국장로교회 내에 현존하는 정 반대의 사상경향을 수용하여 역사적 정통노선을 표방해온 프린스턴을 파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암스트롱(William Park Armstrong)은 말하기를, 신학교가 설립자들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프린스턴은 마땅히 교회 내에 설립자들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프린스턴은 마땅히 교회 내에 구학파(Old School)의 전통을 대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sup>4)</sup> 프린스턴 신학교의 역사적 입장을 묻는 한 질의서에서 당시 캐시퍼 하지(Caspar Wistar Hodge)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전체 교회의 신학교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리적 표준문서의 해석에 있어서 보편화된 자유허용 때

문에, 교회헌법 아래에서조차도 그 역사적 입장을 떠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전체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교수회의 대다수는 본 기관이 구학파라고 알려진 교리적 관점과 역사적으로 맥을 같이해 왔다.<sup>5)</sup>

사실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회의 대다수는 캐스퍼 하지와 동일한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 모호하고 때로는 이단적 교리의 관용을 요구하는 스티븐슨 학장의 유세는 프린스턴의 정체성에는 분명 낮선 것이었다. 만일 스티븐슨 학장과 같은 관용주의 보수주의자들이 없었더라면, 미합중국 장로교회내의 자유주의자들이 교단 및 프린스턴 신학교를 결코 장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슨 학장은 1920년 총회 시에 채택을 위해 「복음주의 교회의 유기적 연합 계획」에 대한 다수안을 제출했다. 스티븐슨 학장 등이 제출한 「다수안」은 1920년 총회결의에 의해 각 노회에 수의 하도록 보내졌다. 그러나 결과는 미합중국 장로교회 총회산하 320 노회 중에서 151개 노회가 반대하고, 찬성은 100 노회뿐이었다.<sup>6)</sup> 이리하여 스티븐슨 학장 등이 추진했던 「연합계획」은 노회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여도 스티븐슨 학장이 추구하는 광교회주의에 동의하는 교수들이 있었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프린스턴의 신학적 좌경화에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리취 스미스 교수(J. Ritchie Smith)는 이단재판으로 장로교 목회에서 쫓겨난 찰스 브릭스(Charles A. Briggs)가 성경무오를 부인할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옹호했다. 또한 프레드릭 레취(Frederick W. Loetscher) 교수는 유럽에서 하르낙문하에서 수학했고, 또 그는 개인적으로 독단론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회 대다수의 논쟁적 경향에 당황해한다고 말했다.<sup>7)</sup>

이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교수는 역시 찰스 어드만 교수(Chanrles R. Erdman, 1866-1960)였다. 훗날 레퍼츠 레취 교수(Lefferts A. Loetscher)는 어드만 교수를 평하면서, “그는 자신의 목회경력 때문에 순전히 탁상공론식의 태도에서 풀려난 사람”이라고 말했다.<sup>8)</sup> 어드만은 「파즈딕 논쟁」에 대해서도 “사람이 충실하지 않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 외에 가급적 언급을 회피했다. 어드만은 자신이 총회장에 출마한 1924년 총회에서, 교리적 갈등의 문제가 교회의 적극적 목회를 붕괴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sup>9)</sup> 그는 자신의 관용적 평판 때문에 보수주의자 매카트니(Clarence E. Macartney)를 상대로 총회장에 출마하였으며, 소위 총회내의 온건파와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조지 말스텐의 표현을 빌리면,

관용의 대변자로서의 찰스 어드만의 존재는 이후 수 년 동안 이어질 분쟁의 향방을 가름 할 만큼 의미심장했다.<sup>10)</sup>

그러나 어드만의 모호한 행동 뒷면에 그가 성경무오성에 대한 제한된 견해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은 1920년대와 30년대 미합중국장로교회 논쟁에서 그가 취한 행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롱필드 교수는 어드만의 분명치 못한 이런 태도에 대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특히, 어드만은 자신을 근본주의자로 기술하고, 동정녀 탄생,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육체적 귀환 등과 같은 교리들을 받아들이지만, 적어도 1920년대 중반까지 그는 성경무오성에 대한 제한된 견해만을 지니고 있었다. 장로교논쟁의 와중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도적 저자들의] 증언의 주제와 실내용이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제한적이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진리였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증언에 있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저술은 그의 성령의 인도 때문에 오류가 없으며, 믿을만하며, 권위가 있게 될 것이다.”<sup>11)</sup>

결국, 1920년대와 30년대 미합중국 장로교회 안에 격렬했던 논쟁 속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서 어드만은 광교회주의의 물결에 휩싸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 총회장을 지내기는 했지만, 신학적으로 보수인체하면서도 자유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중립주의를 취함으로써 스티븐슨 학장을 도와 프린스턴 신학교가 재편되어 좌경화 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의 뒷면에는, 비록 당시에는 보수주의자인 체 하였으나 훗날 그가 공언했듯이 성경의 영감과 무오에 대한 그의 분명치 못한 태도가 자유주의자들을 포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직하지 못한 한 사람의 신학적 태도가 신학교와 교단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결과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놓았다.

### 3. 해리 에머슨 파즈딕 논쟁

사실, 1920년대 미합중국장로교회(PCUSA) 내의 논쟁은 대부분은 해리 에머슨 파즈딕(Harry Emerson Fosdick, 1878-1969) 이라고 하는 인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는 본래 침례교 목사였으나, 뉴욕에 있는 제일 장로교회의 부목사가 되어 달라는 청을 받고, 침례교 교적을 옮기지 않고 바로 장로교 강단에 선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근본주의 대 근대주의 논쟁과 관련하여 특별히 기억할만한 것은, 그가 1922년 5월 21 주일 아침 설교시간에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제목으로 당시 근본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였다는 사실이다.<sup>12)</sup> 파즈딕은 자신의 설교에서 신학적 관용에 대해 호소하고, 성경의 무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육체적 귀환 등은 비필수적 교리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는 개인적으로 동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즈딕의 설교는 즉각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메이천 교수의 친구요, 필라델피아에서 목회 하던 클라렌스 에드워드 매카트니 목사(1879-1957)는 “불신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로 응수했다. 이후 매카트니는 1922년 총회가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도록 헌의 하게 하는 데 앞장섰다.

이에 뉴욕노회는 총회의 지시를 받아 파즈딕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1923년에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대한 믿음을 확인하기를 거부하는 두 젊은이, 헨리 반 듀센과 케드릭 레이먼에게 강도사 인허를 허락하고, 이들은 결국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이중 반 듀센(1897-1975)은 뉴욕 유니온 신학교 교수와 학장이 되었다. 이러하듯 뉴욕노회는 유니온 신학교 졸업생들을 목사 안수하면서 교

단 내에서 자유주의 물결의 선봉이 되었다. 1923년 총회는 보수주의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패배하고, 자유주의의 지지를 받는 찰스 위샬트가 총회장에 당선되었다. 위샬트는 그의 선출에 대해 “관용에 대한 승리”로 표현했다.<sup>13)</sup>

1923년 총회는 1910년 총회에서 채택한 “근본주의 5개조”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순서를 가졌다. 다시 총회가 뉴욕노회로 하여금, 파즈딕이 속한 교회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에 일치하도록 지도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 총회원 85명이 서명한 항의서를 총회에 제출했다. 이듬해 1924년 총회 재판국은 뉴욕노회로 하여금 파즈딕이 장로교인이 되도록 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파즈딕은, 신도게요에서 서명하는 일을 거절하고, 뉴욕 제일 장로교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의 사표는 1925년 3월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마지못해 사표를 수리한 교회는 그에게 동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대기초청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다.

### 4. 오번 선언서 사건

이 일이 있는 후, 1923년 12월 26일자로 149명의 장로교 목사의 서명과 함께, 총회가 1910년, 1916년, 1923년에 걸쳐 근본교리 5개조를 모든 목사 후보생들에게 서약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뉴욕 오번에 본부를 두었기 때문에 이 선언서이 이름을 훗날 “오번 선언서”라고 부르게 되었다.<sup>14)</sup>

이 선언서는 대담하게 성경과 역사적 신조들은 무오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속, 육체 부활, 이적 등의 교리들은 “이

론”에 속하며, 총회가 이들 교리들을 교회 내에서 강도사 인허, 임직 등에 대한 필수교리로 선포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말하기를, 총회가 산하 노회로 하여금 그렇게 투표함이 없이 노회로 하여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리에 제한하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동 선언서 주장자들은 자신들을 신학적 혁명이 내지 급진주의자들로 제시하기보다는 온건파로 제시하고, 또 복음주의자들 또는 진정한 화해론자들로 제시했다.

이 오번 선언서가 나오기 수개월 전에 메이천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출판하고(1923년), 자유주의는 기독교와는 뿌리가 다른, 자연주의에 기초한 별개의 종교형태라고 명쾌하게 지적했다. 동 선언서는 이듬해 1924년 5월까지 1,283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이 선언서에 서명했다. 이리하여, 역사상 가장 폭발의 가능성이 많은 총회의 하나로 꼽히는 1924년 총회는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모였다. 이 총회에서 보수주의의 기수 클라렌스 매카트니가 프린스턴 교수였던 찰스 어드만을 누르고 총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헌의부에서 오번 선언서 발행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 내용과 서명자들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없이 통과시켰다. 시애틀 제일장로교회에서 목회 하던 매슈즈(Mark Allison Matthews)가 이 문제를 위원회에 넘기자고 제의했다. 이후, 총회 재판국은 교회가 특별하게 그 근본교리들을 정의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총회가 직분자들에게 교리시험을 시행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판결했다.<sup>15)</sup> 이리하여 1910년에 채택하고 1916년, 1923년에 걸쳐 확인된 “근본주의 5개조”는 이제 장로교내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고, 「오번 선언서」에 서명했던 자유주의자들의 승리로 돌아

갔다. 문제는, 교단의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근본주의 5개조”의 위헌에 집착한 나머지, 교단 내에서 성경과 역사적 신조에 정면 대항한 「오번 선언서」에 서명한 이들 같은 자유주의자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취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입장을 수용하고 이를 천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 5. 1925년 이후

이듬해 1925년은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해였다. 조지 말스텐은 1925년을 보수세력이 이해를 계기로 급작스럽게 약화되는 분수령으로 보았다. 같은 해 유명한 브라이언(Willian Jennings Bryan, 1860-1925)이 테네시 주 데이튼에서 열린 원숭이 재판에서 충격을 받고 소천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불행한 한 해였다.

1925년 총회는, 1924년 총회에서 패배한 찰스 어드만을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헨리 반듀센과 케드릭 레이먼을 인허했던 뉴욕노회에 대해, 총회는 동정녀탄생에 대한 믿음은 장로교 목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결하고, 뉴욕노회로 하여금 교회의 표준문서에 일치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했다. 이 조치는 총회 내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조치였다. 그래서 헨리 슬로은 코핀(Henry Sloane Coffin, 1877-1954)은 자유주의자들을 대신하여 항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찰스 어드만 총회장은 총회의 문제들을 연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15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sup>16)</sup> “15인 위원회”에는 자유주의자들과 소위 교회의 순결보다는 “화평”을 지향하는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듬해 1926년 총회는 「오번 선언서」를 논의하기조차 거절하고, 1년 더 연장하여 이듬해 총회에 문제들을 소상히 보고케 허락했다. 또한 총회는 프린스턴 신학교 내의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허락했다. 1927년 총회에서, “15인 위원회”(the Peace Commission of Fifteen)는 1910년 채택한 “근본교리 5개조”를 무효로 하고, 교회가 그 근본교리들을 정의한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sup>17)</sup> 총회는 이것을 별다른 토의 없이 받아들였다. 또한 총회는 프린스턴 신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신학교가 두 이사회(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두 이사회에 통폐합을 건의했다.<sup>18)</sup> 총회가 이미 자유주의자들과 포용주의를 관용하는 소위 “온건파”에 의해 장악되어진 것이다.

이 건의안은 1929년에 채택되어 33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새 재단이 사회를 구성했는데, 구 재단이사회에서 11명, 구 운영이사회에서 11명 그리고 범교회적으로 선출한 11명, 도합 33명으로 구성하고, 새 정관은 학장의 권한을 확장하고, 새로 구성된 재단이사회에는 오번 선언서에 서명한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이 때문에, 메이첸(J. G. Machen)을 비롯한, 윌슨(Robert D. Wilson), 앨리스(O. T. Allis) 등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는 카이퍼, 반틸, 머리, 맥크리, 스톤하우스, 울리(R. B. Kuiper, C. Van Til, John Murray, Allen Macraee, Ned B. Stonehouse, Paul Woolley) 교수 등이 가담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편, 프린스턴 신학교는 1936년 존 매케이(John A. Mackay)박사를 스티븐슨의 후임 학장으로 선출하고, 1939년에서 신정통신학자 에밀 브룬너(Emil

Brunner)를 조직신학 교수로 받아들이고, 발트주의자 홈리히하우젠 교수(Elmer G. Homrighausen)를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받아들이고,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와 교류하게 되었다. 당시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교리를 부인하여 목사 안수가 지연되었던 헨리 반듀센이 1936년 이래로 학장을 맡고 있었다.

### 짧은 요약

위에서 살펴본 대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대륙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신학이 교회와 신학교를 강타하던 시기 동안,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장로교회 안에서의 근본주의자 대 현대주의자 논쟁이 정점을 이루던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장로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논쟁이 1930년대 한국장로교회 안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되었다.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들은 대체로 성경에 충실한 보수적인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의 신학은 선교사 본국의 교단들과 연계되어 있다.

한국에 장로교회를 세운 초기 선교사들은 4개 선교부 소속이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미합중국장로교회, PCUSA), 남장로교회(PCUS), 호주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이 공의회를 조직하고, 1901년에 평양에 설립한 신학교가 평양장로회 신학교이다. 이 때문에 한국장로교회는 초기부터 영미계통의 장로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대체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전통을 영미계통의 신학전통과 유럽, 특히 화란계통의 신학전통으로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화란계통의 신학보다는 영미계통의 신학이 한

국에 뿌리를 내린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후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 채택

은 자연스럽게 영미계통의 것을 수용하게 되었다.

## IV.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적 근거

해방 이후 한국의 장로교회는 그 동안 맛보지 못했던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열이라는 짙지 않은 아픔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 감리교의 분열의 주된 원인이 교회의 주도권 싸움에 있었던 반면에 장로교회의 분열은 경건과 신학을 명분으로 내세워 일어난 분열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같이, 비록 장로교의 분열에 있어서도 교권과 정치적인 이유가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 중의 하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더 중요한 원인은 신학적인 문제였다는 점이 분명하다.<sup>19)</sup> 이러한 사실은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의 그 한 가운데에는 신학교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신앙고백

로마가톨릭 신자가 한국에 온 것은 도요도미 히데요시(풍신수길) 휘하의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가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과 그와 함께 그레고리오 데 켄스페디스 신부가 함께 1592년 이땅에 침입자로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승훈이 처음으로 천주교회당을 세운 1784년부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한 1866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성경의 일부라도 번역하려고 계획하지도 않았다.<sup>20)</sup> 그러나 개신교(Protestant

Church)의 선교활동은 처음부터 성경의 전수였다. 한국에 처음으로 성경을 전해준 사람은 영국인 바질 홀(Basil Hall)이었다. 그는 배의 함장으로 1816년 황해도 백령도와 청도 근방에 상륙하여 한문성경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하던 독일선교사 칼 구츨라프는 동인도회사의 통역관으로 1832년(순조32년) 황해도 대청도, 소청도 등에 와서 정박하고, 충청도 홍천, 금강 입구에 상륙하여 선물과 함께 성경책을 반포하였다.<sup>21)</sup> 그리고 1866년 대동강 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와 1884년 알렌 의사의 활동, 그리고 알렌 의사의 편지로 말미암아, 이듬해 미국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내한은 한국 땅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한국장로교회는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초기부터 성경번역(1887년 예수성교전서 발간)과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 채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시대(1901-1906년) 동안, 1904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000부가 출판되었고, 이듬해 1905년에는 교회의 신경을 공의회가 채용하게 되었고, 다시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소집된 제1회 노회(독노회)에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일곱 사람이 목사로 장립을 받았다.<sup>22)</sup>

곽안련 박사가 1919년에 발행된 「신학지남」에 기고한 “조선예수교장로회신경론”이란 제목의 글에는 190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 보고 한대로 12신조의 채택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소상하게 실려 있다:

조선장로회 신앙의 표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일[첫째]은 신령이요 이[둘째]는 성경소요리문답이니 제2[그 둘째]는 이백육십 년 전에 영국에서 저술한 것인데 지금 수십 국 방언으로 번역이 되고 만국장로회에서 거진[거의] 다 채납[채택]하여 사용하느니라<sup>23)</sup>

고 기록하여, 12신조와 성경 소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처음부터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으로 선포된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12신조와 성경 소요리문답의연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12신조는 그 영어원문이 본래 인도의 영국선교사들이 준비한 것을 인도장로교회가 교회의 신조로 채택한 것을 12개 신조와 승인식은 그대로 두고, 앞에 나오는 “서언”은 일부 수정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와 독노회에 보고하고, 교회의 공적 신조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sup>24)</sup>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은 1907년 독노회시 12신조와 성경 소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정식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와 대요리문답은 “성경은 밝히 해석한 책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독노회시 결의 하였으나, 그 후 1963년 제 48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 전체가 교회의 신앙고백이 되었다.<sup>25)</sup>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에 따르면, 12신조는 서언, 신조, 승인식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12신조는 헌법의 맨 앞자리에 위치한 “차례” 바로 다음인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실려 있고, 끝부분에 승인식이 있어서 다음과 같다: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sup>26)</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12신조는 교단의 공적인 신조임과 동시에 교단에 속한 모든 신자의 “개인의 신조”인 것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12개항으로 되어 있는 “신조” 앞에 붙어 있는, 12신조의 “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중에 성경 소요리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 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sup>27)</su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12신조는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과 동시

에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은 우리 헌법에 밝힌 대로 목사와 강도사 장로와 집사의 임직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장로와 집사의 임직(정치 제13장 제3조)에 5개항의 서약과, 강도사의 인허서약(정치 제14장 제5조)에 4개항의 서약과, 그리고 목사의 임직예식(정치 제15장 제10조)에 7개항의 서약을 요한다. 그 중에서 위의 서약 중에서 각각 첫 2개항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sup>28)</sup>

라고 본 교단에서 임직 받을 모든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그들의 임직 시에 물어서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 1.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본 교단의 공식적인 신조인 것이 분명하고,
- 2.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본 교단에서 사역할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승인할 자신의 신조인 것이 분명하고,
- 3.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서로 연

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4. 12신조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겠다.

## 2. 고신의 신앙고백<sup>29)</sup>

해방(1945년)이 되었을 때, 한국 장로교에는 두 개의 신학교가 있었다. 이북에 있었던 평양장로회신학교와 서울에서 김재준 목사가 주도하는 조선신학교가 그것이다. 그러나 원래 한국의 장로교를 대표하는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때를 맞추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자진해서 무기 휴교에 들어갔다. 반면에 서울의 조선신학교는 신사참배 문제와 상관없이 그 기간 동안에 세워졌으며(1940) 친일파적인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인사들이 운영권을 쥐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선신학교는 해방 전후로 독무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신사참배로 인하여 옥고를 치르던 성도들이 출옥 후에 당시의 신학교 상황을 볼 때 조선신학교에서 목사후보생을 양성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자 일제 말엽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에 갇혔던 목사들과 망명 중이던 교회 지도자들은 뜻을 같이하여 보수신학의 보루였던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서 보수신학교를 새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1946년에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1952년 10월에 이르러 결국 고려신학교를 중심 한 고신 총회가출범하게 된 것이다.<sup>30)</sup>

고신교단(회)은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배태되었다. 고려신학교는 해방이후 교회쇄신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해방된 조국에서 자유주의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는 신학적 동기에서 설립되었다. 고려신학교의 설립자인 한상동목사와 주남선목사는 자유주의 신학을 3가지 점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로 현실 타협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 시대의 조류나 대중 이데올로기에 영합한다고 보았다. 둘째로는 신앙고백적 투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즉 일제하에서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은 이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거나 투쟁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셋째로는 불신앙의 신학이라고 보았다. 이 점은 고려신학교를 설립할 때 한 학생이 신학교 개교일에 낭독한 입학식사(入學式辭)에서 분명히 밝혀져 있다.<sup>31)</sup>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 때문에 한국교회를 자유주의자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이러한 신념으로 1946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역사인식으로 고려신학교는 이념적으로 옛 평양신학교를 계승한다고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sup>32)</sup>

고신은 1969년 제 19회 총회 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와 대요리문답을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였다.<sup>33)</sup> 그러나 처음에 채택한(1969년) 것은 17세기 당시에 작성한 신앙고백을 비교적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그 뒤 1975년 9월 제25차 총회에서 합동과 달리 34장, 35장을 원래의 고백서에다 첨가를 시켰다. 오병세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 신앙 고백이 개혁주의 신학의 성숙한 표현이지만, 18, 19세기의 선교운동과 아울러 새로운 강조점이 신앙고백에 삽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미국판에는 제34장「성령에 관하여」라는 장과 제 35장에 「하나

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라는 장이 첨가되어 총 35장이 되었다.<sup>34)</sup> 라고 그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고신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를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고신측은 우리와 달리 제34장「성령에 관하여」라는 장과 제 35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라는 장이 첨가되어 총 35장이 되었다. 두 장이 첨가된 것을 제외하면 두 교단의 신도개요는 각 교단의 해석자에 따라 단어의 배열의 차이가 나며 그 뜻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고신측과 합동교단의 헌법책의 배열상 위치가 다르게 실려져 있다. 고신측은 신앙고백이 제일 앞에 12신조가 제일 뒤에 편재되어 있는 반면에, 합동 교단은 12신조가 제일 앞에 있고, 신도개요가 제일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3. 기장의 신앙고백

1948년 제 34차 총회에서 당시의 총회 직영신학교였던 조선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 흐름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즉 보수주의 학자들을 증원하여 자유주의 교수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그들을 감독하기 위한 조선신학교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은 조선신학교 측의 맹렬한 반대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정통 보수신학을 지지하던 교단지도자들은 1948년에 조선신학교의 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책으로 창동 장로교회에 모여 서울에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 때 설립된 신학교가 바로 장로회신학교이다. 박형룡 박사를 교장으로 세운 장로회 신학교는 제 35차 총회에서 별 어려움 없이 인준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세 개의 신학교가 장로교 안에 설립 존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총회는 세 개의 신학교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세 개의 신학교를 중심으로 장로교가 세 개로 분열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다음의 글은 제35차 총회의 분위기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1949년 4월에 열린 제 35차 총회는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몇 개의 날카로운 문제들에 직면했다: 이미 세 조각난 경상남도 노회; 전혀 교과과정을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자유주의 지향 신학교; 총회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보수주의 독립신학교; 이제 자신들의 신학교에 의해 대표되는 각각 교회 개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주창하고 나선 교단 내의 세 집단.<sup>35)</sup>

이때로부터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고신 측과의 분열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교회는 또 하나의 분열의 진통을 겪게 되었다. 기장 측의 분립이 그것이었다. 고신 측과의 분열이신학적인 문제와 행정적 및 정치적인 이유가 뒤얽힌 복잡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기독교장로회와의 분열은 단순하고도 명백한 신학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기독교장로회의 신조는 역사적 산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장로회의 신조를 만들었던 역사를 살펴보면 신조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먼저 기독교장로회의 헌법개정 약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개정 약사 중에서 신조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sup>36)</sup>

#### 1967년 9월

신조연구위원회 조직 (위원장 김재준, 연구위원 김정준, 서남동, 전경연, 조향록, 이장식, 박봉량). 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한데 묶어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을 출간함.

#### 1972년(제57회총회)

신조연구위원회(위원장 김재준)가 제의한 신앙고백서(안)을 받아,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앙고백선언서로 채택 공포기로 기립 박수 가결함.

#### 1977년(제62회 총회)

제57회 총회에서 가결된 신앙고백선언서를 교회 헌법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고, 제38회 호헌총회 선언서를 헌법에 삽입키로 가결하여 노회에 수의한바 전 노회 찬성으로 다음 제63회 총회에서 가결 선포함 (표결 : 전노회 가결, 투표수 : 가 616, 부 66, 기권1).

#### 1980년(제65회 총회)

신앙요리문답, 권징조례, 예배모범 개정안이 노회 수의결과, 전 노회 찬성 가결 선포됨. 이 개정안의 내용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내용개요

##### 1) 예배모범

- (1)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기본정신은 그대로 계승하되 그 구조와 사상은 현대 상황에 맞게 재편함.
- (2) 세계개혁교회의 여러 예배모범과 최근의 학문적 성과를 참조, 포함시킴.
- (3) 헌금에 대한 모범을 추가시킴.

##### 2) 신앙요리문답

- (1)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등을 해설한다.
- (2) 칼빈의 장로교적 전통을 살린다.
- (3) 현대적 감각에 호소력있는 질문으로 바꾸어 해

설한다.

(4) 주기도문, 십계명은 거의 그대로 하고 사도신

경은 현대적으로 표현을 바꾼다.

(5) 우리 총회 신앙고백서에 모순되지 않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장의 1972년‘신앙고백서’  
작성의 주도자는 김재준씨였다. 따라서 기독교장로회  
의 신앙고백서에는 미주 2에서 제시된 김재준씨의 성  
경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953년 기독교장로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성경관의 문제였다.<sup>37)</sup>  
이와 같이 성경관의 문제는 기장 분리와 ‘신앙고백서’  
작성의 분명한 이유였다.<sup>38)</sup>

문제를 좀 더 살피기 위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역  
사편찬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신앙고백서’ 제정과정을  
살펴보자.

1972년에는 ‘신앙고백선언서’를 채택하였다. 기  
장이 하나의 본토민교회로서 자주적으로 신앙고백  
을 해야 한다는 요망에 응한 것이다. 개혁교회의 역  
사적 신앙고백, 이를테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고백을 이 시점에서  
시도하기 위하여 1967년에 위원회가 조직되어 다년  
간 연구하였던 것이다. 이 신앙고백은 개혁교회의 신  
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므로 켈빈신학의 한 해석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 성서, 창조, 인간의  
본질과 죄,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종말 등이 고  
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39)</sup>

위의 내용은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이유가 자주성  
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선언한다. 이에 관해서 김재준

과 박봉량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 장로교회는 최초의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  
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조로 삼아 왔다. 그것  
은 주는 대로 받는 것뿐이요 우리로서의 연구도 비판  
도 있는 것이 아니었다.<sup>40)</sup>

그러니까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개혁교  
회의 절대적인 신앙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  
수가 없다...역사적으로 피선교지역인 우리 장로교  
회가 미국의 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세울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  
교회인 미국 장로교회의 표준신앙고백(약간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대로 우리의 표준 신  
앙고백으로 받기로 동의하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  
이다.<sup>41)</sup>

위의 입장은 기독교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  
스터 신조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다. 부정적인 입장  
을 가지고 접근하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  
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배제한 것이 아니고’란  
말은 기독교장로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떠났음을  
은밀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는 아래의 글에 중첩되어  
밝혀지고 있다.

1953년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새로운 교단으로 출  
발한 이후 1972년 새로운 신앙고백서가 공포되기까  
지 20년 가까이, 기장은 한국장로교회의 옛 신조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기장은 항상 성서에 비추어 새로  
게 신앙고백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개혁교회의 정신

에 비추어 새 신앙고백선언서를 채택한 것이다. 기독  
교장로회는 본토민교회로서 자주적으로 신앙고백  
을 해야 한다는 요망에 부응하였다. 기장의 역사적  
신앙고백은 개혁교회의, 이를테면 웨스트민스터 신  
도게요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출범한 기독교  
장로회의 고백을 역사적 시점에서 새롭게 시도하기  
위한 것이었다.<sup>42)</sup>

기독교장로회는 신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장로교  
의 기본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에 대한 연구작  
업과 비판작업을 시작했다. 이전 것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야 새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글은  
‘신앙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선임된 사람들과 그들  
이 사전연구했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후 1967년 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교단의 신앙고  
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신조연구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장 김재준, 연구위원 김정준, 서남동, 전경연, 조향  
록, 이장식, 박봉량. 그 후 5년 만인 1972년 총회에서 신  
앙고백서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한국교회의 선교의 역  
사에서 최초로 한국교인의 손으로 신앙고백서가 작성  
되었다. 신앙고백서 작성경위는 1967년 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신조개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는  
1968년 〈신조에 관한 연구논문〉이라는 책자를 총회에  
제출했다. 그 주요내용은 〈신앙고백의 절박〉(박봉량),  
〈웨스트민스터신조〉의 역사적(이장식), 신학적(박봉  
량) 연구비판 그리고 〈한국선교의 정황과 신앙고백의  
요구〉(전경연)였다.<sup>43)</sup> 이런 연구에 더해 기독교장로회  
는 20세기에 작성된 신조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리고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969년 총회에는 〈현대저명 신조해설〉이라는 소  
책자가 출간되어 최근 제정된 세계 여러 교회의 신조  
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것들을 연구하였  
다. 그 연구대상이 된 신조들은 〈베델신앙고백서〉(번  
역(전경연), 〈바르멘선언〉연구(박봉량), 〈1967년의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신앙고백 해설〉(박봉량), 〈오  
토 베버의 신앙고백〉요약(전경연) 등이다. 1969년  
동 연구위원회가 연구한 결과 얻은 결론은, 신앙고백  
은 시대성, 지역성, 시간성 등의 여러 제한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300년 동안 장로교, 개혁교회들의  
표준신조로 사용해 온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오늘 한  
국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나 웨스  
트민스터의 대역사적 문서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그  
구조나 사상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  
로 기독교장로회는 오늘 우리시대의 신앙고백을 새  
롭게 작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970년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제1신앙고백서의 방향설정’이  
라는 신앙고백서 개요가 제출되었다. 그 내용 목차는  
1) 취지 2) 서론 3) 하나님 신앙 4) 창조와 세계 5) 인  
간의 죄 6) 그리스도와 속량 7) 성령과 삶 8) 교회와  
선교 9) 역사와 종말 등이다.

1971년 총회에 이상의 목차에 따라 〈신앙고백서  
안〉이 제출되었고, 이것을 기독교장로교회의 공동  
고백으로서의 성격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일년 간의  
검토와 성안된 것을 중심으로 각 지방노회에 출장하  
여 지역적인 독회를 열고 교회지도자들의 의견을 넓  
게 수렴하였다. 그 후 그 의견들을 반영 최종안을 작  
성, 1972년 제 57회 총회에 제출하였고, 그 안은 만장  
일치로 채택되어 동 교단의 신앙선언으로 공포하게  
되었다.<sup>44)</sup>



기독교장로회가 연구한 20세기의 신앙고백들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작성된 것으로 고백이라기보다는 선언서라고 부르기에 적합한 것이다. 기독교장로회가 이런 신앙고백들을 연구하고 이런 고백들을 모범적이라고 한 이유는 ‘그러므로 300년 동안 장로교, 개혁교회들의 표준신조로 사용해 온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오늘 한국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라는 논리를 확립하기 위함이다.<sup>45)</sup> 전경연은 웨스트민스터 신조 뿐 아니라 12신조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예수교 장로회 신조를 빌어다 읽어선 안 된다.”<sup>46)</sup>

이상으로, 기독교장로회가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경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장로회가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자 한 이유이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의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신조를 옛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자신들의 신학에 맞는 새로운 고백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앙고백은 시대의 선언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고백이며 온당한 진술이다. 따라서 성경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 가치를 발하며 진리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 만큼, 성경에 기반 한 신앙고백이라면 시대와 상관없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기독교장로회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신앙고백을 고집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에 적용될 때에야 말씀이 된다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4. 통합의 신앙고백

통합과의 분리는 W.C.C.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 입장의 차이였다.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2회 총

회록에 따르면,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위원장 한경직 목사, 서기 정규오 목사)의 보고서에 위원회의 입장을 말하되, “친선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과거에나 현재에도 참가하고 있으니 계속 참가하기로 하며, 단일 교회를 지향하는 운동에 대하여서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듬 해인 195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3회 총회는 “국제적인 교제와 사업에 관하여 우리 교회와 신앙 처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1959년 제4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W.C.C. 문제로 인하여 총회장이 정회를 선언한 후(9월 28일), 연동측이 총회정회 후 속회(11월 23일)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탈(9월29일 속회)하는 아픔이 있었고, 합동측은 정해진 날자에 총회를 속회(11월 23일)하여 “W.C.C.를 영구히 탈퇴하고, 소위 W.C.C.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박형룡 박사의 W.C.C.에 대한 입장은 통합측이 분리되기 1년 전 1958년 「신학지남」에 발표된다. 박 박사의 견해 표명과 더불어 장로교회는 W.C.C.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그룹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었고, 견해를 달리하는 두 그룹은 이후 서로 총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문제를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결국 1959년 9월 28일 대전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W.C.C. 문제로 양분된 두 파의 세력 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마침 경기노회의 총대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두고 격돌하게 되었다. 이에 당시 총회장이었던 노진현 목사는 증경총회장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숙의해 줄 것을 제의하고, 증경총회장들의 제의에 따라 11월 23일에 서울 승동교회에서 속회하기로 하고 정회하였다.

이후 총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회원들이 총회가

정회된 이튿날인 9월 29일 아침 대전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서울의 연동교회에서 전필순 목사의 사회로 단독 속회를 열었다. 이 모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44회 총회 결의대로 11월 23일에 서울 승동교회에서 총회속회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예정대로 정회된 총회가 11월 23일 승동교회에서 속회되었을 때 연동측 총대들은 참석하지 않고 소위 합동측 총대들만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 단독으로 속회했던 연동측 총대들은 이날 새문안교회에서 한경직 목사의 사회로 총회를 열었다. 이리하여 고신(1946년)과 기장(1953년)의 분열 후에, 다시 통합(1959년)이 분열하는 역사적인 아픔을 갖게 되었다. 1959년 총회 분열의 중심에 W.C.C.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분열의 조짐은 이미 193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중반에 감리교회에서 한국선교회년을 기념하여 『아빙돈 단권성경주석』을 번역하여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 주석에 장로교 목사 몇 명이 참가했는데 그중에 한경직 목사는 김재준 목사 등과 함께 주석출판에 관여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총회에서 조사를 명했을 때, 한경직 목사는 피의자의 자리에 서고, 박형룡 박사는 조사위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53년 기장이 분열하기 전, 한경직 목사는 조선신학교에서 김재준, 송창근 목사와 함께 교수하는 일에 동참했다. 한경직 목사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으나 진보적인 인사들과 계속 교제하고 협력해 왔으며, 1959년에는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찬동하고 통합측 분리를 주도한 인물이 되었다.

통합측 신앙고백서는 전체 6부로 나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48)</sup>

“1부 사도신경”이다. 1부에는 사도신경이 실려 있으나 새 번역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고백하던 사도신경과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2부 신조”로 되어 있다. 2부에는 12 신조가 수록되어 있다.

“3부 요리문답”이다. 3부에는 소요리문답 107문이 실려 있다.

“4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다. 4부에는 1647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33장외에 제34장과 제35장을 추가 수록하고 있다.

“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이다. 통합측에서 1986년에 제정한 신앙고백서를 담고 있으며, 서문 외에 전체 10장을 수록하고 있다.

“6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이다. 1997년에 작성되었으며,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예배용”은 짧은 고백서를 담고 있고, “II.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로 뒤에 “우리의 사명” 4개를 수록하고 있다. “III.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는 381년 범교회적공의회 제2차 회의에서 제정한 신조를 수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측의 1986년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986년에 발표된 통합측의 신앙고백서는 서문 외에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고백서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이다. 1986년 통합측 신앙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외적 특징은 그 내용의 전개 순서이다. 이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와 같이 “성경, 하나님,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순서대로 언급되지 않고,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인간”의 순서로 그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다. “성령”이라는 하나의 항목이 따로 있는 것도 이러한 전개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인데, 통합측 신앙고백서는 그 논리 전개가 성경이 말하는 “창조-타락-구속”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

1986년 통합측 신앙고백서는 제1장에서 “성경”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모두 7개 절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것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신앙고백서는 1장 1절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3절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바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1장 성경]

3.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서 거기에는 인간적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자가 지니고 있던 시대적이며, 문화적인 배경 등 인간적인 요소들을 그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으므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함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신적인 계시가 인간을 통하여 기록되었다는 것과 다른 의미이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 “안에”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 신앙고백서가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 다른 표현이다. 이 고백서는 이와 같이 성경 안에 “신적인 요소”와는 구별되는 “인간적 요소”가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비평(criticism)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오히려 비평을 해야 성경의 원래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49)</sup>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매우 낮은 것들이다.

우리는 이 고백서에서 성경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의 “성경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으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바르트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교회교의학』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성서는 따라서 그 자체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어난 계시가 아니니, 실로 교회 선포 그 자체가 그 자체 안에서 대망된 미래의 계시가 아닌 것과 같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또 우리가 듣게 되는 성서는 이미 일어난 계시를 증언한다. … 다시 말하거니와 성서 그 자체는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어난 계시가 아니며, 성서가 하나님

의 말씀으로 됨으로써 성서는 하나님의 일어난 계시를 증언하고 또 성서는 증언의 형태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어난 계시이다.<sup>50)</sup>

그는 계시는 ‘행동’인 반면, 성경은 ‘기록’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기에 계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인간의 말”이라고 여겼다.<sup>51)</sup> 즉 계시는 신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계시는 성경을 낳게 되고, 그러기에 계시는 성경보다 궁극적 우월성을 갖는 것이 된다. 성경과 계시를 구분하는 일관된 기독교적 사고는 칼 바르트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는 자신의 『교회교의학』 1권 하나님 말씀론, 『교회교의학』 2권 신론, 『교회교의학』 3권 창조론, 『교회교의학』 4권 화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되었던 구속론(종말론)<sup>52)</sup>을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일관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sup>53)</sup>

문제는 이러한 전개를 하게 되면 “창조-타락-구속”의 내용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화해론”으로서의 그리스도 사건이 전체의 중심이며, 이것에 모든 다른 것들이 모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 신학은 “기독교적인 보편주의”(Christologischer Universalismus)라고 불리게 된다.<sup>54)</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화해론적으로 이해하는 바르트의 신학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신앙고백서에 매우 잘 드러나고 있다.

### [제3장 예수 그리스도]

2.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다. 이 계시는 자연에 나타난 계시나(시 19:1-4, 롬 1:20), 구약성경의 예언적 계시(히 1:2) 이상이요, 모든 계시의 완성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므로 사람은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고(요 1:18, 14:9), 그가 보여 주신 이상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 그리스도교는 그와 같은 요소를 가지면서도 그 신앙의 근거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에 두는 계시종교이다.

3. …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드린 화목제물이었으며, 범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바르트의 신학을 파악한 이후에, 1986년 통합측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 그 전개 순서와 내용이 “기독교적인 보편주의”와 “화해론”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중 예정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이 부분을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부분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하여 고백해 나간다. 그러나 1986년 통합측 신앙고백서에서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심”에서 시작한다. 또한 이 고백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이나 “하나님의 유기하심”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의 다음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3.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선정하셨다.

6.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의 영원하여 지극히 자유로운 경영에 의해 그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어야 할 모든 방편들을 먼저 정하셨다. …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적 부름을 받지 못하고, 칭의, 양자, 성화, 구원 되지 못한다.

그러나 통합측 신앙고백서는 이와 같이 유기와 관련된 내용을 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내용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칼 바르트에게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점이다. 바르트는 기독교론의 두 본성을 예정론에 적용시킨다. 그는 여기에서 ‘선택’과 ‘유기’의 대칭 구조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고, 일원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그리스도만 선택과 유기를 당하시며,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유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예정론은 비록 스스로 보편예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보편예정을 암시하고 있다.<sup>55)</sup>

바르트는 이중 예정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선택 받았고, 다른 이들은 버림받았다고 이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버림을 위해’ 자신을 택하시고, ‘선택을 위해’ 인간을 택하셨기 때문이다.<sup>56)</sup> 이처럼 바르트는 하나님의 예정을 시간 이전

의 영원한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본다. 즉 영원 이전에 타락한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저주와 죽음, 그리고 지옥을 맛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르트의 예정론은 “타락전 예정론”(supralapsalismus)에 속하며, 철저히 기독교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중 예정론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시 일원론적인 것으로 수정하고 있다.<sup>57)</sup>

구원과 관련된 바르트의 인식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는 “창조-타락-구속”의 질서를 “타락-은총-창조”의 순서로 바꾸어 놓고 있다.<sup>58)</sup> 또한 더 나아가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만인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만인 화해론(Allversoehnungslehre)과 만인 구원론(Allerloesungslehre)를 구분한다.<sup>59)</sup> 그러나 바르트가 명시적으로 보편구원론을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은총의 선택론은 낙관주의적이며,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보편 구원론으로 추론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sup>60)</sup>

### 짧은 요약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장로교회 안에서도 신앙고백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합동측과 고신측은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와 대소요리문답을 그대로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수납하고 있다.

합동측의 경우는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을 미국의 보수장로교회들이 그러하듯이, 일부 수정 외에 그대로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받고 있으며,

고신측의 경우, 신도게요 전체 33장 외에, 제34장과 제35장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지만, 전체적

으로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을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 합동측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장측은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를 버리고, 새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고, 신학적으로도 바르트적이며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통합측의 경우는 12신조와 웨스트민스트 표준문서들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새 신앙고백서의 작성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새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따라 과거의 문서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표준이 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바르트 신학과 성경비평학을 수용하는 교단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장로교회 또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신학적 차이가 있음을 각 교단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단의 이러한 신앙고백의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고 교단의 신학교에서 양육되는 목사후보생들과 교단의 목회자들의 영적분위기 또는 실제 설교사역에 있어서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한편, 신앙고백서는 매우 큰 가치와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언제나 성경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유익이 되어야만 하고, 또한 옳지 않은 교리와 그것에 대한 실행에 반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61)</sup> 그러기에 신앙 고백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시대 속에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해 왔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

신앙고백에 대한 것을 언급함에 있어서, 지난 1967년 미국의 연합장로교회가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발표

하였을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때에 우리는 미국의 연합장로교회가 발표한 신앙고백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한국 장로교회를 세웠고,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신앙고백의 내용이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면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sup>62)</sup>

이렇듯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단이 모여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 낸다고 하여 그것으로 이상적인 신앙고백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다루었다고 해서 더 훌륭한 신앙고백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신앙고백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언제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성경의 내용이 더욱 건강하게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를 상실하게 된다면, 신앙고백서는 그 근본적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장로교회는 대체로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그리고 성경 대소요리문답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받고 있다. 헌법에는 목사 임직을 할 때 행하는 일곱 가지 서약 중에서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질문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느뇨?”<sup>63)</sup>

이렇듯 우리는 위에 언급한 것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우리가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해 내는 이들의 신앙고백서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자칫 우리를 수구적인 태도로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글을 통



하여 단지 수구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고백서의 값진 가치를 확인하고, 타산지석을 삼아 동일

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며,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전진을 위한 것이다.

## V. 결론

원래 한국장로교회는 초창기부터 보수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자라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한국장로교회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인데, 초창기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수주의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다. 특히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의 보수주의적인 성격은 설립자인 마포삼열 박사의 회년 기념 연설 가운데 “나는 사도 바울이 결심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는 말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보수주의 신학의 근저에는 성경의 무오를 철저하게 강조하는 성경관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초대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이눌서(Reynolds) 선교사는 “기독교가 성경을 버리거나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그 때부터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성경의 문자나 절구를 고친다든지 그 정신을 덮어놓는다든지 그 의미를 굽힌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정신을 그대로 발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복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1896년에 채택된 신학교육의 이념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원리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 신조를 철저히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 역시 철저한 보수주의 신학을 전수하는

것이었는데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 준다.

근래에 新神學[신신학]이니, 新福音[신복음]이니, 하는 말을 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삼가야 한다. 朝野[조야]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는다든지, 혹은 귀국한다든지 혹은 선교사업을 최소한도로 축소한다든지 할지라도 조선교회형제여 年前[연전]에 전파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자!<sup>64)</sup>

이렇게 그들은 이미 받은 보수신앙 고수를 외쳤던 것이다. 이러한 정통 보수주의 신학 위에 세워진 장로교회는 점차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은 초기 선교사들이 전수해 온 보수적인 성경관과는 상당히 다른 서구의 현대적 성경 해석이나 관점이 한국장로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김의환 교수는 한국의 장로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하게 된 경위를 (1) 잠복기, (2) 발아기, (3) 성장기 등 3단계로 설명한다: 첫째로 잠복기는 1934년에 있었던 「신학지남」 권두언 사건이 일어난 때까지를 말하며, 둘째로 발아기는 1934년에서 1940년까지 즉 조선신학원이 설립될 때까지를 의미하고, 셋째로 성장기는 조선신학원이 생긴 뒤에 조선신

학교 출신들이 한국 신학계에 진출한 이후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sup>65)</sup>

기장 측과의 분열이 신학적인 문제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것은 단연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분열의 원인을 그 근원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 보수주의 신학의 신학적인 갈등과 대립을 발생 초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학적인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 된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이다. 1930년대 이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두드러지게 내놓고 한국교회 앞에 자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학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다. 즉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신학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1920년 초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들이 1920년대 말부터 한국에 귀국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한국에 돌아와 세계 신학사조를 한국교회에 소개하면서 한국에는 소위 신학적 다양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에서 신학을 배우고 들어온 송창근, 채필근, 김재준과 같은 인물들은 진보적인 신학을 소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신학은 정통 보수적인 신학과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당시 이러한 신학적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은 평양 산정현 교회의 담임이었던 송창근 목사의 사임이었다. 강규찬 목사가 은퇴하고 그의 후임으로 들어온 송창근 목사의 신학이 기존 보수주의 신학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으니 그 교회의 장로였던 조만식 장로 등 보수적인 교우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결국 사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한국교회의 보수, 진보 간에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예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

다.<sup>66)</sup> 결국 기장 측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였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학적인 문제는 기장 총회 안에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지도자들 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분립하면서 선교사로부터 자립을 강조하던 기장측은 1955년에 캐나다 선교회와 협력관계를 수립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올해로 총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게 된다. 1910년 일제의 국권침탈로 나라 잃은 슬픔을 맛보았고, 다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이를 거부하여 폐교한 1938년까지 평양신학교는 칼빈주의 보수정통신학을 가르쳤고, 평양신학교가 폐교한 후 일제의 허락을 받아 설립된 조선신학교(1940년)의 신학적 노선에 반대하여, 고려신학교(1946년)가 독자 노선을 취한 것은 총회적인 아픔으로 남게 되었으나, 장로회신학교의 설립(1948년)으로 폐교 전 평양신학교의 신학전통을 이어가게 되었고, 다시 조선신학교와 장로회신학교가 해체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가 정식으로 총회직영신학교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조선신학교는 끝내 신학적 자유주의 노선을 고집하여 기장을 세우기에 이르렀다(1953년).

그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세계 교회 협의회(W.C.C.)에 대한 범 교단적인 입장의 차이로 말미암아 W.C.C.에 찬동하는 통합측이 분열(1959년)하는 아픔을 맛보았고, 이 분열로 합동측 교단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교세도 통합에 비해 매우 열악했고, 교회도 매우 미약하게 출발했다. 이후의 분열에서는 신학적, 교리적 문제보다는 오히려 행정적, 교권적 문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후학들에



게 남겨진 커다란 짐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런 중에도 다행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은 2005년에 그동안 26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구 개혁 측 가족들을 다시 맞아들여 하나가 되었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은 해외선교사 파송에 있어서도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만 천 교회가 넘는 교회를 가진 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박형룡 박사는 「신학지남」 1976년 가을호에 실린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장로교회의 출발에 대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청교도적인 영미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아출발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을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채용하여 수행함으로 한국에서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가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신학교와 교단 신학의 특징에 대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그것이다. 그것은 구주 대륙의 칼빈 개혁주의 신학에 영미의 청교도적 특징을 가미한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다.”라고 제시한다.<sup>67)</sup> 박형룡 박사는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신학이 교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여기에 청교도 장로교 신학을 덧붙여서 한국장

로교회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박형룡 박사가 자신의 저서 외에 주로 자신의 입장을 논문으로 발표한 「신학지남」(1975년)에는 “신학지남의 한국신학사적 의의”가 실려 있다. 박 박사는 이 논문에서 「신학지남」의 창간호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의 장로교회 신학사상의 역사적 과정을 개관한 후,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를 교리적 표준으로 신봉하는 한국 초대 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은 청교도적인 동시에 개혁주의적”이라고 제시하고, “이 성경적 보수주의 신학은 그 내용 성질에 있어서 칼빈 개혁주의 정통신학”이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sup>68)</sup>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선배들이 한 결 같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청교도 장로교 신학의 전통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목회를 지향해온 결과라고 생각 된다. 특히, 한국장로교회는 W.C.C. 이전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을 지켜온 신학과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후학들은 선배들이 섰던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청교도 장로교신학의 터 위에 서서 새 시대를 호흡하며, 미진한 부분들을 개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미주

- 1) Ned B.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54), 218.
- 2) Edwin H. Rian, The Presbyterian Conflict (Grand Rapids: Eerdmans, 1940), 64-65.
- 3)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to Visi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hiladelphia: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927), 72, held in the Machen Archives, the Montgomery Library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 4)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May 1927), 60-75; see particularly 68.
- 5)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May 1927), 74, “Appendix: The Historical Position of Princeton Seminary”; See also Rain, The Presbyterian Conflict, 67. 미합중국 장로교회 내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줄고,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 「신학지남」통권 제237호 (1993년 가을): 142-157을 참조하라.
- 6) Lefferts A. Loetscher, The Broadening Church: A Study of Theological Issues in the Presbyterian Church Since 1869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4), 137; see also G.A. Minutes, 1921, 41-42.
- 7) Loetscher, Broadening Church, 139. 찰스 브릭스 교수는 1875년부터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는 1891년 동 신학교 성경신학 교수 취임 연설(제목: 성경의 권위)에서, 성경연구에 있어서 6개의 장벽으로, 1)미신(성경숭배) 2)문자 영감 3)성경의 진정성 4)무오 5)이적 6)장래 예언 등을 지적했다. 그 결과, 그의 취임 연설은 그를 동정하던 많은 동료들까지 놀라게 하고 말았다. 마침내 그는 1893년 총회에 제소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 후 그는 개신교 성공회에서 재안수 받고, 유니온 신학교에 그대로 남아[당시 유니온 신학교는 1892년 미합중국 장로교회 총회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장로교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쳤다.
- 8) Loetscher, Broadening Church, 139.
- 9) Stonehouse, J. Gresham Machen, 373.
- 10)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168.
- 11) Bradley J. Longfield,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Fundamentalists, Modernists, and Moderates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40.
- 12) 파즈딕의 이 설교는 Christian Century (June 8, 1922)에 실려 있다.
- 13) See G.A. Minutes, 1923, 19; 또한 위의 인용에 대하여, Presbyterian Banner (May 24, 1923): 2, 26 및 (June 28, 1923): 19를 보라.
- 14) 오번 선언서의 원본에 대하여, see "An Affirmation," Published on January 9, 1924, the Machen Archives,

the Montgomery Library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see also The Presbyterian (January 17, 1924), 6-7; Edwin H. Rian, The Presbyterian Conflict, 291-297, Charles Quirk, "The 'Auburn' Affirmation: A Critical Narrative of the Document Designed to Safeguard the Unity and Liber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1967), 338-400.

- 15) G.A. Minutes, 1924, 196-199.
- 16) G.A. Minutes, 1925, 88; 1925년 15인 위원회 (the Peace Commission)의 논의에 대하여, Loetscher, Broadening Church, 125-136을 참조하라.
- 17) G.A. Minutes, 1927, 79.
- 18) G.A. Minutes, 1927, 87-134. 프린스톤 신학교 이사회의 제편성에 대하여, Stonehouse, J. Gresham Machen, 413ff.; Rian, Presbyterian Conflict, 60-87을 참조하라.
- 1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서회, 1989), 352.
- 20) Allen D. Clark,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객안전, 『한국교회사』, 심재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9.
- 21) 객안전, 『한국교회사』, 12-14.
- 2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개정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0), “서문,” 3; 또한,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128-9 페이지를 보라. 같은 해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록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성경요리문답 대소책자는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소요리문답 작은 책을 더욱 교회문답으로 삼느니라.” “대한예수교회 신경,”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록』 (1907), 24.
- 23) 객안전, “조선예수교장로회신경론,” 「신학지남」 제2권 제2호 (1919): 279-291. 특히, 283페이지를 보라. 본문 중에 우리말의 표현은 본문을 변경시킴이 없이 현대어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특히 표현이 현대어와는 다른 부분은 괄호 속에 현대어를 넣어 동시에 표기하였다.
- 24) 12신조 영어원문은, 황재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의 작성 및 수용과정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상」(2006년 9월호): 200-224페이지를 참조하라.
- 25) 줄고, “교회의 신앙고백으로서의 12신조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통권제295호(2008년 여름호): 265.
- 2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개정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1), 25.
- 2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21.
- 2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75, 178, 182.
- 29)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 연구에 대하여, 최성현,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 연구” (Ph.D. 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11)에 크게 힘입고 있다.
- 30) 고려 신학교의 설립 배경에 대하여,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부산: 고려신학대학원출판부, 1996)를 참조하라.



**박용규 교수**  
역사신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 100년의 회고와 전망” 논찬

주지하듯이 1912년 9월 총회가 조직되어 올해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총회 설립 이후 지난 100년의 한국장로교 신학사상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전망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100주년기념 신학정체성포럼은 지난 100년의 한국장로교의 신학적 전통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의미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여 김길성 교수님의 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 100년의 회고와 전망”을 논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글에는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과 입장이 반영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특별하지 않다면 발제자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발제하는 논문의 제목과 성격에 비추어 걸맞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제대로 글이 전개되고 있는지 인용한 사료는 정확한지 주장하는 논지는 설득력이 있게 기술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논평자가 관찰했음을 밝힙니다.

### I. 논문의 구성과 내용

김길성 교수님의 논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 100년의 회고와 전망”은 “I. 서론”, “II. 서구신학의 격변기에 복음전래”, “III.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적 배경”, “IV.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적 근거” 그리고 “V. 결론”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논문의 핵심 구성은 세부분으로 대별됩니다.

“서구신학의 격변기에 복음전래”에서는 임마누엘 칸트 이후 특별히 그의 영향을 받은 슐라이어마허부터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19세기 유럽의 신학조류를 개관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적 배경”에서는 프린스턴신학교의 설립, 프린스턴신학교 교수들 사이의 갈등, 해리 에머슨 파즈딕 논쟁, 오번선언서 사건, 그리고 1925년 이후 북장로교 내의 신학적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학적 근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신앙고백, 고신의 신앙고백, 기장의 신앙고백 그리고 통합의 신앙고백을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에서는 레이놀즈, 마포삼열, 박형룡을 인용하여 전통적인 성경관을 고수하고, 역사적 개

- 31) Chun Young Chang, Modern Daniels in Korea, 18. “우리는 이 학교에 장대한 건축술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며 화려한 장식법을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도 불사(不辭)한 순교자들의 정신을 선생님께로부터 배우며, 아울러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자 이 학교에 온 것이다. 모조록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하여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분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신다면 작은 움막이라도 만족하겠습니다.
- 32) 이상규, “고신교회(단)의 역사와 반성,” 『고신대학교 논문집』 제24집: 6.
- 3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신]), 5
- 34) 오병세, “고려파 신학의 정립문제,” 『순교정신 계승하자』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77), 36.
- 35)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331을 보라.
- 36) 인터넷자료([http://prok.org/prok\\_law/law\\_01\\_03.htm](http://prok.org/prok_law/law_01_03.htm)).
- 37)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288.
- 38) 한철하, “1967년 신앙 고백과 미국 연합 장로 교회의 신앙노선,” 『영미장로교회사』, 홍치모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8), 373-4. “신앙의 내용과 양상은 시대를 따라 변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변형주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1640년대의 영국 사람들의 신앙과 그 형체가 오늘날 20세기의 미국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대에는 그들에게 맞는 신앙고백을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이론은 같은 시대의 여러 지역과 문화권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는 우리 한국에 갔다 뒤집어 씌워 봐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모양으로 꼴불견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신앙고백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주의를 일컬어 ‘변형주의’라고 부른다...한 교회가 모든 신앙의 표준을 버리고 변하는 세대에 항상 영합하여 간다면 결국은 신앙의 내용은 하나하나 빠져버리고 남는 것은 인간 뿐이 아니겠는가!”
- 39) 한국기독교장로회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기독교10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1992), 450.
- 40) 김재준, “머리말,” 『신조에 관한 연구논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신조연구위원회 편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1962), 3.
- 41) 박봉량, “신앙고백의 본질,” 『신조에 관한 연구논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신조연구위원회 편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1962), 12.
- 42) 한국기독교장로회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기독교100년사』, 458.
- 43) 한국기독교장로회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기독교100년사』, 461.
- 44) 한국기독교장로회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기독교100년사』, 464-5.
- 45) 박봉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신학,” 『신조에 관한 연구논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신조연구위원회 편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1962), 33. “성령론과 신앙의 위치가 빈약한 데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웃’의 관계가 없다. 이것은 개혁교 전통에 비추어서 보아도 결정적인 약점이다.”
- 46) 진경연, “신앙고백의 교회,” 『신조에 관한 연구논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신조연구위원회 편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1962), 9.
- 47) 박용규, “1959년 합동 • 통합 분열 과정과 요인,” 『한국 장로교 분열 50년을 말하다』 (2009년 9월 1일자,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see also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451&section=sc4](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451&section=sc4)
- 48) <http://www.pck.or.kr/Pckinfo/law01.asp?Depth=48&volume=wp1vus#>를 참조하라.
- 49) 비평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George Eldon Ladd, The New Testament and Criticism; 원광연 역, “신약과 비평,” 『조지 래드 전집』, 2권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h Kar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 / 1 (Theologischer Verlag Zuerich, 1986).
- 51) Geoffrey W. Bromiley,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신옥수 역,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25.
- 52) John D. Godsey, Karl Barth’s Table Talk, 1962; 윤성범 역, 『칼 바르트와의 대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28.
- 53)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현대 독일 신학의 종교개혁 신학적 조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개정증보판), 82.
- 54)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83.
- 55) John D. Godsey, 『칼 바르트와의 대화』, 74-75.
- 56) Geoffrey W. Bromiley,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138.
- 57)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76.
- 58)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78.
- 59) 김명용, “칼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의 발전,” 『기독교 사상』 통권 398호 (1992년 2월호): 113.
- 60)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93.
- 61) Phili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1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7), 8.
- 62) 1967년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와 관련하여 『신학지남』 통권 제138호 (1967년 가을호)에는 여러 글들이 실리게 되었다. 김희보, “1967년 신앙고백과 우리의 입장”; 김의환, “1967년 신앙고백의 신학적 배경”; 박윤선, “1967년 신앙고백은 어떤 것인가?”; 신내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불변적 권위”; 간하배, “1967년 신앙고백에 있어서의 성경관” 등이 이것들이다.
- 6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0), 182.
- 64) 김양선, 『해방10년사』, 191; 또한 김의환, 『기독교회사』, 416-418을 보라.
- 65) 김의환, 『기독교회사』, 419.
- 66)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262.
- 67)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통권 제174호 (1976년 가을호): 8-10.
- 68) 박형룡, “신학지남의 한국신학사적 의의,” 『신학지남』 통권 제171호 (1975년 겨울호): 12-28.



혁주의, 정통칼빈주의, 청교도장로교신학을 계승하고자 제의합니다.

## II. 김길성교수의 논문 공헌

김길성 교수의 논문을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그의 논문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한국장로교 100년의 신학사상 연구에 공헌했습니다.

첫째, 한국장로교의 신학적 전통을 서구 기독교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 상에서 이해하고 한국장로교 신학전통과 외국 특별히 미국의 장로교 신학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장로교와 연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한국장로교 신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12신조와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을 자세히 분석하여 그 성격과 특징을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1960년대 이후 한국장로교의 각 주요 교단의 신앙고백을 제시하여 지금의 한국장로교 신학의 변천과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넷째, 한국장로교회, 특별히 합동교단이 나갈 방향이 박형룡이 제시한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 “칼빈 개혁주의 정통신학”임을 재확인한 일입니다. 주지하듯이 박형룡은 말년 1975년 신학지남에 “신학지남의 한국 신학사적 의의” 1976년에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기고하여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입장이 “청교도개혁주의신학”, “칼빈 개혁주의 정통신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III. 아쉬운 점과 보완점

1. 이 글은 1912년 총회 설립 이후 지난 100년의 한

국장로교 신학을 고찰하는 성격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1907년 독노회나 1912년 총회 태동과정에 대한 적어도 간단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성 교수님의 글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신학을 시작하면서 바로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신앙고백”(11쪽)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로마 가톨릭 신자가 ...선교활동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11-12쪽)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는 시점이고 그를 기념하여 100주년의 한국장로교신학 전통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 적어도 1907년 독노회부터 1912년 총회 설립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기술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훨씬 더 요구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논문구성과 내용이 논문 제목과 잘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문 제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 100년의 회고와 전망”인데 전체 논문의 상당부분(11/27쪽)이 유럽 미국북장로교의 신학적 변천과 신학논쟁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신학적 변천과 미국장로교의 신학적 변천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글을 개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장로교 총회 100년의 역사를 다루는 본 논고에서는 한국이라는 지평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지난 100년의 한국장로교 신학이 어떤 변천의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조명하는데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길성 교수님은 한국장로교 신학도 신조에 초점을 두어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하고 있어 지난 100년의 한국장로교 신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을 유럽신학변천과 미국 북장로교 내의 신학적 변천과 논쟁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

하였습니다.

김교수님이 다룬 부분은 소위 미국교회사에 서 근본주의대 현대주의 논쟁(Fundamentalism and Modernism Controversy)으로 알려진 논쟁에 초점을 두어 미국 북장로교 신학사상의 흐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장로교 신학의 배경으로 북장로교가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차라리 알렉산더-하지-워필드에 이르는 신학사상과 프린스톤의 구학파의 신학흐름의 사상적 흐름을 제대로 드러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 구 프린스톤의 신학사상의 흐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근본주의대 현대주의 논쟁은 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태동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배경으로는 적합한지 모르지만 한국장로교 태동의 배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신학변천을 맞는 시대 한국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장로교신학사상의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전개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부분을 여기에 할애하였고, 미국장로교를 다루면서도 미국 북장로교(그것도 근본주의대 현대주의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남장로교, 캐나다장로교, 호주장로교 신학전통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아 이들 전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생략되었습니다. 발제자가 서두와 결론에서 한국의 장로교가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장로교로부터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들 각 신학전통을 균형 있게 다루어 한국장로교의 신학배경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한국장로교 신학사상을 지나치게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국한시켜 다룬 나머지 풍요로운

한국장로교신학 사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김길성 교수님의 글에는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마포삼열 레이놀즈 같은 초기 장로교선교사들의 신학사상, 평양신학교 신학전통, 심지어 한국장로교를 대변하는 길선주는 물론 박형룡, 박윤선 목사 같은 신학자들의 신학사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4. 주지하듯이 한국장로교는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선교회를 통해 미국의 장로교 전통을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와 호주장로교를 통해 영국장로교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특별히 최초의 한국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화란 이민자들이 설립한 미국 RCA 교회와 그 교단 소속 New Brunswick Seminary를 졸업하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음을 고려할 때 한국에 미국의 장로교 전통과 화란개혁주의 유산이 한국장로교 형성에 적지 않게 공헌했습니다. 그런데도 김길성 교수의 글은 한국장로교 신학 배경으로 미국 장로교 그 중에서도 북장로신학전통에 집중하였습니다. 박형룡 박사를 통해 미국의 구프린스톤(구학파) 신학전통과 그가 저술한 조직신학이 루이스 벨코프의 조직신학을 골격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화란개혁주의 전통이 동시에 한국장로교에 계승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박윤선의 경우는 미국 구학파의 전통과 화란개혁주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한국장로교의 개혁신학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길성 교수님은 처음부터 한국장로교 신학을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있고, 해방 이후의 한국장로교신학전통을 다루면서도 기장, 통합, 고신 모두 신조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장로교 신학사상을 다루었습니다. 논문제목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 100년의 회고와 전망”인데 실



제로 글 내용에 있어서는 역사적 회고와 전망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데다 장로교 신학도 신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문 제목을 아예 “12신조와 각 교단의 신조를 통해 고찰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5. 글의 전개과정에서 역사적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글이 그렇듯이 결론에서는 서론과 본문에서 전개한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김 교수의 글은 시대적 연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직신학적 접근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만 제목이 “한국장로교 신학 100년 회고와 전망”이라면 적어도 지난 100년이라는 역사적 맥락은 고려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에서 1930년대 신학논쟁을 갑자기 다루고 있고, 결론에서 박형룡을 인용하고 있는데 정작 본문 내용에서는 박형룡의 글이나 사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형룡 박사가 주장한 내용을 자신의 결론으로 제시하려는 발제자의 의도는 이해가지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만약 박형룡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으로 제시하려면 적어도 내용에서 박형룡의 신학적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함축적이라도 기술했어야 했습니다. 1930년대 신학논쟁을 결론에서 다루고 있어 독자들은 결론이라기 보다 또 다른 내용의 전개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6. 우리 교단과 신학적 입장이 다른 기장, 통합 교단의 신학사상 그것도 신조를 통한 신학 비판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한 나머지 정작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신학적 전통이 어떻게 풍요롭게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

는지에 대해서는 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우리 한국장로교회는 너무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신학사상은 서구의 어떤 신학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실력 있고 정통개혁신학과 역사적 칼빈주의에 충실했던 인물들이었고, 이를 계승한 박형룡, 박윤선, 명신홍이 남겨준 신학유산도 한국장로교 신학을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니다. 지난 100년의 한국장로교의 풍요로운 장로교 신학사상의 전통과 유산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한국장로교 신학을 조직신학자 답게 인물별로 혹은 시대별로 핵심 이슈와 논점을 부각시켜 고찰했다면 지난 100년의 한국장로교 신학사상과 전통을 더욱 풍요롭게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7. 글의 중복이 많고 인용한 사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띕니다. “짧은 요약 위에서 ... 수용하게 되었다”(11쪽), “짧은 요약 ...전진을 위한 것이다”(24-25쪽)는 불필요한 중복입니다. 또한 김길성 교수는 객안전〈한국교회사〉를 인용하여 바질 홀이 1816년 “황해도 백령도 ... 충청도 홍천 금강 입구에 상륙하여 선물과 함께 성경책을 반포하였다”(12쪽)고 주장하는데 바질 홀이 1816년 성경을 건네준 것은 홍천 금강 입구가 아니라 비인만 마량진에서다. 선물은 건네지 않았고 영어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1959년 제 4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w.c.c. 문제로 인하여 총회장이 정회를 선언한 후(9월 28일) ..”(19쪽)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44회 대전 총회가 w.c.c. 문제가 최대 현안이었고 이로 인해 양파로 분열되어 있었

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총회장이었던 노진현 목사가 총회 정회를 선언한 직접적인 요인은 경기노회 총대문 제였습니다.

김길성 교수님의 전체적인 글이 유럽의 신학변천과 격변, 한국장로교신학의 배경으로 미국 북장로교 내의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에 집중하고 그리고 한국장로교 신학을 다루면서도 신조를 중심으로 다른 장로교단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둔 나머지 변증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보수주의 신학을 지켜가는 일 역시 개혁주의신학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도 이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박형룡 박사님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정통신학을 변호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지만 그의 신학은 시대적 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습니다. 1935년 그가 출간한 〈현대신학난제선평〉은 1930년대 한국교회에 대한 신학적 답변이었습니다. 우

리 장로교는 칼빈으로 돌아가 칼빈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사상을 이 시대에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칼빈의 신학을 정확무오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서 더욱 발전시켜 풍요로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 전통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김길성 교수님의 글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 다른 교단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값진 글입니다. 지난 100년의 한국장로교 신학을 정리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이 있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한 아쉬움들은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역사신학적 입장 차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논문의 지면상 위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한 글을 읽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신학정체성포럼

# 포럼2

현재진단 : 평가

---

발제 3 조직교회로서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장로교회의 성장과정과 그 특징 고찰 김성태 교수  
논찬 3 “조직교회로서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장로교회의 성장과정과 그 특징 고찰” 논찬 박희석 교수

발제 4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상규 교수  
논찬 4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 논찬 이상원 교수



김성태 교수  
선교신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I. 서론
- II. 1884년부터 1910년
- III. 1910년부터 1945년
- IV. 1945년부터 1980년
- V. 1980년부터 1995년
- VI. 1995년부터 현재
- VII. 결론

## 조직교회로서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장로교회의 성장과정과 그 특징 고찰

### I. 서론

한국장로교회가 조직교회로서 총회가 설립 된지 100년이 되는 해가 금년 2012년이다.<sup>1)</sup>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이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장로교회의 성장의 명암을 성찰하고, 지나 간 백년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현재 위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으며, 앞으로 한국장로교회는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지를 성찰하려 한다. 이 소논문은 장로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체 한국교회의 성장 양상을 살펴볼 것이며, 무엇보다 한국 최대의 장자교단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합동 교회를 중심으로 그 성장의 실체를 살펴 볼 것이다.

한국장로교회의 성장역사를 크게 연대기적으로 여섯 시기로 구분할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호레이스 언더우드와 최초의 장로교회 선교사로서 한국에 입성한 1884년부터 한국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1910년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1910년부터 1945년 해방되는 시기까지이다. 세 번째 시기는 해방 후의 교회분열과 북한

교회의 쇠퇴 및 박정희 정권시대의 역동적 교회성장시기로서 1945년부터 1980년도까지이다. 네 번째 시기는 1980년부터 1995년도까지의 한국교회 성장의 한계점 노출과 성장 적신호의 시기이다. 다섯 번째 시기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의 시기이다.

각 시기 안에 한국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의 성장요인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1959년 이후의 합동 장로교회의 성장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한국 최대의 장자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성장의 이면에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성장유형과 그 문제점을 제시하며, 무엇이 바람직한 한국교회의 성장 방향성이 되어야 할지를 모색하려 한다.

### II. 1884년부터 1910년: 한국장로교회의 초기정착과 역동적인 성장

영국의 에든버러에서 열린 1910년 세계선교대회는 당시 선교현지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교회로서 조선교회를 언급하고 있다. 그때만 해도 신자 수효가 20여 만이 된다는 것이다.<sup>2)</sup>

블레이 선교사는 개혁주의신학을 가진 장로교회의 목사답게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을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한국사회의 기존 가치관의 붕괴로 인한 아노미 현상이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3)</sup> 장로교회 선교사로서 험버트나 게일도 조선교회 성장요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경륜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유교나 불교의 가치관의 붕괴와 그에 따른 샤머니즘의 기승과 샤머니즘의 세계관에 최고신과 귀신 존재의 선 이해와 권선징악 등의 단순한 윤리관이 성경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에든버러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을 발표한 한국 주재 감리교 선교사인 와슨도 조선교회의 성장요인을 열거하였는데 관서 및 관

북 지역의 복음의 수용성계층 형성과 외세의 침입과 기존 가치관의 붕괴로 인한 한국사회의 아노미 현상 그리고 서구 근대교육 및 문화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개방성 등을 언급하였다.<sup>4)</sup>

이런 요인들 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한국 주재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선교정책이다. 언더우드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산동성 주재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존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을 공식적인 한국 선교정책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핵심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엽까지 개신교회의 선교정책으로 받아들여지던 삼자 토착교회원리 즉 자급, 자치, 자전의 토착교회 설립을 목표로 하면서, 한국교회의 구미 선교사들의 의존성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며 현지인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자생력과 배가성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한 것이다.<sup>5)</sup>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핵심은 원주민 교회지도자들과 교인들에 대한 철저한 성경공부의 강조였다. 네비우스는 성경의 지식 없이는 바른 선교방법이 나올 수 없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진정



한 자급, 자치, 자전의 토착교회가 설립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sup>6)</sup> 한국명이 콰안련인 찰스 클라크 선교사도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공부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네비우스는 철저한 성경공부의 바탕 위에서 광범위한 순회전도, 엄격한 치리, 모든 신자들에 의한 총체적인 전도 등을 주장하였다.<sup>7)</sup> 네비우스는 성경공부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교회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중요시 하였으며, 주로 농한기인 겨울이나 여름에 6주에서 많게는 2달 정도의 훈련기간을 주장하였다. 될 수 있으면 훈련받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본인이 지불하도록 하였는데,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습방법은 동양 문화권에서 익숙한 성경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 자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였으며, 성경암송을 권장하였다. 네비우스는 목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따로 신학학습반을 만들 것을 권장하였다.<sup>8)</sup>

백낙준은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통한 성경공부반이 한국장로교회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진술하고 있다. 지역교회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있어서 각 선교지부의 중앙교회에서 관할구역내의 지도자들을 주로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경회로 모이게 하여 훈련을 시켰다. 각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인접한 가까운 교회들을 모아서 연합으로 모이는 사경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여름에는 2주에서 3주 동안 조사나 주로 교회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경회를 개최하였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목회지도력을 키우기 위한 신학학습반으로 발전이 되었다. 또한 특별한 사경회가 봄철에 열렸는데 권서부인들을 위한 훈련과정이었으며, 이것은 여전도사의 직제와 훈련과정으로 한국교회의 특수

한 신학과정으로 발전이 되었다. 일반 교인들을 위한 사경회는 보통 한 주간 동안 열렸는데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숙식은 주로 자비량하였다. 순서일정을 살펴보면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여 찬송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침식사 후에 반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각 분반으로 나누어져서 오전 내내 성경공부를 한다. 오후 시간에는 각기 팀을 구성하여 교회 주변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전도를 하고, 저녁때는 대중 집회형태의 십자군 전도모임이나 대중강연회가 열리기도 하였다.<sup>9)</sup> 이렇듯이 사경회가 중심이 된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당시 한국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에게 호소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1890년도에 존 네비우스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한국장로교회의 선교정책으로 받아들이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호레이스 언더우드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의의를 선교를 통한 문화변혁 측면에서 또한 논하고 있다.

그는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첫째로 성도로 부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주거환경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스스로 주변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화 하라는 것이다.

둘째로 현지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는 전도방법과 교회구조를 지향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현지교회가 일꾼과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일한도 내에서 전도사역을 전담하기 위한 자격 있는 일꾼을 현지인 중에서 선발하라는 것이다.

넷째는 현지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교회건물을 짓게

하되 건축구조나 스타일이 현지문화나 토착인의 정서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0)</sup>

이렇듯이 언더우드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있어서 두 번째의 강조점인 선교변혁을 통한 문화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인의 문화 형태와 의미를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최대한도로 문화에 적응하여 한국인의 삶속에 뿌리를 내리는 한국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주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성들의 글로서 언문이라 부르며 천히 여기던 한글을 발굴해내어 성경을 번역하고, 어떤 계층도 배제하지 않고 각계각층에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또한 언더우드가 살펴보았듯이 선교사보다 현지 원주민 지도자들을 하루속히 배양하여 저들이 현지인들의 정서나 가치관, 사상, 관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달케 함으로 현지문화를 변혁시키는 일에 적절한 전도방법을 개발하도록 현지 지도자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한국선교사들은 이렇듯이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의거하여 한국인의 문화 속에서 당시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은 사랑방 전도방법이고, 오일장을 이용한 전도방법이었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의거하여 한국인의 문화에 민감하여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한국교회를 뿌리 내리려 하는 일에 있어서 새벽기도회나 통성기도가 장려되었고, 이것은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독특한 기독교문화정서로 토착화 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장로교회의 성장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1903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1907년도에 불을 지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의 대부흥이다. 블레어는 이것을 한국교회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

다.<sup>11)</sup> 한국장로교회를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네비우스 선교정책과 평양 대부흥운동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 것인가?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핵심은 성경공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거나 문화접변 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주의 토착화로 인하여 손상이 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급, 자치, 자전의 토착교회를 설립하는 일과 선교현지 문화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동적인 성경적 가치관의 변혁 즉 하나님 나라의 문화변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토착교회를 세우는 일과 문화변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성경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배우는 사경회에 가장 중점을 두었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선교현지 지도자들을 통해서 현지 문화의 문제점들을 분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의식을 가진 토착교회로서 성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부흥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파하며 순전하게 가르치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운동이 있을 때 성령은 말씀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대하는 자들 가운데서 중생적 변화 뿐 아니라 성화와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동시에 종종 하나님의 부흥운동으로 비상한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영적으로 도약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분명히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름진 옥토를 만들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의 단 비가 찾아온 것이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한국인의 삶 속에서의 문화변혁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기도 운동, 삼일 밤 기도운동, 철야기도회와 산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국교인들에게 주신 성경진리의 독특한 깨달음과 은사로서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적극 장려하였다. 이런 한국교인들의 특징을 내재하고 있는 기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바로 거기에 비상한 성령의 쏟아 부어주시는 것과 같은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각계각층에게 복음을 전하되 소외되고, 연약한 계층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였는데 복음의 전인성과 총체성이 성령의 비상한 나타남과 능력으로 부흥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 때 한국장로교회의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철저한 치리 강조이다. 교회와 세상과 별 개의 담을 쌓고 사는 이원론적 몽상주의 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 실행하는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배양하였다. 이렇듯이 신자들이 먼저 술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불신자들과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한 대접을 받으며, 그 만큼 교회와 성도들은 세

상 사람들이 볼 때 권위가 있는 신행일치의 사람이 된다. 바로 이런 풍토 속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며,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풍토가 형성이 되었으며 그만큼 복음은 권세 있게 증거 되어졌다.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의 회복이요, 사회의 불신자들에게 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신행일치의 능력 있는 복음전달이다.

백낙준 박사는 1907년도의 대부흥이 한국장로교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장에 다섯 가지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교회가 한국인의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즉 복음을 통한 성공적인 문화접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부흥으로 인하여 선교사의 교만이 무너지고, 선교사와 토착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진정한 상호 이해와 교류의 장이 열렸다는 것이다.

셋째는 선교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한국교인들의 영적 잠재성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는 이미 기존하고 있던 새벽기도, 삼일 밤 기도 집회, 철야기도, 산기도 등이 한국교회의 영적 습관으로 정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대부흥운동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사경회와 전도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2)</sup>

### Ⅲ. 1910년부터 1945년: 성장과 쇠퇴의 한국장로교회

1910년 조선왕조는 나라의 자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취했으며, 어떤 선교사들은 일본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유익이 되며 복음전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sup>13)</sup> 그러나 헐버트는 조선왕조의 국모를 살해하는 일본의 만행을 보고, 일본의 한국병합을 반대하며 미국의 도움을 구하는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1905년에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려고 시도하였다.

1910년 이후에 선교사들의 입장은 급격한 혁명적인 변혁보다 선교의 열매를 통한 장기적인 차원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헐버트나 모펏, 매쿰 같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선교사들도 혁명적인 변화보다 선교를 통한 궁극적인 변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였다. 당시 미북장로교회 극동지역 선교담당 총무였던 아더 브라운은 외세의 침입 속에서 시달리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자체가 혁명적인 원동력이 되어서 한국인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라를 부강케 하며 자유로운 국가가 되게 하리라는 선견자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대동아공영주의를 외치며 그 침략의 야욕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중에 일본의 통치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선교사의 존재와 선교활동이 일본의 식민정책에 방해가 될 것을 알아서 전국적인 규모로 교회에 통제를 가하며 핍박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선교사들은 일제의 핍박과 통제를 받으면서 한국장로교회를 성숙한 조직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더욱 활

발히 적용하였으며, 지도자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일반 사립학교와 대학들을 설립하고, 1920년도에는 평양 장로교신학교를 매년 2학기의 3년제 학제로 발전시켰다. 1912년 9월 1일 한국장로교회는 평양 여자성경학원에서 7개 노회로 구성된 첫 장로교 총회를 발족시켰다. 한국인 목사 96명과 장로 125명, 선교사 44명이 참석하였는데, 회장은 언더우드, 부회장은 길선주, 서기는 한석진, 회계는 블레어 선교사였다. 조직교회로서 장로교회는 급성장하여 1933년에는 7개 노회가 24개의 노회로 발전이 되었다. 또한 선교사들의 협력 속에서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장로교회 헌법을 제정하였고, 구미교회와 다른 한국 특유의 교회구조로서 권찰제도와 시찰회 등을 정착시키기도 하였다.<sup>15)</sup>

이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장로교회의 성장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장은 크게 뚜렷한 대칭선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1910년부터 1930년까지는 꾸준한 성장을 가져왔으나 1930년도 이후부터는 심한 침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역사적으로 연구한 로이 쉬어러는 1910년부터 1930년까지의 한국장로교회의 성장을 평균 200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다.<sup>16)</sup> 이 시기의 성장요인으로서 한국장로교회는 한국민족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성육신적 모습을 나타냈으며, 민족혼의 보루이었으며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구체적 실천과 열매로서 빠른 시일 내에 토착교회 지도력 형성과 조직교회를 탄생시켰으며, 선교사를 통해 이루어진 교육기관과 의료시설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19년 3월 1일의 독립운동에 33인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였는데 그 중에 15



인이 교회지도자였다. 이 당시 한국교회는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교인들이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하였으며, 선교사들은 목시적으로 한국교인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였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애국자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질 정도로 복음의 수용성을 가져왔으며, 한국장로교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sup>17)</sup> 또한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의 대부흥과 그로 말미암은 전국적인 규모의 사경회 개최와 기도운동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전도운동 등이 1910년도의 백만인 구령운동과 1919년의 진흥운동과 함께 연관되면서 한국장로교회의 역동적 성장을 가져왔다. 1914년 서울 선교본부의 보고서는 전도단을 선교사, 한국목사, 조사, 전도인 등으로 구성하여 낮에는 가가호호 방문, 노방전도, 전도지 배부를 실시하고, 밤에는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한 전도 집회를 통하여 교회성장에 큰 유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8)</sup>

1916년도의 안동선교기지 보고서는 1914년부터 조직된 전도단의 활동을 통해 선교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전도단 구성은 선천 및 각 선교부로 확산되었고, 한국장로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1909년 세 사람의 젊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몇 사람의 한국인들과 산에 올라가서 일주간 기도하였다. 그 중 한 사람인 스토크스(M. B. Stoke) 목사가 5만 명의 구령을 위한 기도부탁을 하며 지방순회전도여행을 떠났는데, 1909년 9월 남감리교 선교부는 “2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설정했다. 또한 초교파 성격의 복음주의선교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the Evangelical Missions)는 이것의 영향을 받아, 장로

교 선교사 리드(W. T. Reid)의 제창으로 “백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공식적으로 제정하였다.<sup>20)</sup> 특히 백만 명 구령운동에 한국장로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클라크 선교사는 이 운동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매로서 보며, 한국장로교회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1)</sup> 1910년 이전의 부흥사경회와 다른 점은 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도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가복음서 백만 권을 발간하여 그 중 70만권을 배부하는 등 전 성도를 전도로 동력 화 하였다. 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당시 교우들이 전도시간을 자발적으로 할당하였으며 기도시간을 배분하고, 노상이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성경이나 전도지 배부하는 시간을 할당했다. 1911년부터 1912년까지의 황해도 재령 선교기지 보고서를 보면 백만 명 구령운동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회를 강화하고, 전 교우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불신자들에게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sup>22)</sup> 1919년부터는 블레어 선교사가 중심이 된 한국장로교회 성장을 위한 진흥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진흥운동은 1년 기간은 각 교회적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개인전도에 힘쓰고, 2차 진흥운동 기간 동안은 사경회를 중심으로 부흥집회와 전도단을 통한 총력 전도에 힘쓰고, 3차 진흥기간은 양육과 훈련 측면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강화하는 기간이다.<sup>23)</sup> 전도를 목적으로 한 부흥사경회는 어느 특정 강사 중심의 진행이 아니라 전 교인을 기도로 준비시키며 개인 전도를 하게 하였다. 또한 두 번째 단계로서 그중 전도에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교인들을 선별해서 전도인으로 목사와

함께 전도단을 구성케 하여 전도사역을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밤에는 대중 집회로 부흥사경회를 개최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한 양육과 훈련을 위해 교회교육을 강화하였다. 오늘 날의 부흥 집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느 특정한 강사 중심의 카리스마틱한 분위기와 교인들을 일시적으로 흥분시키며 어떤 목적의 성취수단으로 이끌어 들이는 몰아적 분위기는 없는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전 교인의 기도준비와 개인전도 그리고 전도단을 구성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 있게 수행하는 전도와 저녁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사모하는 부흥 사경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교육의 강화를 통한 전 교인의 질적 수준향상과 전도의 동력화, 초신자를 철저히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우는 그러한 부흥 사경회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쉬어리에 의하면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는 심한 쇠퇴의 시기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의 막바지에 이르는 강도 높은 노골적인 핍박의 시기였다. 일제는 1925년 한반도에서의 신사참배의 총본산인 조선신궁을 서울에 건립하고, 1935년부터 미션스쿨에 신사참배를 강제로 강요하였다. 1936년부터는 교회기관에도 신사

참배를 강요하여 결국 최후까지 버티던 장로교회마저도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모인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홍택기 목사를 총회장으로 당선시킨 뒤, 그 다음날 홍택기 목사의 사회로 속회를 진행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9월 10일 그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는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비상시국 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날 총회에는 신사참배 반대론자인 주기철 목사 외에 많은 총대들을 조선총독부가 미리 옥에 가두어 참석하지 못하게 하면서 측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회 석상에서 신사참배 결의에 반발하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곧바로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가 각 지역 노회장들을 인솔의하여 평양신사를 참배하였다. 이렇듯이 1930년대 이후부터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분열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자 선교사들은 학교를 자발적으로 폐쇄하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교인들도 핍박 속에서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교육 및 의료선교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국교회 성장에 현상적인 통계표로 볼 때도 마이너스의 퇴보를 가져왔다.

## IV. 1945년부터 1980년: 교회분열과 북한교회의 쇠퇴 및 박정희 정권시기의 역동적 교회성장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에 순응한 교회 지도자들과 이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 간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신학적 입장의 차이로 인한 분열이

범 교회적으로 있었다. 1952년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이에 가담한 모든 목회자들의 공식적인 자숙을 요구하던 고려신학교 중심의 목사들이 ‘고려측’ 장로교



회라는 이름으로 장로교단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었고, 1953년에는 일제 말기에 그들의 정책에 순응하며 교회와 신학교를 유지하던 조선신학교측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장로교단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1959년에는 WCC가입문제가 쟁점화 되고, 이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다툼 가운데 장로교단의 3차의 분열이 있었다. WCC 가입을 찬성하는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이후 장로교회 '통합측'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박형룡 박사가 중심이 된 목사들과 교회들로서 '합동측'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WCC는 1954년 에반스톤 대회와 1961년 뉴델리 대회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좌경화 되었는데, 박형룡 박사를 중심으로 한 '합동측' 목사들은 이를 분별하고, 장로교회의 사도적 신학과 신앙을 유지하려는 순수한 신앙의 결단 가운데 홀로 외로운 길을 택한 것이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장로교회는 거의 WCC 가입을 허용하였고, 선교사가 세운 한국의 대다수의 미션스쿨과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성서공회 마저 WCC 가입을 허용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이후 합동측은 통합측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교세를 가지고, 외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열악한 재정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였다. 한국종교사회연구소가 출판한 “한국 종교연감”에 보면 1959년 통합측 장로교회 교세는 55만 여명이었고, 1961년 합동측 장로교회의 교세는 불과 28만 6천여 명이었다. 이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합동측 장로교회의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었고, 그 성장패턴은 1910년도와 1930년도 사이의 백만인 구령운동과 진흥운동의 양상과 비슷하였다. 한국장로교회는 3차의 분열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중에 50여 개가 넘는 분열이 있어왔

데, 초기의 분열과 다르게 주로 지방색을 중심으로 한 교권정치의 다툼 속에서 크고 작은 분열이 있어왔다.

북한 지역은 해방 이후에 진주한 구소련군대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국외파 공산주의자들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결국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이 세워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북한 교회는 새로운 수난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sup>24)</sup> 북한의 공산 정권은 1946년도에 북한5도 연합노회에 대항하여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을 결성하고, 그 위원장을 김일성의 외종조부가 되는 평양중앙교회 당회장 출신인 강량옥을 내세웠다. 강량옥이 중심이 된 조선기독교도연맹은 김일성 정권을 절대 지지하면서 신학교와 교파를 통합하고 이에 저항하는 목사들을 탄압하는 공산당의 전위기구로 활동하였다.<sup>25)</sup> 북한 교회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공산당의 핍박을 피하여 남쪽으로 피난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6)</sup>

미국 북장로교회는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종군 목사와 의사들을 통하여 북한지역 교회들의 형편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1948년 이후 핍박받는 북한교회가 많은 지도자들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모이기를 힘썼으며, 성령의 위로와 역사 가운데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숫자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sup>27)</sup> 한국 전쟁 기간 중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전쟁 이후에 대적인 교회 복구 운동이 있었고,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합심하여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규모의 교회 복구지원을 사경회 및 전도 운동과 병행하여 교회를 재건하였다.<sup>28)</sup> 이 기간 중에 밥 피

어슨 목사와 한경직 목사를 통하여 국제적인 기독교 NGO 기구로서 '선명회(World Vision)'가 창설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적인 복음전도자인 빌리 그래함이 내한하여 8만 명이 모이는 한국교회 최초의 대형 전도 집회가 서울에서 열리기도 하였다.<sup>29)</sup> 이를 계기로 한국 교회는 1955년 이후부터 각 교단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사경회 및 전도 운동을 벌였고, 구체적인 교회 성장 목표를 세웠으며, 교회 성장에 하나의 틀을 놓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장로교회는 이 시기에 5년 전도계획을 세웠는데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490개의 중소 도시 지역에 최소한 각기 하나씩의 교회를 세운다는 목표이다. 감리교회도 마찬가지로 웨슬레이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대적인 전도운동을 벌였다.<sup>30)</sup>

또한 선교사들은 농어촌 지역을 파고들어서 한국 교회와 연합하여 농업지도자 양성과 선진화 된 농산 기술을 가르치는 동시에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총체적 선교를 수행하였고,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은 농어촌 지역에서 농축산지도자훈련, 기술훈련, 가정 위생, 공중 보건, 청소년 교육 등 총체적인 개발 선교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1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농어촌 마을에 교회가 없을 때 반듯이 교회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역을 하였다. 그 결과로 1948년부터 1958년도까지 남장로교회 선교기지가 있는 전북 지역의 교회 성장률이 무려 3배나 증가하였다.<sup>31)</sup> 당시 북한 지역에서 사역하였던 많은 목회자들과 북한 교인들이 남한으로 이주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 교단 적으로 무지역 노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개척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결과적

으로 남한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이렇듯이 해방 이후의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인한 혼란과 그 결과로서의 좌익의 적화 야욕으로 인한 한국 전쟁이 있었고,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시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유엔의 참전을 통한 평화의 정착과 교회의 자복과 회개를 통한 대부흥과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는 대규모의 전도 운동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교회 성장을 통계로 살펴보면 1950년도의 3114개의 교회가 1960년도에 약 60.9퍼센트로 성장한 5011개의 교회로 증대되었고, 교인 수효는 50년도의 50만 정도에서 60년도의 70만 정도의 40퍼센트의 성장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1950년대의 2.5퍼센트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 비율이었다.<sup>32)</sup>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교회 재건운동과 더불어 대규모의 전도 운동을 벌렸는데 1965년도에 한경직 목사와 김활란 여사는 '삼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를 부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연속적인 전도 집회와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 이후의 전도운동 패턴과 비슷한데 지역적으로 목회자들이 먼저 모여 기도회 시간을 가지고, 각 지역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동원하여 기도 집회와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사경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주변 지역에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가가호호 방문전도를 하는 것이었다.<sup>33)</sup>

당시 도시화 현상 초기에 있어서 1961년도에 등장한 박정희 제3공화국 정부와 그들이 추진한 중공업 기간산업의 우선적 발전 계획과 사회 간접 시설의 건설과 대규모의 도시 개발은 농어촌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도시로 유입케 하였고, 산업 공단 지역으로 이주케 하면서 낮 설은 환경에서의 외로움과 별 다른 여가 문화

시설이 없는 당시 도시환경 속에서 교회의 이런 전도 방법은 도시로 새로 이주해 온 농어촌 출신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수용성을 형성하였고, 교회성장의 실질적 열매를 가져왔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이 시기에 각 교단의 교회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고,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교회 개척운동을 벌였다. 예를 들어 예장 합동교단에서는 1975년도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성령운동, 전도운동 등의 모토로 일만 교회 개척운동을 시작하였고, 각 노회와 시찰회 등을 총력 동원하여 특별전도 집회를 병행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교회 개척운동을 벌인 결과 당 해에 2,733개의 교회와 833,726명의 교인수효에서 5년 후인 1981년도에는 13.2퍼센트의 성장인 3,616개의 교회와 17.4퍼센트의 성장인 1,444,915명의 재적 교인들의 증가가 있었다.<sup>34)</sup> 이때부터 합동 장로교회는 교회나 교인 수효에 있어서 한국 최대의 개신교단 및 장로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칼뱅이 말한 바처럼 복음의 수용성이 형성된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전도의 문을 놓치지 않고, 전도와 교회성장의 기회로 총력 질주한 목회자와 교인들의 수고가 있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또한 한국교회 성장의 주목할 만한 요인은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전도 집회운동이다. 1955, 1956년도의 밥 피어스목사와 빌리 그래함의 대규모 전도 집회는 이후에 1973, 1974, 1977년도의 초대형 전도 집회로 연이어졌다. 특

히 1973년 이후의 십자군 전도운동 형태의 대규모 전도 집회는 당시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대표가 되는 교단적으로 합동측 장로교회에 속한 김준곤 목사의 지도력 하에서 이들 집회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준곤 목사는 대학생선교회의 세포조직인 순모임을 활성화하여 이것을 지역교회의 구역조직과 연결을 시켰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기본 구조 단위가 되어서 전도 및 새신자 양육과 훈련의 세포 조직이 되어 한국교회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를 하였다.<sup>35)</sup>

이 시기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성장 통계치는 1950년도의 3,114개의 교회가 1980년도에는 682퍼센트의 성장 비율인 21,243개의 교회가 되었고 교인 수효는 50만에서 약 6백만이 되는 1,200퍼센트의 고도성장을 낳았다. 그런데 이런 성장 이면에는 농어촌 인구의 급속한 쇠퇴와 그에 따른 농어촌 교회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다. 농어촌 교회는 청년 계층을 도시화 현상에 의하여 상실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운동으로 말미암아 농업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로 1980년도의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 교인들의 비례를 보면 대다수의 교회와 교인들이 도시로 몰려있음으로 전체 백분율의 30퍼센트도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화 현상에 따른 인구비율과 전체 경제 및 산업시설과 제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및 금융 시설의 분포도와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 V. 1980년부터 1995년: 한국교회 성장의 한계점 노출과 성장 적신호의 시기

1980년도 이후의 한국 경제는 박정희의 유신 정권이 몰락하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부 출신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급변하는 정치적 변화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한국인 일인당 GNP 통계지표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말기 시기인 1978년도에 1,117달러였고, 1980년도 중반부에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2,500달러가 넘었고, 1989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4,040달러였고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10,037달러였다.<sup>36)</sup> 한국 경제는 IMF 시기를 맞이하기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경제 성장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 한국 교회는 수많은 교파 교회로 분열되면서도 교회 수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1980년도의 21,243개의 교회가 1990년도에는 68.6퍼센트의 증가율인 35,819개로 늘어났고 1996년도에는 61.7퍼센트의 증가율인 58,046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교인 수효의 증가율을 보면 1980년도의 6백만 정도의 교인에서 1990년도의 8백만 정도의 교인 수효로 약 33퍼센트의 증가를 하였고, 1996년도 경에는 약 11퍼센트 정도의 9백만 교인 수효로 늘어났다. 합동측 장로교회는 1993년 78차 총회에서 그 동안 유명무실하였던 일만 교회 개척운동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교회와 교인 성장률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초반부에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의 계속적인 성장이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완만한 성장세 및 정체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1980년도부터 강남권과 서울 주변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강북에 있던 교회들이 강남이나 신도시로 이주하여 대형교회로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형태의 성장은 주로 강남권이나 신도시로 이주해 간 기존교인들의 유입으로 인한 전이성장(Transfer Growth)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미국에 유학하여 1980년대에 미국교회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었던 ‘교회성장운동’을 보고, 배우고 와서 이를 한국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평신도지도력개발과 소그룹교회조직을 통한 양육, 훈련, 재생산 그리고 지역교회 주변의 지역 및 인구조사를 통한 복음의 수용성계층과 효과적 전도방법의 개발 등은 강남권에서 신흥대형교회의 등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또한 특기할 만한 일은 이 시기에 오순절신학과 신앙을 가진 조용기 목사가 삼박자 오중구원의 변영신학을 가지고, 여의도순복음 교회를 세계적인 초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1970년대의 박대통령의 표어로서 ‘잘 살아보세’의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소위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 신학으로 뿌리를 내렸던 순복음 교회가 세계 최고의 개신교회로서 계속적인 성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한국교회는 이미 살펴보았지만 1990년도까지는 완만하지만 계속적인 성장이 있었다. 또한 강남권과 수도권 주변 신흥도시의 개발 등으로 강북에 있었던 기존교회가 이들 지역들로 교회를 옮겨와서 주로 전이성장을 통하여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저들의 회심을 통한 교회성장이 아니었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교회 교인들의 유입을 통한



성장이었기에 개 교회주의를 심화시켰다. 미국에서 영향을 미치었던 ‘교회성장운동’을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켜서 신흥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은 ‘교회성장운동’의 장점 뿐 아니라 위험한 신학사조 및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을 한국교회에 보급하므로 한국교회의 세속화 및 개 교회주의의 토양이 되었다. 또한 조

용기 목사의 삼박자 오중구원 순복음 신학이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기층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변형신학으로 끄집어내므로 신학적으로 위험한 교회성장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 VI. 1995년부터 현재의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의 시기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한국경제의 GNP가 만 달러를 넘어서는 1995년부터 1999년도까지의 한국 교회 교인의 성장 비율을 보면 정체된 수효일 뿐 아니라 마이너스 4정도의 감소를 가져왔고, 평균치를 환산해 보면 90년대 인구 증가율인 평균 8.2퍼센트의 성장에도 못 미치는 거의 제로의 성장 내지 마이너스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다.<sup>37)</sup>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은 그래도 90년도 중반부까지는 완만한 추세이지만 교회 및 교인들의 수효가 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성장하였으나, 1990년도 중반부터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일은 교회수효는 완만하지만 성장하고 있으나 그에 비례해서 교인들의 수효 증가는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마이너스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전체 한국 교회 중에 개척한지 5년 미만의 교회가 40퍼센트 정도라는 통계는 이들 교회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대개가 미자립 교회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한국 교회의 실제 성장이 속이 빈 강정과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38)</sup> 합동측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전체 장년 교인수효가 일백 명 미만의

지역교회가 거의 전체 교회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00년 말에 합동 교단의 교회 수는 6,626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위임 목사의 수효가 2,513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4,113개의 교회가 위임 목사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즉 자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는 말이다.<sup>39)</sup>

이렇듯이 한국교회의 교인 수효는 90년도 중반부부터 급속히 마이너스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에 비례해서 교회와 교역자 수효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병리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장 합동과 통합의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교세 통계표를 보면 합동의 경우 교회수의 증감률은 6,626에서 6,795로서 2.5퍼센트 증가했으나, 교인수효는 2,321,091에서 2,300,327로서 마이너스 0.8퍼센트이고, 그에 비례해서 교역자 수효는 21.3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이 통계를 보면 교인수효의 마이너스 감소율에 비례해서 교회와 교역자 수효가 계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통합측의 경우는 교회수효는 6,491에서 6,621로 2퍼센트 증가했으며, 교

인수효는 2,245,326에서 2,283,107로서 1.6퍼센트 증가했고, 교역자 수효는 3.9퍼센트 증가했다. 이 경우에도 편차가 심하지 않으나 교인수효에 비례해서 교회와 교역자 수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신학교를 졸업해도 기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과 개척교회를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거의 정체되거나 실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회는 단지 신학적 문제로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지역 간의 갈등 등이 누적되어 분열을 계속해 왔고, 이것은 수많은 신학교의 난립과 신학생들의 대량 양산으로 이어져 왔었다.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신학교육 기구는 60여개가 채 못 되는데, 신학교 수효는 2백 개가 훨씬 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현상은 교단간의 경쟁의식과 생존을 위한 신학교 졸업생들의 교회 개척으로 인하여 교회 수효는 계속해서 늘어왔으나 실제적인 교인 수효의 증가는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고, 오늘에 와서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개척을 했다가 3, 4년 이내에 사라지는 교회의 비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교회개척 수효가 1995년도에서부터 1998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불과 3개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의 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 성장이 거의 제로 내지 마이너스 감소 시대에 도달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미 구미 교회가 경험한 GNP 만 달러 이상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 교회에게 몰아닥치는 세속화와 물질주의와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정신의 영향이 한국 교회에 깊이 침투해 들어 왔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부실 신학교의 난립과 무자격 목회자의 대량 양산으로 인한 양적

성장 위주의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며, 목회자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여러 병리적 현상과 미자립 교회의 만발은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과거의 좋은 이미지를 상실케 하였고, 교회를 외면하는 돌 자갈밭의 토양으로 한국 사회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이 1998년도에 이루어진 한국 궤협의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의 조사에서 부분적이지만 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궤협이 한국에서의 종교 단체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부정적인 대답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많았으며, 비판적인 시야가 훨씬 더 많았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합동측 장로교회는 1993년도 78차 총회에서 일만 교회개척운동을 다시 재가동하여, 전국 노회를 중심으로 교회개척운동을 전개하였으나 2000년도와 2001년도의 통계를 보면 교인수효가 2,321,019에서 2,300,327로 마이너스 1퍼센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합동 장로교단은 이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1979년도에 분열되어진 장로교회 개혁교단을 2005년도 제90회 총회에서 영입하여 서로 통합함으로 교세가 크게 확장이 되었다. 2004년의 교인수효 2,398,331이 2,716,815로 약 11 퍼센트의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교회수효도 7,259에서 10,717로서 약 15 퍼센트의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합동 교단은 장로교회에 속한 군소교단 목사들을 영입하는데 문호를 개방하였고, 일정한 자격기준과 소정의 재훈련 과정을 통해 이들을 받아들여므로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교회분열이 신학적이유이기 보다 다른 비성경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에 합동과 개혁 교단이 통합될 때 과거에 대한 회개와 교단 통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동기는



칭찬할 만하며,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혹이라도 이 모든 과정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실용주의적 사고가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위험한 일이다.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교단 통합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종종 신학의 관용을 가져왔고, 목회자 자질이 평준화 되지 못하므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저하를 가져오므로 결국 교회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전체 개신교인들의 수효는 약 12,000,000으로서 전체 인구수효의 24 퍼센트이다. 그 중에 장로교회 교인들의 수효는 합동교단 2950000, 통합 2850000, 백석 870000, 고신 420000, 기장 330000, 대신 230000, 합신 120000 및 기타 십만 이하의 군소

교단 등을 합하면 약 8백만에 이르고, 이것은 한국교회 교인 전체 수효의 67 퍼센트를 점유하게 된다. 이중에 WCC를 반대하며 보수적인 정통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고수하는 장로교단의 교인 수효는 통합과 기장을 배제하면 군소교단까지 포함해서 대략 4,800,000으로서 전체 장로교회 교인들의 약 60 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에서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중요하다. 더욱이 한국 최대의 장로교단으로서 합동 장로교단은 보수적인 장로교단들을 결집하고, 교회협력과 연합을 도모하여 한국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변화시키며, 한국사회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칼뱅의 제네바교회처럼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 VII. 결론: 합동 장로교단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교회성장의 방향성

지나간 100년의 한국장로교회의 교회성장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초창기 한국장로교회의 역사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성공적인 적용과 성경적 토착화가 이루어지므로 자생력 있는 교회로서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그 핵심이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 자급, 자치, 자전의 토착교회를 설립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한국장로교회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민족과 고락을 같이 하는 성육신의 사역모형을 배웠고, 영혼 뿐 아니라 육

체의 필요도 채우는 또한 개인 뿐 아니라 구조적 변혁도 병행되는 전인 복음 즉 총체적 복음의 사역을 배웠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근대화 되는 과정에서 한국장로교회는 각계각층에 인재를 배출하였고, 한국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 왔다. 또한 대부흥 이후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부흥사경회 중심의 전도 집회와 1백만 구령운동과 진흥운동은 한국장로교회 특유의 성경중심적인 평신도 지도력개발과 기도운동 그리고 조직적인 전도운동을 한국교회 내에 구조화 시켰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빌리 그레함의 내한과 함께 이루어진 전국적인 규모의 십자군 전도 집회 형태의 전

도운동은 한국대학생선교회의 한국대표가 되는 김준곤 목사와 연결하여,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함께 도시화 운동이 일어났고, 농어촌에서 도시로 몰려오는 인구이동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을 병행하는 조직적인 교회성장운동을 벌이게 하였다. 합동 장로교단은 일반 교회개척운동을 지역 노회와 관련하여 특별전도 집회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 교세의 실질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이 패턴은 교회개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배제하면, 거의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부흥사경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전도운동과 비슷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이 가속화 되었는데, 초기의 분열원인은 신학적인 요인이었다. 여기서 구미의 종교사회학자들이 발견한 것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에도 나타났다. 즉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장로교단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전체 한국장로교회의 60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합동 장로교단의 교회성장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딘 켈리는 1970년대 말에 미국교회의 성장을 교단별로 조사하였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WCC 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는 교단의 교세가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신학을 표방하는 교단의 교세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것을 발견하였다.<sup>40)</sup>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결국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올무가 되어서 지역교회와 신학교를 황폐케 함으로 지역교회의 성장을 쇠퇴케 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1990년도 초에 미국교회 각 교단의 성장을 연구한 루젠과 하다웨이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sup>41)</sup> 198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는 전이

성장으로 인한 대형교회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성장운동'의 영향을 받은 미국 유학경험이 있는 목사들의 교회개척과 대형교회로의 성장이 있었다. 특히 교회성장운동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교회개척을 하여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로 하여금 초교파적으로 교회성장운동의 신학과 목회방법과 교회개척운동을 벌이게 하였다. 이것은 개혁주의 선교신학자인 헨드릭 크래머가 우려한 것처럼 얼어붙은 지역교회의 평신도 자원을 다시 한 번 개혁교회의 주요 원리인 만인사제직과 만인선지자직에 의거하여 일깨우고, 적극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불신자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총력 질주하는 교회기본구조로서 소그룹이나 가정교회 형태의 회중 구조를 만들고, 이를 교인들의 양육이나 훈련 그리고 재생산하는 전도 지향적 구조로 활용케 하는 건설적인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성장학자들의 신학이 다양하고, 대체적으로 실용주의적 경향이 강함으로 성경적 신학을 회색시키는 위험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썩 잡는 것이 매라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이 성경에 어긋나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혼합주의적 신학풍조이다. 또한 교회성장운동의 잘못된 신학사조가 한국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구도자의 예배, 열린 예배 등으로 성경적인 개혁주의 예배신학의 혼란을 가져왔고, 피터 와그너와 찰스 크라프트가 중심이 된 지역 악마 개념과 그에 따른 신흥 영지주의 경향을 나타내는 영적 전쟁 운동 등은 소위 신사도개혁운동이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한국교회에 구원론, 교회론, 마귀론, 선교론에 상당한 신학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1990년도 중반부를 맞이하여 GNP 1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이미 언급했지만 구미교회가 동일하게 경험한 교회성장의 전반적인 퇴보를 가져오고 있다. 합동 장로교단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반 교회개척운동을 벌였고, 동일한 신학적 정체성을 가진 분열된 교단을 다시 통합하는 시도를 하며, 군소교단의 목회자들을 적극 영입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위험성도 아울러 있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런 사회의 요구 뿐 아니라 초창기 한국장로교회가 보여 준 한국민족과 더불어 회로애락을 나누며, 저들을 전인 복음으로 섬기는 성육신적 사역모델을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한다. 개혁신학의 세계관인 신율적 선교변혁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한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한국장로교회의 위상을 합동 장로교단은 회복해야 한다. 신학이 좌경화 되면 교회성장은 멈출 뿐 아니라 교회는 쇠퇴하게 된다. 합동 장로교단은 지나간 믿음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순수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야 하고, 비성경적인 모든 사이비 신학사조와 자유주의 신학의 침투에 대하여 적극 경계해야 한다. 교단적 차원에서 목회자 수급

계획을 현실에 맞게 시급하게 세워야 한다. 막연하게 남북이 통일되면 목회자 수요가 부족하게 될 것이므로 아무런 계획 없이 목회자 수요를 늘려 나가는 정책은 무책임한 일이며, 목회자의 과잉생산과 그로인한 미자립 교회 혹은 교회 시무를 하지 못하는 많은 실업자 목사들을 배출하므로 교단 안에서도 목사들 간의 위화감과 한국사회에서 목사의 위상이 급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합동 장로교단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자교단으로서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를 결집시키는 구심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투명하고, 포용성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미래의 남북통일을 준비하여 북한 장로교회의 회복과 남한 땅에 정착한 북한 새터민들 가운데 북한교회 지도력을 양성하는 전략적인 투자와 선교정책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들 간에 기본 생활을 평준화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고, 교회개척을 개별 목사들에게 맡기는 그런 잘못된 회중교회 구조가 아니라, 장로교회 대의 민주적 구조답게 총회적 차원에서 노회를 중심으로 교회개척의 대상이 되는 각 지역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회개척 자원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주

- 1) 1912년 9월 2일 평양에서 7개 노회가 중심이 되어 최초의 ‘조선 야소교장로회총회’를 조직했는데 총회장은 언더우드 선교사(한국명 원두우)이고, 김선주 목사가 부총회장이며 서기는 한석진 목사이고, 회계는 블레어 선교사(한국명 방위량)이었다.
- 2) 모팻은 1910년도의 한국교인들의 총 수요를 20만으로 보고 있으며, 와슨은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의 5년 기간의 한국교회 교인 성장 수요를 79,221로 보고 있다. 이렇듯이 이 시기의 한국교회 성장 비율은 인구 성장비율의 평균 10배를 앞섰으며, 이것은 세계교회 앞에서 참으로 경이로운 성장이었다. See Samuel H. Moffett, The Christians of Korea(NY: Friendship Press, 1962, p.50, Alfred W. Wasson, Church Growth in Korea(NY: IMC, 1934), p. 53.
- 3) William Newton Blair, Gold in Korea(Topeka: H. M. Ives & Sons, Inc, 1957), pp. 11-12.
- 4) 와슨은 관서 및 관북 지역에서의 증인계층 형성과 이들이 당시 기독교계층 가운데서 밀려 있음으로 복음의 수용성이 있었고, 외래사조에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청나라와 러시아가 일본에 의해 패배한 것과 조선왕조의 지도층 가운데 갑신정변을 일으킬 정도로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요소들이 한국교회 성장에 좋은 토양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Wasson, op.cit., pp. 33-50.
- 5)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Seoul: CLS, 1971), pp. 112-121.
- 6) John L. Nevius,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Nutrey: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58), p. 10.
- 7) Charles Clark, The Korea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NY: Fleming H. Revell, 1930), pp. 26-27. cf. Nevius, op.cit., pp. 31-33.
- 8) Ibid., pp. 39-41, Clark, op.cit., p. 34.
- 9) Paik Lak-Geoon,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PyengYang: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pp. 314-317.
- 10)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8), pp. 109-110.
- 11) Blair, op.cit., pp. 66-74.
- 12) Paik Lak-Geoon, op.cit., pp. 383-396.
- 13) Gale은 전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일본에 의해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며, 1911년부터 1912년까지의 대구선교기지 사역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낙관적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John S. Gale, Korea in Transition(Nashville: South Smith S. Lamar, 1909), p. 116, “TaiGu Station, 1911-1912,” in 1912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PC USA, Seoul, 1912, p. 47.
- 14) Arthur J. Brown, Report of A Visitation of the Korea Mission(New York: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C in USA, 1901), p. 6.
- 15)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Seoul: Chose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1934), pp. 387-389.
- 16) Roy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Grand Rapids: Eerdmans, 1966), pp. 103-142.
- 17) Ibid., pp. 70-75, Martha Huntley, To Start A Work(Seou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87), pp. 495-551.
- 18) “Seoul Station 1914,” in 1914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 USA, Kobe, 1914, p. 90.
- 19) “Andong’s Promise and Fruition 1916,” in 1916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 USA, 1916, pp. 37-39.
- 20) Paik Lak-Geoon, op.cit., pp. 402-403.
- 21) Clark, op.cit., pp. 59-62.
- 22) “Chai Ryung station 1911-1912,” in 1912 Report of the Korea Mission, p. 73.
- 23) 이영현, 한국기독교사(서울: 컨콜디아사, 1985), p. 169.
- 24) 김일성은 그의 부모가 독실한 신자이었으나 그 자신은 신앙이 전혀 없었으며, 초기 그의 북조선 정권 창출의 시기에 교회가 협조를 하지 않은 관계로 교회에 대해서 등을 완전히 돌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교회 말살의 장본인이 되었다.
- 25) 그들은 회유와 꾀박 즉 당근과 채찍의 양면 작전을 썼는데, 조선기독교도연맹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을 이용한 이후에 한국 전쟁 기간 중에 황해도 신천서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를 살해하듯이 북조선에 공산국가를 어느 정도 정착시키자 종교말살정책을 펼쳤으며 교인들을 살육하기 시작하였다.
- 26)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 교회의 교인들이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북한 지하 교회의 뿌리가 되게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교인들이 남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See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35-1959, Vol. II (New York: UPC, 1964), pp. 209-212.
- 27) 당시 북장로교회의 조사는 북한에서 내려 온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평양만 하더라도 전 주민의 80퍼센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1945년부터 1950년도까지 북한에서 큰 부흥이 있었고, 비록 목자는 없더라도 교인들은 교회를 가득 메웠으며, 북한 교인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북한에 남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Ibid., pp. 100-103, 209-210.
- 28) 한국전쟁 이후에 파괴된 교회 복구와 피난민들의 구호를 위해 북장로교회 선교부는 1953년에 35만 달러를 사용하였고, 1955년에는 백만 달러를 계상하였다. 감리교 선교회는 1953년에 교회 재건비로 15만 달러를, 성결교 선교회는 30만 달러를 사용하였다. 동시에 당시 주한 선교부에 소속 된

- 선교사는 중군 목사로도 활약하였는데, 전쟁 포로인 인민군과 중공군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함으로 선교의 큰 결실이 있었다. Ibid., pp. 193-197.
- 29) Clark, op.cit., p. 250.
- 30) Kim YangSun, History of the Korean Churches in Ten Years since the Liberation(1945-1955), Seoul, 1956, p. 28.
- 31) Shearer, op.cit., p. 265.
- 32) 한국종교사회연구소의 한국종교연감을 참조하라.
- 33) Clark, op.cit., p. 317.
- 34) 이종윤·전호진·나일선, 교회성장론(서울:정음사, 1983), p. 266.
- 35) 김준곤, “한국의 총체적 전도운동,” 한국교회성장포럼, 노봉림·나일선 편(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pp. 25-26.
- 36) 정부기록보존소의 자료를 참조하라.
- 37)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도의 한국교회 교인 증감률이 마이너스 0.98이

- 고, 1995년도에는 마이너스 0.92로 나타나고 있다. 이 추세는 해를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
- 38) 미자립 교회에 대한 통계는 90년대 중반부터 교인 수효가 마이너스 감소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수효와 교역자 수효가 늘어난 것과 대비해 나온 통계로서 전체의 40퍼센트 정도가 미자립 교회에 속한다.
- 39) 황성철교수가 본 교단 산하 85개 노회의 전체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 수효를 상호 비교해 내 놓은 통계이다. 황성철, “목회자 수급의 문제점과 그 바람직한 해결방안,” 신학지남, Vol.68, No.4(겨울, 2001), pp. 231-235.
- 40) See Dean M. Kelly,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A Study in Sociology of Religion with a new Preface(Mo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77).
- 41) See David A. Roozen & C. Kirk Hadaway, Church and Denominational Growth(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박희석 목사  
총신대학교

## “조직교회로서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장로교회의 성장과정과 그 특징 고찰” 논찬

김성태교수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특징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그 시대마다 다른 성장과 특징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 1. 1884-1910년, 초기정착과 역동적인 성장으로 분류한다

김교수는 영국의 에든버러에서 열린 1910년 세계선교대회에서 당시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교회로서 선교역사가 20여년 이 지났을 뿐인데도 신자 수효가 20여만이나 되는 조선교회를 언급하였음을 소개하였다. 블레어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을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초기선교사들은 성경공부를 통해 자급, 자치, 자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적용하였다. 광안련 선교사도 네비우스는 철저한 성경공부의 바탕 위에서 광범위한 순회전도, 엄격한 치리, 모든 신자들에 의한 총체적인 전도 등을 하여 부흥하였다고 김교수는 평가한다.

### 2. 1910-1945년, 성장과 쇠퇴를 함께 경험한 기간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채택과 평양신학교 개교

를 통한 목회자 양성, 노회설립 등으로 교회 성장에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1930년까지는 꾸준한 성장을 하였다고 밝힌다. 쉬어러는 1910년부터 1930년까지의 한국장로교회의 성장을 평균 200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다. 김교수는 그 원인은 열정적 백만구령 전도, 학교설립, 병원개원, 독립운동 전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은데 있다고 분석하였다. 1930-1945년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포악한 박해 등으로 성장이 쇠퇴한다. 김성태교수는 제38회 장로회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였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신앙이 투철한 지도자들은 투옥, 망명 등으로 목회일선에서 후퇴함과 동시 비신앙적 친일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 3. 1945-1980년, 교회분열과 북한교회의 쇠퇴 및 박정희 정권시기의 역동적 교회성장기로 분류하였다

김성태교수는 해방과 더불어 장로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북한 교회는 김일성의 폭정에 지상교회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성도들은 지



하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 남한 교회는 일제강점기 동안 투옥 망명한 그룹이 신사참배에 순응한 그룹을 향해 회개와 자숙을 요구하는 고신측을 축출하므로 1952년 1차 분열을 겪었다. 2차 분열은 일제 말기에 그들의 정책에 순응하며 교회와 신학교를 유지하던 조선신학교측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장로교단에서 1953년에 이탈 되었다. 1959년에는 WCC 가입문제가 쟁점화 되고, 이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다툼 가운데 장로교단의 3차의 분열이 있었다. WCC 가입을 찬성하는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이후 장로교회 ‘통합측’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박형룡 박사가 중심이 된 교회들로서 ‘합동측’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1959년 통합측 장로교회 교세는 55만 여명이었고, 1961년 합동측 장로교회의 교세는 불과 28만 6천여 명이였다. 본 교단은 1975년도에 성령운동, 전도운동 등의 모토로 일만 교회 개척운동을 시작한 결과 당 해에 2,733개의 교회와 833,726명의 교인수효에서 5년 후인 1981년도에는 13.2퍼센트의 성장인 3,616개의 교회와 17.4퍼센트의 성장인 1,444,915명의 재적 교인들의 증가가 있었다. 이때부터 합동 장로교회는 교회나 교인 수효에 있어서 한국 최대의 개신교단 및 장로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의 성장 통계치는 1950년도의 3,114개의 교회가 1980년도에는 682퍼센트가 성장한 21,243개의 교회로, 교인 수효는 50만에서 약 6백만이 되는 1,200퍼센트의 고도성장을 하였다.

#### 4. 1980-1995년, 한국교회 성장의 한계점 노출과 성장 적신호의 시기로 정하였다

80년도 이후의 한국 경제는 박정희의 유신 정권이 몰락하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부 출신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급변하는 정치적 변화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80년도부터 강남권과 서울 주변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강북에 있던 교회들이 강남이나 신도시로 이주하여 기존교인들의 유입으로 인한 대형교회로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평신도지도력개발과 소그룹교회조직을 통한 양육, 훈련, 재생산 그리고 지역교회 주변의 지역 및 인구조사를 통한 복음의 수용성계층과 효과적 전도방법의 개발 등은 강남권에서 신흥대형교회의 등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김교수는 경제부흥과 함께 도시화 현상으로 신흥 대교회가 출현하였다고 진단한다.

#### 5. 1995년부터 현재,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의 시기

김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성장의 한계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의 GNP가 만 달러를 넘어서는 1995-1999년도까지의 한국 교회 교인의 성장은 90년대 인구 증가율인 평균 8.2퍼센트의 성장에도 못 미치는 거의 제로의 성장 내지 마이너스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다. 합동측만 보아도 전체 장년 교인수효가 일백 명 미만의 지역교회가 70퍼센트 정도였다. 2000년 말에 합동 교단의 교회 수는 6,626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위임 목사의 수효가 2,513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4,113개의 교회가 위임 목

사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즉 자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는 말이다. 이렇듯이 한국교회의 교인 수효는 90년도 중반부부터 급속히 마이너스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에 비례해서 교회와 교역자 수효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병리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합동의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교세 통계표를 보면 합동의 경우 교회수의 증감률은 6,626에서 6,795로서 2.5퍼센트 증가했으나, 교인수효는 2,321,091에서 2,300,327로서 마이너스 0.8퍼센트이고, 그에 비례해서 교역자 수효는 21.3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이 통계를 보면 교인수효의 마이너스 감소율에 비례해서 교회와 교역자 수효가 계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수많은 부실 신학교의 난립과 무자격 목회자의 대량 양산으로 인한 양적 성장 위주의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며, 목회자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여러 병리적 현상과 미자립 교회의 만발은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과거의 좋은 이미지를 상실케 하였고, 교회를 외면하는 돌자갈밭의 토양으로 한국 사회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동 장로교단은 이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1979년도에 분열되어진 장로교회 개혁교단을 2005년도 제90회 총회에서 영입하여 서로 통합함으로써 교세가 크게 확장이 되었다. 2004년의 교인수효 2,398,331이 2,716,815로 약 11 퍼센트의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교회수효도 7,259에서 10,717로서 약 15 퍼센트의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합동 교단은 장로교회에 속한 군소교단 목사들을 영입하는데 문호를 개방하였고, 일정한 자격기준과 소정의 재훈련 과정을 통해 이들을 받아들이므로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교회

분열이 신학적 이유이기 보다 다른 비성경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에 합동과 개혁 교단이 통합될 때 과거에 대한 회개와 교단 통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동기는 칭찬할 만하며,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일이다.

#### 6. 결론

김성태 교수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쇠퇴한 원인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잘 분석하였다. 교회부흥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각 시대마다 교회지도자들의 헌신과 상황에 맞는 목회와 전도전략으로 부흥을 이끌었다고 적절한 평가한다. 성장의 쇠퇴 원인은 무자격 신학교가 남발하여 목회자 교육의 질이 저하된 것이 원이라는 평가를 한다. 김교수가 원인으로 생각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부분적 원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합동측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된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 부분적으로는 목회자의 영적, 인격, 신학적 실력 등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으나 과거에 비해 이 시대의 전도 토양이 너무 황폐하고 나쁘게 변질 되었다. 현대인으로서 예외 없이 항상 듣고 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반기독교적인 대중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앙고백을 한 성도들까지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대의 문화적 토양이 악화된 것과 이러한 문화적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쉽다.



이상규 교수  
고신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회의 이해
- III. 사회적 책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IV. 교회의 사회적 책임
- V. 나가는 말

##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

### I. 들어가는 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신학정체성 포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과분한 영예로 생각한다. 필자에게 주어진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음의 몇 가지 순서로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교회의 사명은 일반적으로 예배, 증거, 교육, 봉사 등으로 설명하는데, 봉사의 개념은 하나님 사랑의 외적 실천으로서의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혁교회 전통에서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항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중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 곧 전도의 사명과 문화적(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이 점을 아브라함 카이퍼, 끌라스 스킨더, 제이콥 다우마, 폴 마샬, 그리고 로잔 언약의 경우를 비교하여 전도명령과 문화명령, 이 양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3항에서는 이를 토대로 오늘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구체

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견을 기술하였다. 이 글이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

하지만 개혁교회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범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고려하였다.

## II.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회의 이해

### 1) 교회의 사명과 사회적 관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과제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상호결연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흔히 4가지로 설명되어 왔다. 그것이 예배, 증거(전도, 선교), 교육, 봉사였다.<sup>1)</sup>

예배(라트레이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서, 예배에서 말씀의 선포(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헌신과 봉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증거(마르투리아), 곧 복음 증거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대한 응답이다(행1:8). 증거의 사명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자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이었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포였다.<sup>2)</sup>

교육(파이데이아) 또한 교회가 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으로 간주되어 왔다. 설교라는 것은 교회가 초기부터 시행해 온 일종의 신앙교육의 수단이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강조했고,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엡4:13-15). 개혁교회 전통에서 생산된 신앙고백서(Confessions)나 교리문답서(Catechism)은 바로 이런 교육적 목적에서 제정된 문서들이었다.

봉사(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은 이타적인 삶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궁핍한 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sup>3)</sup> 초대교회 또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헌신적이었다. 사랑과 배려, 배움과 나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었다(벧전2:12).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섬기는 생활이며, 이웃을 섬기는 봉사는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사명이다(막10:45). 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4가지 사명 완수를 위해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했고, 고난과 수난의 여정을 기꺼이 감내해 왔다. 교회가 비록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찌라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 완수를 위한 것이라면 고난과 박해만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절연된 고도(孤島)나 고립무원의 세계에 살지 않고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반틸(Conelius van Til)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



실도 중시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사회와 무관한 집단일 수 없고 이 사회에 대하여, 이 사회 성원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를 우리는 ‘문화적 사명’(cultural mandate)이라고 일컬어 왔다.

일반적으로 기독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 중 ‘봉사’의 사명을 일차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행, 섬김과 배움 등 형제와 이웃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말하자면 도덕의 증진, 의의 추구, 정의의 실현, 혹은 평화에의 도모도 봉사의 영역으로 간주한다.<sup>4)</sup>

물론 이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현존(現存)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세속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세상과 분리되어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 각기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양면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양극단의 길을 벗어나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표준을 가지고 살면서 이세상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문화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1951)에서 그리스도인과 이 사회(문화)와의 관계를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지만, 로버트 웨버(Robert Webber)는 이를 단순화하여 역사적 측면에서 3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sup>5)</sup> 곧, 이 사회구조에 참여하거나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분리모델(separational model),<sup>6)</sup> 기독교와 문화 간의 분리의 벽을 제거하고 세속 사회와 기독교 신앙 사이의 긴장을 인정하지 않는 동일시 모델

(identificational model),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적극적 자세로 문화 변혁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변혁모델(transformational model)이 그것이다.

## 2) 개혁교회 전통에서의 사회적 책임

개혁교회 전통에서 볼 때, 문화적 사명을 중시하는 변혁 모델이 보다 이상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Reformed tradition)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16세기 종교개혁, 특히 칼빈의 신학을 계승하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신학체계와 영미에서 발전된 장로교 전통을 통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sup>7)</sup> 개혁교회의 신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가장 중시되는 사상은 하나님 주권사상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자연과 역사의 주이시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 가운데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에의 추구 또한 개혁신학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성화적 삶의 궁극적 목표이다.

개혁교회는 인간의 죄와 무능력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개혁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인간의 무능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은 개혁교회 전통에서 면면히 이어온 중요한 특징이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중시되어 온 또 한 가지 사상은 문화변혁 사상이다. 개혁교회는 은둔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며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왔다. 이런 점에서 개혁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경시

하지 않았다.

실제로 초기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지 않았고, 이 점은 교회사 전통에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sup>8)</sup> 예컨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 사회로부터의 심리적 이민자들이었지만 일상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시혜자(施惠者)이 고자 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했다.

비록 그들이 로마제국의 압제 하에서 사회에 소외를 일으키고, 소동케 하는 반(反)사회적 집단으로 고통되어 비난받기도 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은 사회의 평안과 평화를 추구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던 백성들에게 말했던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렘29:7)는 가르침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삶의 양식으로 이해되었다. ‘공동의 유익’(public good, usui publico)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실행하고자 했던 일상생활의 양식을 결정했다. ‘그 도시의 유익을 구하라’는 기독교 전통의 사회관은 초기 로마-헬라 사회에서 잘 알려진 것이었다.<sup>9)</sup> 그리스어 폴리티아는 흔히 ‘정치학’(politics)으로 번역되지만 1세가 당시의 이 말의 의미는 현재의 의미보다 훨씬 포괄적이었다. 이 말은 ‘공공생활’(public life)로 번역될 수 있다. 그것은 집안에서의 사회적 생활과 반대되는 의미, 곧 한 사회의 공적 생활의 전부(the whole of life)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sup>10)</sup>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 삶으로부터 결코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런 사회적 삶을 통해 그 사회에 유익을 주고자 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었다.<sup>11)</sup>

이런 삶의 방식은 교회와 국가가 일체화 되는 중세 시대에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했다. 특히 국가권력과 국가권력에 대한 교회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어두운 흑암의 질곡에서 방황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이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개혁교회 전통에서 그러했다. 영방교회적 성격의 루터파교회의 경우 여전히 국가교회적 성격이 강했고, 국가, 국가권력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칼빈의 가르침(主意)을 따르는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해명하여 왔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인물이 존 브랏이었다. 존 브랏(John Bratt)은 칼빈과 그의 개혁운동이 가져온 5가지 공헌을 지적했는데,<sup>12)</sup> 성경에 대한 강조를 통해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확신했고, 성경만이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자 신앙과 삶의 표준임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장로교 정치제도’를 확립한 것도 칼빈의 공헌이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교회정치제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칼빈은 사도시대에 장로교적 교회정치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정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였다. 첫째는 국가권력과 관계에서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회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교회건설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당시 국가나 시의회 등 국가 기구는 교회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고, 교회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해야 했다.<sup>13)</sup>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정치제도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칼빈이 1541년 제네바에서 작성한 교회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은 이런 관심의 반영이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국가보다 우선하고 교회는 국가에 대한 지배권



을 갖는다는 황제-교황주의(Caesar-Papism)도 옳지 않지만, 국가가 교회보다 우선한다는 에라스티안주의(Erastianism)도 옳지 않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세속 지배를 정당화 했고, 성공회는 국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인정했다. 루터교는 국가의 교회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방(領邦)교회로 발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어떤 정치제도가 성경에 부합되는 제도인가에 대해 고심했다. 그는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국가가 교회문제를 간섭하거나 교회가 국가의 기능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교회와 국가 간의 바른 관계의 정립은 국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한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칼빈은 ‘교회의 개혁자’였으나 그의 개혁은 교회내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교회개혁의 이상은 사회개혁으로 외연 되었는데, 그것은 교회개혁의 자연스런 결과였다. 사회변화에 있어서 루터보다 칼빈의 기여가 컸다. 루터는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자로서 사회변화에 대해 역동적이지 못했다. 루터의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칼빈은 하나님 중심적(Theocentric)이었는데, 그의 신관은 인간관 사회관 등 신학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이 점에 대해 트릴취(Ernst Troeltsch, 1865-1923)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사회전체의 삶을 계획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과 일종의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 칼빈주의는 교회가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고, 루터교처럼 종교적인 요소와 비종교적인 요소를 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천주교처럼 몇몇 기관

을 세워 두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다.”

칼빈은 사회를 성속(聖俗) 이원론에 따라 분리하지 않았고, 사회와 그 제도를 불변의 절대적인 구조로 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모든 제도, 조직, 직업, 직위 등 질서를 설정하였으며, 이 모든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예속된 수종자(servants)로 표현된다.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회를 절대불변의 구조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사회는 타락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는 개혁될 수 있다는 점도 암시한다. 여기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칼빈은 제네바시를 성경에 부합하는 도시로 만들려는 성경적 정치(Biblocracy)에 대한 이상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치리와 질서를 강조하였다.<sup>14)</sup> 그가 주 1회 성찬식의 시행을 주장하고 권징을 강조했던 것은 도덕과 윤리적 삶을 고양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칼빈이 구빈원을 설치하고, 결혼법을 제정하는 등의 일은 기독교적 가치를 근거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했다. 몽테르는 “제네바 역사에 있어서 모든 길은 결국 칼빈에게로 통한다.”<sup>15)</sup>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칼빈의 개혁을 지적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존 브랏이 지적인 바처럼 칼빈은 도덕의 함양, 윤리적 생활을 통해 기독교적 삶을 강조했다. 참된 의와 경건은 칼빈이 추구한 목표였다.<sup>16)</sup>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청교도적 엄격성이나 율법주의적 준수를 이상으로 여

긴 것은 아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윤리적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경건한 삶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였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칼빈이 경건한 삶을 것처럼 강조했던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제네바의 사회상에 대한 반응이었다. 프레드 그레이엄(Fred Graham)은 “칼빈의 제네바는 그 시대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던 도시”라고 말했을 정도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sup>17)</sup> 암울한 중세 말기에 회자되던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Vita clerici est evangelium laice).”는 말은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교리적인 타락과 함께 성직자들의 윤리적인 부패였다. 루터파는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면서 도덕적 변화나 윤리적 삶을 정당하게 강조하지 못했다. 실제로 루터의 제자들, 특히 평신도 가운데서 윤리적이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sup>18)</sup> 대표적 인물이 루터의 후원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헤세의 필립(Philip of Hesse)이었다. 루터와 그의 동료 개혁자들은 그가 중혼(重婚)을 하도록 허용하여 방종한 삶을 살도록 묵인해 주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했다. 그는 엄격한 치리를 강조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것은 복음에 의한 사회개혁이었다. 이런 그의 원칙이 제2차 제네바 사역기 첫 10년간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 윌리엄 에스텝(William Estep)이 지적한 ‘고투의 첫 10년’은 엄격한 치리의 실행이 빚은 불가피한 인고였다.<sup>19)</sup>

사실 제네바에서의 개혁 추진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없지 않았고, 도덕적 상태는 심각했다. 존 브랏에 의하면 파렐은 공권력을 발휘해서라도 시민들의 도덕의

식을 고양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효과적이지 못했고, 개선의 징조가 보이지 않게 되어 칼빈의 제네바 정착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러한 상태를 타개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한다.<sup>20)</sup> 사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루터교 추종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도덕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 강조했다. 이것은 제네바 교회가 시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죄는 어떤 것에 대한 결핍이나, 은혜에 대한 반대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의 거룩한 뜻에 대한 반역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택함 받은 자로서 성령충만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책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에의 요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다.<sup>21)</sup> 그런 점에서 칼빈은 성화의 신학자였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the Evangelical Revival)에서도 강조되었다. 브레디(J. W. Bready)는 복음주의 신앙부흥운동이 “영국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일반 대중의 도덕성을 더욱 많이 변화시켜 놓았다”고 지적했다.<sup>22)</sup> 웨슬리나 헛필드 등이 복음전도자이자 사회 정의를 왜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신앙부흥운동은 사회개혁, 노예제도의 폐지, 감옥환경의 개선, 노동환경의 변화, 노동조합의 결성, 심지어는 유흥을 위한 동물학대의 폐지 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신앙운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그 다음 시대 복음주의 지도자들도 복음전파와 사회 활동에 동일한 정열을 쏟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랜빌 샤프(Granville Sharp), 토마스 클락슨(Thomas

Clarkson), 제임스 스테펀(James Stephen), 찰스 그랜드(Charles Grand), 토마스 베빙톤(Thomas Babington), 그리고 위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등이 다.<sup>23)</sup> 씨에라 리온의 자유노예 정착(1787), 노예매매

금지(1807), 노예 해방(1833) 등은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 동료들에 의해 이룩한 사회책임의 결실이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미국에서도 동일했다.

### Ⅲ. 사회적 책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초기 기독교에서 강조되었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혁신교 전통에서 중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한 몇 가지 견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1) 복음 전도와 사회 책임:

##### 전도명령과 문화명령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한 가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1:28)는 ‘문화명령’이고, 다른 한 가지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는 ‘전도명령’이다. 문제는 우리가 부여받은 이 두 가지 사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 동안 문화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한 관심을 표명하지 못했다. 보수적인 신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그것은 문화 명령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상황에서는 전도 명령 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명령은 종종 전도명령에 종속되는 부

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문화’(culture)란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삶과 행위의 총체적 결과(C. Dawson)라고 할 수 있는데, 광의로 보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문화적 사명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였다.

우리에게 부여된 ‘문화명령’(사회적 책임)과 ‘전도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양자는 상호 배치되는 독립된 두개의 명령인가, 아니면 어느 하나에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두 명령을 동일한 두 측면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것도 아니라면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우선하고 시급한 명령인가? 우리는 이 두 명령의 관계와 그 명령수행에 대한 이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화명령과 전도명령 중 어느 하나를 특별히 강조하는 입장, 둘째, 문화명령과 전도명령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 셋째, 문화명령과 전도명령을 동일한 것의 두 측면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여기서 먼저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 대해 검토한 후, 첫 번째 경우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아브라함 카이퍼, 플라스 스킬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두 가지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화란개혁신교회는 심각하게 논의한 바 있다. ‘문화론’은 19세기 화란 개혁신교회의 중요한 논점이기도 했고, 이것이 교회 분열의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이런 토론의 선구적 인물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1895년 9월 1일부터 1901년 7월 14일까지 신학 잡지 <드 헤라우트>(De Heraut)에 연재했는데, 후일 『일반은총』이란 제목의 3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sup>24)</sup>

이 글에서 카이퍼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 그의 문화관의 출발점이다. 카이퍼는 개혁신학자들이 주로 ‘특별 은총’에만 큰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일반은총’(De Gemeene Gratie)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문화적 사명을 주셨는데,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문화 명령을 무효화 시키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발전된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발전의 ‘씨’를 부여하였는데 이 씨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된 문화는 종말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소득’(blijvende winste)이 된다고 했다.<sup>25)</sup>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카이퍼의 문화관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문화 활동을 크게 고무하였다.

그런데 플라스 스킬더(Klaas Schilder)는 1947년 『그리스도와 문화』(Christus en cultuur)라는 책을 써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론(gemene gratie)을 비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문화적 사명을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카이퍼를 비판하였다. ‘은총’이란 ‘호의’(好意), 혹은 ‘허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데, 문화적 사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꼭 해야 하는(moeten) 사명이므로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스킬더는 카이퍼처럼 ‘일반은총’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일반사명’(gemene maudact), ‘일반명령’(gemene bevel) 혹은 ‘일반소명’(gemene roep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스킬더는 카이퍼의 문화관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아 사명감보다는 자기만족이 빠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sup>26)</sup> 특히 스킬더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오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 힘을 공급하는 곳이 교회라고 보았다. 즉 교회가 신자의 문화적 사명완수의 용광로(vuurhaard)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sup>27)</sup>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참된 문화 명령을 수행하도록 세상에 파송된 것이라고 하여 문화 명령 수행과 교회와의 관계를 분가분리의 관계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문화명령을 일반은총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특수은총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스킬더가 카이퍼와 다른 점이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카이퍼와 스킬더의 문화관은 후에 언급할 다우마(J. Douma)의 지적처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sup>28)</sup> 말하자면 카이퍼나 스킬더는 문화적 사명을 강조하여 이 일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이라 하여 꼭 전도지를 돌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전도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면 전도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었다. 즉 이들은 문화명령 속에 전도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기독교신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 이웃과 사회, 국가에 대한 문화적 사명 곧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사명이 성취된다는 입장이었다.

### 3) 제이콥 다우마

반면에 다우마(Jacob Douma)는 1966년의 『일반은총론』(Algemene Genade)이라는 박사논문에서 카이퍼와 스킬더의 입장을 비판하고, ‘문화와 나그네’(Cultuur Vreendelingschap)라는 항에서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다우마는 창세기 1장 28절을 특별한 사명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신 것을 누릴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문화는 ‘먹고 마실수 있는(누리는) 결과’(gevolg)라고 보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문화적 사명을 찾는 이들, 곧 카이퍼, 스킬더, 혹은 도이에베르트(H. Dooyeweerd)등을 반대한다. 도리어 그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도명령, 곧 복음전파에 두었다. 즉 그는 복음전파에 그리스도인의 생의 의미를 두고 있다. 다우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으며 문화세계를 정복하려는 이상은 수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우마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복음이 받아드려지는 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여정이라기 보다는 거주하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해한다.<sup>29)</sup>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 영역에 우선 순위를 둘 때 이런 노력은 도리어 신자가 이 세상문화에 정복당하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다우마는 스킬더와는 달리 전도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문화명령을 이루게 된다고 보아, 문화명령은 전도명령 속에 내포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별도의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사회적 책임을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이해한 것이다.

전도명령이 문화명령을 포함한다는 입장은, 신앙 혹은 신앙행위(신앙, 전도, 신앙적 삶 등)의 개념을 확대시켜 해석함으로써 문화 활동도 전도사명에 포함된다고 이해한다. 예를 들면, 신앙행위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신앙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이 행하는 모든 것, 신앙적 삶의 모든 행위가 곧 신앙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즉 신앙행위를 광의적 개념으로 봄으로써 문화를 신앙의 범주에 포함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전도명령 자체가 문화명령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때, ‘모든 것’이란 신 • 구약 성경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전도란 창세기 1장의 문화소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스킬더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낙원에 처해 있었던 상태를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음을 강조하여 문화적 사명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일반은총 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

반명령이고 원명령(原命令, Oermandaat)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다우마는 신자의 ‘나그네성’(性)을 강조하여 문화적 사명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문화적 사명 수행자로 묘사하지 않고 복음전파자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우마는 전도명령에 진력할 때 결과적으로 문화의 소산도 얻는다고 하였다. 다우마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곧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 4) 폴 마샬

문화명령과 전도명령의 관계에 관한 제3의 주장은 두 명령을 동일한 것의 두 측면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원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문화명령이나 전도명령은 대체적인 것으로 보아 양자택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어느 한 명령을 다른 것에 덧붙여야 한다고도 보지 않는다. 도리어 두 명령을 동일한 명령의 두 측면으로 보려고 한다.<sup>30)</sup> 이러한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이 폴 마샬(Paul Marshall)과 알 월터스(Al Wolters)이다. 폴 마샬은 복음전도(전도사명)와 사회적 책임(문화사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도 아니고 또 ‘이것, 저것, 모두’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도리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일한 명령으로 이해한다. 그는 양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참된 기독교적 사회활동은 항상 전도사역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중립적인’ 즉 죄의 결과와 구속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의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 반대로 참된 기독교 복음전도는 언제나 사회활동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 복음 전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좋은 소식을 실제로 구현시킴 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1)</sup>

### 5)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

1974년에 모였던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에서는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전도와 같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소중한 주제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인정한 것은 커다란 변화였다. 로잔대회에서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문화적 사명)은 동등한 명령이지만 별개로서 양자가 함께 교회의 선교를 구성한다고 하는 ‘로잔언약’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로잔 언약 4항에서는 ‘복음전도의 본질’이, 5항에서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고, 6항에서는 “희생적 봉사라는 교회의 선교 가운데 복음전도가 첫째가 된다.”라는 언급 외에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상호 관계에 대한 명백한 설명 없이 두 가지 의무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sup>32)</sup> 그래서 로잔 대회 이후 복음주의자들은 이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그러나 1982년 6월 미국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에서 모인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와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가 공동 후원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회에서도 분명한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한채 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로잔 언약에서는 ‘전도’를 좋은 소식을 온 세상이 널리 전하는 것으로서 전도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되고 따라서 당연히 교회와 사회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3)</sup>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심판주로서 그가 인간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의와 화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모든 압제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관심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서 “사회적 관심에 대해 등한시한 점에 대해 그리고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해 온 점에 대해 참회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34)</sup> 그러면서, “인간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활동이 복음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측면임을 주장한다.”<sup>35)</sup> 고 하여 교회의 전도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로잔 언약에서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는 3가지 관련성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결과라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다리가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결과와 목표로서 전도의 파트너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관심했던 복음주의 교회에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사회 복음주의에 대항하는 듯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은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이분화 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로잔 언약을 기초할 때부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중요한 관심사였다. ‘사회적 책임’을 어떤 용어로 확정할 것인가에서부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를 Social ministries,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assistance, social service, Social action, Social justice 등의 용어가 검토되었으나 결국 사회정치적 활동(Socio-political activity)이란 용어를 채택했다.<sup>36)</sup> 로잔 언약은 ‘사회봉사’(social service)와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을 구분했는데, 사회봉사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자선과 박애주의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한편, 사회적 행동은 인간의 필요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구조를 변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이런 구분은 사회적 책임을 전도와 구분하고 전도가 우선이며 사회적 책임은 차선의 것임을 보여준다. 즉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 선택적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전도와 문화명령에 대한 3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 곧 문화명령과 전도명령 중 어느 하나를 특별히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3가지 유형의 이견이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적한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개혁 교회 전통에서 어느 한 유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책임 또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점을 적시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IV. 교회의 사회적 책임

전향에서 교회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소개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란 어떤 것일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1) 교회의 구원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2) 교회 구성원들이 기독교정신을 가지고 도덕적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3) 교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도덕적 원칙에 대한 체계적인 표명을 함으로서 앞의 두 가지 사항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등을 포함된다. 이를 다음의 3개 항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도덕적 의무: 사랑과 선행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은 그리스도인이 속한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형제 사랑과 이웃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교회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자 기독교가 가르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자비, 약자에 대한 배려, 궁핍한 자에 대한 배품 등 이타적 삶의 방식을 교훈하셨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에서부터 이런 가르침을 실천해 왔다.

예를 들면, 터툴리안은 “우리들이 많은 대적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위난자들에 대한 우리의 보살핌(care for the helpless)이며 우리의 자애의 실천이다.”<sup>37)</sup>고 했고, 180년『페레기너스의 죽음』이란 책을 써서 기독교를 비방했던 루시안(Lucian of Samosata, c. 120-?) 마저도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그들 본래의 율

법수여자는 그들은 서로 형제들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그 형제들에게 도움을 줄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도움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그들은 형제에 대한 배려를 아까워하지 않았다.”<sup>38)</sup>라고 했다. 이런 사랑의 실천에 대해 말하면서, 『디다케』(Didache, c. 100)에서는 ‘조건 없는 배품’(unconditional giving)을 강조하고 있고,<sup>39)</sup> 3세기 이전의 교부들의 문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공통된 경구는 “‘이것들은 다 내 것이라’ 고 말하지 말찌니라”는 경구였다.<sup>40)</sup> 말하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핍절된 이웃에게 구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옥에 갇힌 자들을 보살피 주는 간호행위는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sup>41)</sup> 말하자면 사랑과 자비, 선행과 봉사는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했던 일상의 가치이자 삶의 방식이었다.

초기 기독교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사실은 파라볼라노이<sup>42)</sup>라는 칭호 속에 드러나 있다. ‘위험을 무릎 쓰는 자’라는 뜻의 이 말은 251년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들과 위난자들을 돌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칭호였다. 선교에 대한 저명한 연구가인 노버트 브록스(Norbert Brox)는 초대교회에 선교명령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라고까지 말했다.<sup>43)</sup> 즉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문헌 속에는 전도에 대한 목회적 권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널리 퍼졌던 것은 사랑의 실천이 가져온 결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정(純正)한 사랑과 실천은 사람들에게 감

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정신의 계승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절연하고 살지 않았고, 타계주의적 삶을 지향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사회적 일상을 중시하고 사랑의 시혜자로 살았다.오늘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로부터 자유하고,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주는 일일 것이다. 즉 세속적 가치에는 무관심하되, 기독교적 가치에는 적극적일 때 기독교는 이 세상과는 분리되어(beyond) 있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transform) 있을 것이다.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독교적 자애의 실천은한국교회를 쇄신하는 길일 것이다.

## 2)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독교적 가치의 구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또 한 가지 사회적 책임은 포괄적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 일일 것이다. 인간 사회에는 어느 시대나 사랑과 자비가 없고, 공평과 정의가 없으며, 자연도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공동체에 대해 도덕적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시민적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되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근거할 때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의 폐지는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와 그 동료 정치인들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이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독교 가치를 보여줌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인간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호소는 노예제도의 폐지의 정신적 기초가 된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양차 대전 중간기에 있었던 형사제도의 광범위한 개혁 또한 기독교 원리에 입각하여 어떻게 사회공동체가 범법자들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호소가 가져온 결실이었다.<sup>44)</sup>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특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인간의 죄성을 비판하고 영적 각성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원리를 설교했을 때, 즉 기독교적 가치를 보여주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회 개혁 운동으로 외연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은 교회의 정체성 확립, 선교운동, 기독교육 운동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사회 개량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병원, 고아원, 모자원, 구빈원이 설립되었고, 존 하워드(John Howard, 1726-1790)같은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감옥 개선 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에서의 복음주의 운동은 영국교회에 만이 아니라 영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혁의 동인이 된 것이다. 복음주의 운동은 불신과 회의주의, 영적 무기력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의 동기를 제공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영국이 프랑스에서와 같은 유혈혁명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이라고 말한다.<sup>45)</sup>

이렇게 볼 때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기독교회가 그 사회에 교육적 혹은 계도적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시대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교회가 이런 권위를 상실할 때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도리어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한 가지 경우를 말해 보자. 우리 시대 물신평조를 몰아내고 경제적인 부정의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터툴리안이 말하는 소위 ‘소유권의 형제애’를 보여주어야 한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는 방식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삶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점을 존 스타트는 “가난과 부, 그리고 소박한 삶”(Poverty, Wealth and Simplicity)이란 글<sup>46)</sup>에서 부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독교적인 물질관에 대한 계도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때 막스주의자였던 폴란드 출신의 망명철학자 레제크 콜라콥스키(Leszek Kolakowski)는 오늘의 서구사회의 세속화는 기독교가 너무 싫게 그 고유한 가치를 포기해 버린 결과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기독교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혁명이나 폭력은 기독교적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3) 교회와 국가

개혁교회 전통에서 볼 때, 교회와 국가 간의 바른 관계, 그리고 국가권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바른 설정을 교회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해 왔다. 그래서 16세기 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바른 관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

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나, 중세교회의 경우와 같은 국가와 교회의 일치화도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근거했다.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도 이상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런 인식에서 국가와 교회간의 바른 관계는 어떠한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제네바의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 혹은 국가권력으로 부터의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였다. 시의회 등 국가권력 기구는 교회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치리권(治理權)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네바에서의 시의회와 칼빈과의 대립이었다. 칼빈이 1541년 제네바에서 작성한 교회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은 이런 관심의 반영이었다. 칼빈은 영적 질서인 교회와 함께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질서라고 보았다(롬13:1이하). 단지 국가라는 질서는 결혼제도와 같은 창조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은총’의 제도라고 보았다.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세속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고, 성공회는 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인정했다. 루터교는 국가의 교회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방(領邦)교회로 발전하였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국가의 구별을 따르면서도 진일보하여 양자는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고 양자는 유기적으로 관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봄으로서 국가의 교회지배나, 교회의 국가 지배, 그리고 교회와 국가 간의 완전한 분리를 이상으로 간주하였던 재세례파의 견해를 반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국가가 교회문제를 간섭하거나 교회가 국가의 기능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로교제도(Presbyterianism)가 가장 성경적인 제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다.<sup>47)</sup>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23장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4항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23장은 로마서13장 11-7절의 가르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8)</sup>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23장은 교회와 국가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며, 그 목적과 행동영역, 그리고 치리체제와 역원은 서로 다르며, 상호 호의를 가지지만 상호 독립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즉 23장은 교황지상주의(황제 교황주의)나 에라스티안주의 양자를 배격하고 있고,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위정자는 교회와 교회 기관들이 평화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교회 일에 대한 공식적인 지배권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할 때 저항 할 수 있는데 이 저항권을 교회의 권리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법아래 있다. 국가 위정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사역자)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세속 정부가 악이나 폭력을 제거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한 기독교인은 지배자에게 순종하고 기도해야 한다. 세상 정부를 위한 기도는 제네바의 주일 예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이기도 했다.<sup>49)</sup> 그러나 의인을 벌하고 악인에게 상을 주며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을 파괴할 때는 항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충돌이 생길 경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행5:29).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반대되는 명령을 하게 될 경우 순종의 한계가 생긴다.<sup>50)</sup>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세속 정부에 항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칼빈의 사후 저항권 사상은 1570년 이후 프랑스 개혁파 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전개되었다. 저항권 사상은 스코틀랜드를 거쳐 장로교 전통에서 수용되는데, 그것은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Covenanters)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장로교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고 신교(信敎)의 자유를 유린당했을 때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숙고한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한계를 적시하고 교회의 독립과 신교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했다. 비록 관견(管見)에 불과하지만 이런 문제를 더 깊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적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수평적 차원의 대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책임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진보적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수평적 차원에서 이해하여 이웃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중시하여 과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개혁, 정치적 해방, 구조적 개혁 등을 교회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마치 NGO 단체처럼 활동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개혁교회 전통을 추수한다고 말하는 한국의 보수적인 혹은 복음적인 교회가 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둔감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왔는가에 대해 지적해 두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신뢰의 상실이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권위는 신뢰에 기초한다. 한국교회가 선지자적 권위를 지닐 때 선포하는 메시지도 능력을 지니게 되고 한국사회를 선도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중산층 이상의 기독교로 화하여 한국 사회 저변의 현실과 고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신학적 반성은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역사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데, 보수적인 혹은 복음적인 교회는 이런 사회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교회성장을 제일의적 과제로 추구해 왔던 점도 교회의 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어 성장 아닌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했다. 따라서 교회의 대 사회적 책임은 교회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흔히 교회는 이 세상의 조직과 질서, 불의한 구조에 대한 ‘대안적 사회’(alternative society)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복지와 평안을 도모하는 ‘변형의 본보기’(transformative example)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 확립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무관하지 않다.



- 1) 이 점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Edmund P. Clowney, “Toward a Biblical Doctrine of the Church,”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1, no. 1 (Nov., 1968), 71ff.
- 2) 존 스타트(John Stott)는 증거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 행해야 할 모든 것”으로 해석했다.
- 3) Sherwood Wirt, The Social Conscience of the Evangelical (NY: Harper and Row, 1968), 19-26.
- 4) 유해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는 현존한다는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소망공동체로서, 교회는 존재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시위해야 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항거와 투쟁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비판도 불가피하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다른 형태들인 가정, 학교, 정당이나 정치조직, 국가나 권력기구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방법은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해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도서출판 영문, 2003), 168-9.
- 5) 로버트 웨버, 『기독교문화관』(엠마오, 1984), 75-170.
- 6) 로버트 웨버, 15-6. 리차드 니버나 로버트 웨버는 3세기 이전의 초기 기독교나 터툴리안(Tertullian, 150-220), 혹은 16세기에 국가교회(State Church)로부터 이탈했던 재세례파(Anabaptists)를 분리주의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전적으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4세기 이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국가권력의 교회 지배나 신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에 대하여 저항하였기에 국가에 대한 분리주의적 견해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문화 활동에의 창조적인 노력마저도 기피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이들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독자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했고, 그것마저도 분리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Robert H. Grant, Early Christianity and Society (NY: Harper, 1977), 1장, 7장 등을 참고할 것.
- 7) 물론 개혁교회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상이한 견해가 있다. 예컨대 John H. K. Leith는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16세기 종교개혁 전통을 계승하되 윌리엄 에임스, 프란시스 튜레틴, 찰스 하지에 이어 칼 바르트, 라인홀드 니버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 8) 존 스타트는 전도(증거)와 사회 참여(책임)는 전체교회 역사에서 밀접한 관계를 지녀왔다고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이 무의식 적으로 이 두 가지 활동에 참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존 스타트,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CLC, 1989), 15.
- 9) 그래서 2세기 아시아의 총독은 에베소에 있는 제빵업자들

- 이 노동 쟁의를 벌였을 때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 도시의 복지’에 무관심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켈브릿지대학교 틴델 하우스를 거쳐 호주 브리스베인의 낙스 칼리지에서 일하고 있는 부르스 윈터(Bruce Winter)는 자신의 Seek the Welfare of the City (Eerdmans, 1994)를 통해 사회의 시혜자(施惠者)로서 그리스도인들(Christians as benefactors)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했고, 이를 통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왔는가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 10) C. Meier, The Greek Discovery of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13ff.
  - 11) E. A. Judge, The Social Pattern of Christian Groups in the First Century (London: The Tyndale Press, 1960), 제2장 참고,
  - 12) 그가 칼빈이 남긴 공헌이라고 제시한 5가지는, 성경 중심주의(Biblicism), 장로교정치제도(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 시민사회이론(Theory of civil society), 도덕의 함양(Moralism), 그리고 신학적 체계(a system of Theology)였다. John Bratt, The Rise and Development of Calvinism, (Eerdmans, 1963), 29-33.
  - 13) 그 단적인 예가 치리권(治理權)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네바에서의 시의회와 칼빈과의 대립이었다. 특히 출교권(黜敎權)의 문제로 칼빈과 시의회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문제로 제네바 시의회는 1538년 4월 칼빈과 파렐의 추방을 결의했다. 취리히의 쾰빙글리(Zwingli, 1484-1531)는 출교권이 교회에 있지 않고 정부, 곧 시의회에 있다고 보았고, 후계자인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4)도 출교권은 통치자에게 있다고 보아 취리히 교회는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권징권은 교회에 속하며, 교회의 고유한 과업이라고 보았다. 이 사상은 부셔(Martin Bucer, 1491-1551)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도덕적인 권징(moral discipline)을 교회의 고유한 업무로 간주하였고, 가장 중한 권징인 출교는 정부가 아닌 교회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셔는 이미 1527년에 출판한 『마태복음 주석』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감당하려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 14) 이상규, 『교회개혁사』(성광문화사, 2002), 171-2.
  - 15) William Monter, Studies in Genevan Government, 1536-1605 (Geneva: Droz, 1964), 118.
  - 16) Bratt, The Rise and Development of Calvinism, 31.
  - 17)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Atlanta: John Knox, 1971), 157. 칼빈 당시의 제네바의 도덕적, 윤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이 책 157-73, 235-7을 참고할 것.
  - 18) Bratt, 31.
  - 19) William R. Estep, Renaissance and Reformation

(Eerdmans, 1986), 240-241.

- 20) Bratt, 32.
- 21)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John Knox Press, 1989), 15, 19, 24, 26.
- 22) J. W. Bready, England: Before and After Wesley (Hodder & Stoughton, 1939), 11, 14, 존 스타트, 16에서 중인.
- 23) 존 스타트, 17.
- 24) Abraham Kuyper, De Gemeene Gratie (Leiden: D. Donner), 1(1902), 2(1903), 3(1904), 변종길, “고신교회와 개혁주의 문화관,” 『개혁신학과 교회』19(2006), 63에서 중인.
- 25) 변종길, 66.
- 26) 변종길, 67.
- 27) 박종철, “중간시대를 사는 기독교신자의 생의 의미,” 『고려신학보』4호(1982. 9), 9.
- 28) 화란 깡뎀의 다우마(J. Douma)는 1966년 제출한 일반은총론(Algemene Genade)이라는 박사논문에서 카이퍼와 스킨더, 칼빈의 일반은총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변종길, 68; 박종철, 9.
- 29) 박종철, 11.
- 30) 폴 마샬, 『기독교 세계관과 정치 Thine is the Kingdom』(IVP, 1989), 32.
- 31) 폴 마샬, 57.
- 32) 존 스토트 편, 『그랜드 래피즈 보고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두란노, 1986), 15.
- 33) 존 스토트 편, 『그랜드 래피즈 보고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21.
- 34) 존 스토트 편, 『그랜드 래피즈 보고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25.
- 35) 존 스토트 편, 『그랜드 래피즈 보고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25.
- 36) 김홍덕, “교회의 사회적 책임,”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CLC, 2005), 239.
- 37) Tertullian, Apology, xxxix.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자애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Caecilius, Minuc. Felix, ix에도 나온다.
- 38) Adolf von Harnack, The Mission and Expansion of Christianity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Harper & Brothers, 1961), 188.
- 39) Didache, I, 5f.
- 40) Harnack, 151. “thou shall not say these things are thine own.”
- 41) Harnack, 153ff. 하르낙은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보살았고, 유약한 자와 병든자와 장애인을 도와주고 간호(care)하여 주었으며, 옥에 갇힌 자와 탄광촌의 고달픈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죽은 자를 매장해 주었고, 노예들을 보살폈으며, 재난을 당한 이들을 돌보고 여행자들을 선

대했다고 지적하고, 각각의 경우를 초기 문헌에 근거하여 자세하고 기술했다.

- 42)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Univ. Press, 1977), 1029-30.
- 43) 알렌 클라이더, 『초대교회의 예배와 전도』(KAP, 1995), 21.
- 44) 윌리엄 템플, 『기독교시민의 사회적 책임』(KUIS Press, 2010), 46.
- 45) 존 스타트, 16.
- 46) J.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Hants, Marshall Morgan & Scott, 1984), 212-233.
- 47) 칼빈은 교회론, 예배론, 성찬론은 부셔(Martin Bucer)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장로교 정치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부셔는 1538년 『참된 목회에 관하여』(Von der waren Seelsorge)를 출판했는데, 이것은 장로교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결창이었다. 칼빈은 이 책으로부터 큰 도움을 입었고, 부셔가 1536년에 출판했던 『로마서 주석』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제2판(1539년 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cf. 황대우, “칼빈과 부셔,” 『칼비과 종교개혁가들』(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2), 44-46.
- 48)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3장 3항에는 조화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천국열쇠의 권세를 떠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위정자는 교회 안의 질서와 평화가 보전되며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도록 하고 불경건한 것들이나 이단들이 억제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를 위해서는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며 무엇이든지 처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되도록 주선하는 권한이 위정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지만 또 30장 1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요 머리”로서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원들의 손에 의해 교회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정해두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31장 2항에서는, “위정자들이 목사들과 또 이에 적당한 인물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하여 종교문제를 상의하고 충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로 위정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자신들만으로 그들의 직책을 따라 교회에서 파견된 다른 적합한 이들과 더불어 그 같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모순점이 있다. 위정자들은 교회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가하면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교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이런 모순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만이 아니라 벨직신앙고백서 36항에도 나타난다. G. I. Williams(나용화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강해』, 393.
- 49) 한스 솔(황정욱역), 『종교개혁과 정치』(기독교문사, 1993), 129.
- 50) A. A. Hodge(김종흠),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 해설』(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393.



이상원 교수  
조직신학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개혁신학회의 사회적 책임” 논찬

이상규 교수의 논문은 삼부로 구성되어 있다.

I부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룬다. 이상규 교수는 먼저 교회의 네 가지 본질 곧 예배, 증거, 교육, 봉사 중에서 봉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서 봉사는 일차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행, 섬김과 베품 등이 이웃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의 증진, 의의 추구, 정의의 실현, 평화의 도모와 같은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어서 이 교수는 초대교회에서 시작하여 중세시대를 거쳐 종교개혁 시대,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개관하면서 중세시대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일관성 있게 강조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II부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여기서 이 교수는 문화명령과 전도명령의 상관성의 문제를 다룬다. 이 교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보는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소극적인 은총이라는 표현대신 명령이라는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 스킬더, 전도의 명령 안에 문화명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 다우마, 두 명령

을 동일한 것의 두 측면으로 이해한 마샬, 두 명령의 관련성을 세 가지 측면(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결과, 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다리, 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결과)에서 말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자선과 박애주의적인 봉사를 뜻하는 사회봉사와 정치경제적 활동을 통한 사회구조변혁과 정의추구를 뜻하는 사회적 행동을 구분한 로잔 언약을 차례로 소개한 후에 이 모든 견해들이 모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음을 말한다.

III부에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서 사랑과 선행, 기독교적 가치의 구현,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의 제어 등을 제시했다.

결론에서 이 교수는 한국교회에서 보수적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수직적으로 이해하고, 진보적 교회는 수평적으로 이해하는 편중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 후에 특히 보수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이유로서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신뢰의 상실, 교회의 중산층화, 성장제일주의를 제시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조직과 질서, 불의한 구조에 대한 대안적 사회이자 우리 사회의 복지와 평안을 도모하는 변

형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이 교수가 제시한 지적들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실천문제를 다룰 때 표준적으로 제시해 왔던 항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평자는 이 교수의 글 중에서 구조적으로 불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이어서 이 교수의 제안을 약간 심화시킨 논의를 간략히 제시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1) II부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이 교수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방법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글을 열었기 때문에 논평자는 어떤 방법이 제시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읽었는데, 내용은 전도명령과 문화명령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을 뿐, 방법에 대한 제시는 언급되지 않았다. 두 명령의 상관관계에 대한 진술은 두 명령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다. 방법에 대한 언급은 III부에 가서 나온다. 따라서 II부는 내용에 부합하게 제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이 교수는 전도명령과 문화명령을 다루는 세 가지 입장을 소개하고 이 세 가지 입장을 예증하는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세 가지 입장은 두 명령 중 어느 하나를 특별히 강조하는 입장,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입장, 두 명령을 동일한 것의 두 측면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 세 가지 입장들 가운데 두 번째 입장(다우마)과 세 번째 입장(마샬)은 소개되었는데, 첫 번째 입장은 실종되었다. 아마도 카이퍼와 스킬더의 입장을 첫 번째 입장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이 분류는 잘못되었다. 카이퍼와 스킬더

는 전도명령과 문화명령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특별히 강조한 신학자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카이퍼와 스킬더는 전도명령을 중요시하면서 문화명령을 소홀히 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을 뿐 전도명령보다 문화명령을 특별히 더 강조한 신학자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논평자는 이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사회적 책임 실천 방안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의 구현 부분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독교적 가치의 구현의 예로서 이 교수는 두 가지를 열거한다. 하나는 노예제도와 무역의 폐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제도의 변혁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의 제거를 요청하는 소유권의 형제애 정신이다. 이 교수의 전략은 쌍방향을 향하여 있다. 기독교인들 내부적으로는 탐욕을 절제하고 물질적으로 검소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형제를 돌볼 수 있는 물질적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잘못된 사회구조를 변혁시키는 일이다.

논평자는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교수가 제시한 대로 조금 엄격하다고 생각될 만큼 물질적으로 검소한 생활의 훈련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며, 이 교수가 강조한 ‘대안적 사회’와 ‘변형의 본보기’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목회자가 검소한 삶에 익숙하게 되면, 재정 부담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며, 현대 한국교회의 더럽고 심각한 치부들 가운데 하나인 재정적 불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지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교회와 교인들이 목회자를 본받아 검소한 삶에 만족하고 재정적 여유를 만



들어 사회봉사에 투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대안적 사회상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수행의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의 제도변혁은 중요한 만큼 사회구조적 현실에 대한 보다 냉정하고 전문화된 이해의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으면 나이브(naive)하고 공허한 이념적 구호에 그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사회구조변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명제는 이제는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한국보수교회가 사회구조변혁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비판일까? 20년 전에는 이 비판은 유의미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보수교회도 사회구조변혁이 교회의 사명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수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수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다. 이 시점에서는 교회의 사회구조변혁의 사명을 그토록 강조해 왔는데도 왜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가를 물어야 한다. 논평자는 그 이유가 한국교회에 사회구조의 특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심화된 사회윤리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구조변혁은 명분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왜 그럴까? 라 인홀드 니버가 지적했듯이 사회구조를 변혁시킬 수 있는 개인의 품성의 힘과 사회구조가 개인의 품성을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월등히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 구조가 형성되고 나면 그 구조에 의하여 혜택을 받고 그

구조를 지키고자 하는 강고한 세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사상적 근거가 신약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본문의 함의를 발견하고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기까지는 17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 엄청난 희생이 뒤따라야 했다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북중부 유럽의 사회보장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사회안전망은 80년간의 긴 시간동안 인내로서 거둬되는 논쟁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겨우겨우 얻어낸 결과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우에 임신부가 원하기만 하면 아주 사소한 질병 증세만 있어도 광범위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이 법은 나치 독일의 안락사법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하나 조차도 제정된 지 50년이 지나가고 낙태반대 운동연합 등의 끈질긴 반대운동에도 개정은 커녕 낙태의 범위를 더 넓게 확대시키고자 하는 개악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중이다. 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배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생명공학에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아를 세포덩어리로 폄하시키고 광범위하게 배아조작을 허용하는 악법으로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천주교의 연합하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헌법소원은 기각된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현실의 난관이 어떤 것인가를 뼈아프게 고민해보지도 않은 채 사회구조변혁을 해야 한다고 목청만 높이는 아마추어 단계에서 맴돌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회구조변혁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총회설립100주년기념

신학정체성포럼

# 포럼3

미래전망 : 방향

발제 5 한국 장로교와 통일 주도홍 교수

논찬 5 “한국 장로교와 통일” 논찬 심창섭 교수

발제 6 예장총회 100년과 나아갈 방향 장차남 목사

논찬 6 “예장총회 100년과 나아갈 방향” 논찬 김경원 목사





주도홍 교수  
백석대학교  
기독교통일학회 회장

- I. 들어가는 말
- II. 성경적 통일론
- III. 독일 통일의 교훈
- IV. 한국 교회의 통일 준비
- V. 나가는 말

## 한국 장로교와 통일

### I. 들어가는 말

어느 민족 누구거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sup>1)</sup>

필자는 장로교 총회 100주년을 맞으며 한국교회에 게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길 소망하며, 아울러 21세기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가 어디로 향하여야 할 것인지를 찾으려하는 것이다. 곧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꿈꾸는 자Dreamer

한국교회를 서술하는 일이 필자의 몫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 분단 하 한국교회가 암울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통일 한국을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궁리해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엄연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꿈과 비전은 그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닿아 있다는 점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꿈은 그러기에 주님의 재림 앞에서 드러나고 제시되어야 할 그 종말론적 비전, 성경적 비전이라는 사실이다.

2012년 한국 장로교 총회가 100주년을 맞았다. 2천 년 세계교회사에 비할 때 1/20에 해당되는 짧은 세월이었지만, 한국 장로교회는 100여 년 동안 세계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다. 세계교회도 부러워하며 호기심어린 눈으로 한국교회를 주목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무도 동시에 생각하게 된다. 한국 장로교회의 성숙을 위해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한국 장로교회가 21세기 모델교회로 드러나길 소망한다.

그렇다고 한국교회에는 마냥 감사할 일만 있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세상과 세계교회를 향해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는데, 이는 급성장한 한국교회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음을 기억하는데, 자칫 교만과 자만에 빠질 수 있는 한국교회를 사랑과 훈계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결코 길지 않은 세월 속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수많은 분열을 거듭하였으니 열굴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서로 이해하지도 사랑하지도 관용하지도 못 한 채 상대방의 작은 티를 들보로 확대해 보며 정죄하며, 아니 부질없는 세상 욕심 때문에 수많은 싸움과 분열을 거듭해 왔다.<sup>2)</sup> 한국교회의 분열에는 대충 일곱 가지의 원인이 있음을 본다. 곧, 본국의 교단을 심으려 했던 선교사들 때문에, 그 선교사들과 한국인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일제 하 신사참배 문제로, 신학적 견해 차이로, 공산주의를 향한 입장 차로, 지역 갈등으로, 기성 교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독립교단의 출현 때문에 한국교회는

분열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sup>3)</sup> 거기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지닌 교단 지도자들의 교권싸움이 분열의 이유이기도 했다. 결국 세계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분열기록을 한국 장로교회가 남겼으니 참으로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2012년 현재 300여개가 넘는 한국 장로교단은 기네스북에라도 올릴 수 있을 만큼 무분별한 분열의 프로, 아니 분열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된 군소 장로교단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배출되는 무자격 목회자들은 이제 한국의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점들로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의 퇴락의 한 이유가 되어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작은 교단이기에 문제가 많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쨌든 세속화와 몰량주의에 빠진 대형교단일 경우 역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배태해 낼 수밖에 없다. 사실 속이 꽉 찬 작은 교단과 교회들이 훨씬 성경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빠뜨리고 싶지 않다.

특히 100만 이산가족을 낳았던 한반도의 분단과 이로 인해 동반되는 수많은 폐해는 다르지 않게 한국교회의 분열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성이 어둠에 잠긴 지 이제 반세기를 훨씬 넘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분단의 커다란 상처를 기도의 제묵으로 붙들었던 간절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소리도 힘을 잃고 잠잠해진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단지 그 일에 뛰어난 몇몇 종사자들의 미약한 기도소리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분명한 사실은 다수인 한국 장로교회가 한반도의 남북 분단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엄청난 정신적 영적 국가적 재정적 문제를 간과한다거

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게 무엇을 뜻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바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세계선교를 거창하게 외치고 열정적 이웃사랑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살아가는 동족 2400만을 향한 마땅한 사랑과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명을 방기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이는 유대 동족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외침을 들을 때 비성경적이라는 점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1-3)

한국은 세계 유일의 암울한 분단국이다. 21세기 한반도의 분단은 지난하며 철저하며 처절하기까지 하다. 이토록 나누어 사는 민족이 과연 세계 역사에 또 어디에 존재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한 미움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남북관계만이 아니고, 남남관계에서도 그 미움과 갈등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닳았다. 곧 이념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한국교회는 복음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복음에 이념을 덧칠해서는 안 된다. 순수한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인간의 아이디어인 이념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에 무릎을 꿇

어야 하고 꿰려야 한다. 이념을 추종하며 그것이 유토피아를 가져다줄 줄 기대했던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자인하며 복음으로 나와야 한다. 오직 예수 부활의 복음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 복음에 인간의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주의 생명의 진리인 복음의 가르침을 먼저 순종해야 한다. 아니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복음을 이념과 싸우는 인간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을 정정하고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외치고, 이웃사랑을 목 놓아 외치더라도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 북한의 2400만의 영육을 사경에 헤매게 방치하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위선자이며,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바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며, 보다 업그레이드되길 기다리신다. 그것은 남북 분단의 거대한 과제를 한국교회가 주의 진리를 따라 감당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중요한 숙제를 망각한 지가 오래되었다. 아니 그것이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도소리도, 설교도 끊인 지 오래되었다. 이제 한국교회는 화려한 초막 셋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지으려 할 뿐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문제의 현장 속에서 주의 제자로 살기를 명령하신다. 가장 거대한 죄악의 실체 남북의 분단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과 싸우기를 원하신다. 사랑으로, 복음으로, 인내로, 관용으로, 생명의 지혜로, 악을 선으로, 원수사랑으로 이기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를 기다리신다.

왜 독일통일을 ‘조용한 개신교 혁명’으로 일컫는지

나누어진 분단의 한국교회가 깊게 묵상하며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후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숙제를 비로소 감당할 수 있길 갈망한다. 그럴 때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렸던 또 다른 숙제를 내리실 것이다. 그 숙제는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스테이션과 관계되며, 그렇다면 마지막 약속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긴밀히 상관된 과제일 것이리라!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분단의 극복은 한국 장로교회에게 내리신 막중한 21세기 과업임이 분명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어렵고 힘들지만 의지적으

로 한국교회에게 내리신 그 과제를 성령을 힘입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역사적 과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 장로교회의 성숙과 개혁에도 긴밀한 관계가 있고, 한국 장로교회가 마땅히 지니고 성취해 내야 할 21세기의 비전, 세계복음화에도 깊은 상관성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사실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와 쇠퇴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부여한 과업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엉뚱한 곳에 정력과 관심을 쏟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II. 성경적 통일론

### 2.1) 원수를 사랑하라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분단 그로인한 민족의 분단에 근 반세기 동안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한국교회는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통해 가졌던 공산주의를 향해 품었던 미움과 그들에게 당했던 과거의 아픈 상처로 인해 북한에 대해 쉽게 풀어낼 수 없었다. 한국교회는 반공을 북한을 대하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쉽지 않았다. 두 이념의 대결은 양자택일, 양육강식, 권력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의 순환으로 이끌어졌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었던 깊은 상처를 이제는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으로 풀어내야만 하고 치유 받아야 한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주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부활신앙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지금까지 맺힌 것을 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국교회는 구현해 내는 것이다. 결코 이념의 문제를 이념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기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념으로 인해 헛되이 꿈꾸었고 그로 인해 입었던 깊은 상처를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더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을 시키는 것이다. 사실 두 이념은 분명 차이는 있었으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인간의 착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부활복음은 다른 차원의 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다. 복음을 통해 이념



에 물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제한되어서도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한국교회가 북한을 향해 가져가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 생명의 복음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미움도 버리고 아픔도 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아니 위해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원수사랑에서 그 절정을 제시한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길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쐼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17-21)

## 2.2) 사마리아로 가라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 문제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의 길을 막을 때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주의 몸 된 교회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21세기 사마리아 북한'을 앞에 두고 한국교회는 하나의 중요한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하겠다. 그 물음이란 '예수

님을 따를 것인가, 제자들을 따를 것인가?'이다. 좀 엉뚱한 물음 같지만, 오늘의 한국교회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던져야 하는 물음이다. 남북 분단의 문제를 접근하려 할 때 한국교회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곧 복음과 이념의 상관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간의 생각이며 인간의 한 아이디어인 이념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의 생명인 복음의 발목을 잡아서도,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이념이 예수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르게는 우리의 생각, 인간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뜯어고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인과의 상종을 꺼렸던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택하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 굳이 예수님은 새롭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요4:4 -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고 고집하셔야만 했는데, 제자들이 완강하게 예수님의 길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터부시하여 그들을 멀리 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러한 세상적 이유를 들이대며 진리이신 주님을 설득하려 해서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제자들 역시 자신의 생각, 논리를 펼치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했으며, 자신들의 길을 거꾸로 자신들의 선생이 따르기를 강요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로 들어가야만 하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참으로 특이하게도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거꾸로 가르치려 하였다는 사실이다. 12제자가 부름 받은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구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오늘에도 주를 따른다는 수많은 크

리스천들이 자신의 주님을 거꾸로 가르치려 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그 주님께 강요하는 오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은지 하는 점을 발견한다.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진리이신 주님을 도리어 설득하며 자신의 세계관으로 덧칠하여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혹시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와야 할 것이다.

북한을 21세기 사마리아로 일컫는 이유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 생존위기에서 세계를 향해 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나라, 종교적 집단(cult)일 뿐 아니라, 가까이 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불편한 나라, 유래를 찾기 어려운 비인권적 공산주의 독재국가, '테러 집단'으로까지 일컫기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나라,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나라로 피하고 싶은 나라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북한을 향해 한국교회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지를 무엇보다 먼저 물어야 한다. 그런 후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을 향한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말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는 공산주의를 향해 반공을 내세우며 또는 적그리스도라 칭하며 북한을 향한 한국교회의 소명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다. 소홀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나태와 게으름을 합리화하였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21세기 사마리아 북한을 두려워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고립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친히 들어가실 것을 충분히

미워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두운 그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전개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넉넉히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만난 수가성 여인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께 나아와 천국의 삶을 맛보았듯이 북한 역시 그 기쁨과 은총을 누릴 것을 얼마든지 대망할 수 있다. 자신들을 행복의 나라, 유토피아로 이끌어줄 줄로 알았던 그 이념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지를 주께 나아와 회개하며 새로운 삶의 진리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된 그들은 한국교회가 터부시하며 미움과 타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훈의 대상이며 선교의 대상,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여기서 한국교회는 21세기 사마리아 북한을 두고 가감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다.

## 2.3)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재고

한국교회는 종종 북한 돕기를 내세우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져와 성경적으로 설득한다. 강도를 만나 사경을 헤매는 자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는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 따르미로서 순종하며 전적으로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임이 틀림없다.<sup>4)</sup> 물론 한국교회가 인도주의적 북한 돕기를 주장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시하는 점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비유는 북한 정권을 강도로, 강도만난 자를 북한 주민으로 전제해야 하는 나름대로의 불편함, 곤란함이 있다는 점이다. 강도가 떠난 이후에 전혀 강도와는 상관없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도운 것으로, 이 비유의 핵심은 강도를 정죄하려는데 있는 것



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이다. 그 어떤 강도를 향한 정죄, 미움을 말하는 것은 예화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을 향해 이 비유를 가져올 때 한국교회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 내지는 판단을 먼저 내림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이 비유의 의도와는 다른 점을 말하고 있기에 해석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 예수님의 비유는 죽기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요청할 뿐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과거 공산당에게 당한 상처를 은근 슬쩍 어루만져 주는 양면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한 쪽으로는 북한을 향한 정죄를 하며, 다른 한 쪽으로는 북한 돕기를 설득하는 양면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엄격하게 볼 때 성경해석에 있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을 자극하여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북한 돕기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북한을 감동시켜야 하지, 그 어느 한 쪽은 정죄하고 소외시키면서 다른 한 쪽을 위하는 식의 일방적 공홀 또는 좀 심하게 말해 이간질하려는 꾀수를 부러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의 북한 돕기는 어려움에 빠진 북한 전체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공홀히 여기고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미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넓고 깊은 사랑에 의해서만이 한국교회의 북한 사랑은 주의 뜻을 순전히 순종하는 것이 되며, 남북의 분단을 넘어 서는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사실 엄격하게 볼 때,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요4)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막4)를 굳이 상관시킬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에서 두 본문을 들어 한국교회의 북한을 향한 자세를 교훈하려함에 있

어서는 분명하게 그 이해의 순서를 바로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그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따를 때만이 한국교회는 비로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그 주님이 말하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요청을 바로 인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정죄와 편 가르기 없는 순수한 큰 사랑이다.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의 요청을 남을 정죄하는데 결코 오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은 범죄한 강도를 정죄하고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다. 십자가 위에서 만난 강도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장면은 오늘 한국교회가 마음에 담아야 할 소중한 장면이다.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강도와 같은 죄인들을 감동시키는 복음이어야 한다. 그들을 정죄하며 기독교적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어 소외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다시 바리새인적 우를 범하게 되며, 사람의 하나 됨을 근원적으로 추구해야 할 통일의 아름다움을 한국교회가 앞서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강력한 만류를 뿌리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이룩하신 놀라운 예수님처럼 한국교회는 북한을 품에 안고 기도한 후 그가 누구이든 지 간에 우리가 가진 정죄와 판단의 칼을 내려놓은 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그 순전한 사랑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2.4) 교회의 슬림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를 따르라!’의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하며

따랐을 뿐이었다. 양자 간 다른 협약도 그 어떤 조건도 묻지 않았고 있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고, 집과 전답을 버렸으며,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그들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만 따랐다. 다르게는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다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갈대아 우르를 훨훨 떠나야만 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져야만 했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그 라이프스타일은 오늘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은 한국 장로교회가 주님의 소명을 따를 때 지녀야 할 삶의 모습임이 틀림없다. 2천년 교회사에서도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의 자세는,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도 하나같이 강조되었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청빈이었다. 곧 가난한 자로 주를 따랐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주를 따를 때 영적으로 가장 홀가분한 상태, 주의 일을 할 때 걸릴 것이 없는 상태, 영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몸가짐을 의미한다 하겠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물질, 명예, 쾌락 그리고 권력에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사람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레11:44-45; 벧전1:16)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속물 권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채 속물이 되어 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바른 길을 가려면 자신을 바로 지켜 먼저 세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한국 교회는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는데,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가진 너무 많은 것들이 가야 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슬림화는 영적 갱신의 전제라 하겠다. 교회의 슬림화란 바로 교회가 청빈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영적 갱신을 위해 요구되는 전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성령에 이끌려 사막에서 금식하며 기도예 전념하셨다.(마4:1-11; 막1:12-13; 눅4:1-13) 마귀는 예수님을 물질,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시험했으나, 예수님은 간교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켰으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가장 홀가분한 상태, 사역을 위한 최상의 상태, 가장 가난한 상태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였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비로소 입을 열어 전파하셨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마4:17)였으며, 산상수훈 8복 중 첫 번째 복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눅6:20)임을 선포했다. 사실 한국교회의 초창기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초대교회적 순수성을 가진 모습으로 시작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1960년대 이후 급작스런 경제부흥과 함께 양적 교회성장을 누리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세상을 쫓는 모습은 도를 넘어 급기야 존경은커녕 세상의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제 순수하고 홀쭉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의 복귀가 21세기 한국교회를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어 줄 것이다. 보다 가난해지고, 작아지고, 순수하고, 몸집을 줄여갈 때 한국 장로교회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유혹의 사탄을 대적한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 한국 교회에게 중요한 지침이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4:10-11)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일군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는 일에는 보통 어려운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통일을 향하여 아니 통일시대 한국교회에게 부여되는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마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모습에로의 몸가짐과 자세가 전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영적 재무장의 굳은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 Ⅲ. 독일통일의 교훈

여기서는 독일통일에서 독일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한다. 그럼에도 필자의 여러 앞선 글 가운데서 수차 언급했기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독일통일을 ‘조용한 개신교 혁명’으로까지 일컫는다. 이는 독일교회가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는 일에 그 어떤 정치, 경제적 노력을 넘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교회로서 했다는 뜻이다.<sup>5)</sup> 독일교회는 정치적 분단을 대면할 때 나름대로 성경적 통일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교회가 동독을 대할 때 ‘그 특별한 유대관계’(die besondere Gemeinschaft)를 유지했는데, 정치와 이념을 넘어서서 독일교회는 복음에 입각한 관계를 잊지 않았다. 아무리 동·서독 간 냉전이 찾아와도 독일교회의 동독을 향한 입장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이 ‘특별한 유대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물론 교회를 향한 정치인의 성숙, 역으로 정치를 향한 교회의 성숙이 함께 해야겠지만, 이 ‘특별한 유대관계’를 향한 독일교회의 견고한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어쨌든 교

회는 교회의 길이 있어야만 하는 데,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정치와 이념의 영향을 쉬 받아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본다. 부화뇌동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보다는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조종을 받고 그 세상의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역으로 정치가 교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의 수하에 두어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독일교회는 여기서 확실하게 동독과의 특별한 관계를, 공동체 의식을 어려움에 처한 동족과의 형제의를 잃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특별한 유대관계’였다. 동독교회(BEK)의 헌법에도 명시되었던 ‘그 특별한 유대 관계’는 1990년 통일의 순간까지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었던 역사였다. 사실 동독 정권이 교회의 태도를 무시하며 가로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배경에는 서독교회의 지원이 동독경제에 실질적으로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동독을 향한 서독교회의 실천적 사랑은 독일교회 연합(EKD)에 의해 유지되었던 『디아코니아 재단』(Das Diakonische Werk)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뤄

질 수 있었다. 서독교회의 디아코니아 재단을 통한 동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이미 많은 글에서 제시되었던 대로였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독일교회는 ‘사회주의 속의 교회’의 현실과 아픔을 직시하며, ‘그 특별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섬김의 신학’, ‘성육신의 사랑’을 성경에 입각하여 실천하기를 분명히 했다. ‘사회주의 속의 교회’였던 헝가리 교회도 견지했던 ‘섬김의 신학’이란 이 땅에 ‘섬기는 자’(diakonos)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시고 친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며, 자신의 통치를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구체화하셨다는 것이다. 그 사랑을 독일교회는 동독을 향하여 실천하였는데, 그 사랑엔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었다. 물론 서독교회의 철저한 헌신과 희생이 동독을 향한 ‘그 특별한 유대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동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독일교회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명목 있는 지원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생각하였는데, 이는 동독교회가 서독교회에게 조금이라도 속박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해서였다. 둘째, 확고한 철학과 순수한 지원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주는 자의 편에서 이 정신은 절실히 요청되었다. 관용과 다양성에 대해서는 남다른 이해를 가지면서도 자신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예리한 비판의식을 잃지 않았다. 셋째, 지원의 다양성과 대담성을 가졌다. 지원은 금전 또는 물자로 이루어졌는데,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잊지 않았다. 넷째, 서독 정부도 참여한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재정적, 법

적, 그리고 관세에서 교회가 동독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돕고 배려했다. 서독정부의 독일교회를 위한 재정보조는 ‘내독관계 예산’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서독교회의 동독지원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통일 후에 이뤄졌는데, 일곱 가지로 제시되었다.

1. 동독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2. 동독의 외화획득에 도움을 주었다.
3. 어려운 동독의 물자조달에 도움을 주었다.
4. 정치적, 법적 장애가 극복되어 교회의 유대관계가 향상되었다.
5. 동독의 교회기관, 양로원, 병원 등 실무기관을 도울 수 있어 동족의 고통을 완화하였다.
6. 어려운 동독교회에게 힘을 주어 복음을 통한 중요한 삶의 원리를 사회주의에 제시하였다.
7. 결국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를 재촉했다.

독일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특별한 유대 관계’가 계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단지 특별한 인내와 겸손 안에서, 형제자매를 도울 만반의 준비와 능력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또한 계속 돕고자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독일교회는 말했다. 독일통일 후 디아코니아 재단의 책임자였던 노이캄 목사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자신들의 분단 하 동독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성령의 역사로 묘사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디아코니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의 교회에 지체가 된 여자와 남자들이 살아 활동하는 그 현장에서 말입니다.”<sup>6)</sup>



## Ⅳ. 한국교회의 통일 준비

### 4.1) 탈북주민의 교회적응

한국교회의 탈북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말하기 전에 교회적응은 과연 바람직했는지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형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에 관여했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자인한다. 한 마디로 말해 어려웠고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한국교회가 탈북주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물며 한국 사회에서의 그들의 적응이 어찌 성공적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탈북주민의 한국생활로의 적응여부는 통일한국에서의 사람의 하나 됨에 중요한 원리와 지혜를 부여한다. 탈북주민들의 신분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과 인간관계(relationship)의 상실에서 오는 사회적 박탈감,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충격, 정서적 불안으로 오는 한국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많은 전문적 숙고가 요구된다.

한국교회가 20년 가까이 나름대로 탈북주민들의 보다 바람직한 한국 적응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교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에 힘을 쓰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교회의 관심은 탈북주민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부분에 보다 긴밀한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교회는 먼저 그들을 물질적 도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 물론 그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 부분을 교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

은 국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교회도 힘닿는 대로 도와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상처 입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을 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와 준비로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인데,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이유는 한국교회가 이 일에 사전준비가 미약했을 뿐 아니라, 물신주의 사상이 한국교회 내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북한 사람을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였다. 또한 그들을 동일한 인간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가난하기 그지없는 고로 뭔가 실패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비성경적 인간관에 근거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난하기에, 잘못된 이념의 희생자이기에 저급한 인간으로 간주한 거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중국에서의 신앙생활 때문에 한국교회에 발을 닫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은 뭔가를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한국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탈북주민을 정당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들을 국외자 outsider로 만들어 정착을 어렵게 한 결과 그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15년 이상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는 조요셉<sup>7)</sup> 박사는 탈북주민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그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탈북주민을 향한 한국교회의 제대로 된 사역 없이 북한선교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 말한다. 거기다 탈북주민들의 바람직한 한국 정착 여부는 다가오는 통일한국에서 어떻게 남과 북의 사람들의 하나 될 것인지를 앞서 가르쳐주는 리트머스 지와 같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4.2) 사람의 통일을 준비해야

법과 땅이 하나 된 통일한국은 사람의 하나 됨을 위해 영역별로 많은 과제를 치밀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 중 한국교회는 통일한국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분야를 알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의 하나 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sup>8)</sup>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기에 통일 후 쉽게 하나로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나이브하고 근거가 불안하다. 물론 뭔가를 민족 동질성 위에서 추구할 수는 있을 것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바로 이러한 안일한 기대가 통일 후 사람의 하나 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R. 그린커는 이러한 사고가 비현실적 통일론을 형성하게 되어,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남북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진정한 통일의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인식하며, 이를 한민족 동질성의 신화라고 강하게 비판한다.<sup>9)</sup>

현재 한국교회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낭만적인 민족주의를 버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요구된다. 남과 북은 70년 가까이 다른 이념과 문화를 가지고 나뉘어져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곧 서로 다른 정체성이 재생산되어 버렸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남쪽은 자본주의 이념과 더불어 미국을 위시한 서구 문화에 길들여져 있으며, 북쪽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채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사실이

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점은 다른 둘 사이에 처절하고 철저하게 나누어져 더욱 큰 단절과 차이를 형성해 왔다는 사실이다. 민족성은 서로 교류를 통해 시간과 함께 형성되는데, 남과 북은 전혀 그렇지 못한 채 이질감을 키웠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의도적으로 서로가 다름을 연습해 왔는지도 생각해 볼 일인데, 그것은 서로를 적대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형성시킨 다름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sup>10)</sup> 그러기에 언뜻 보기에는 남과 북이 같은 언어, 식습관을 가진 민족이기에 처음에는 선뜻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는 예상 밖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 되기 위해 치밀하게 이질감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통일한국에서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의 정서적 통합을 위해 전문적인 사전 준비를 성경에 근거하여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이 성경적 요청을 물리치고 앞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할 때이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에 역점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 그런 후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통일 한국에서 사람의 하나 됨에 겸허하게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는 일이다. 여기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섬기는 훈련이 없을 때 한국교회는 또 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사실 독일교회도 통일 후 교회에로의 복귀의 불이 일어날 줄로 기대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대는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독일교회는 돈과 잘 교육된 목회자들만 있으면 분단 전 기독교국가 상태로의 복귀는



쉽게 이루어질 줄로 예상했으나 이는 일장춘몽과 같았다. 무엇보다도 반세기 가까운 기간 공산주의의 철저한 반기독교에로의 세뇌교육이 통일 후에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예는 한국 통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제2의 예루살렘’ 평양을 꿈꾸며 북한에서 교회에로의 복귀가 금방 행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과연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독일통일에서의 경우를 볼 때,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그러한 기대와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음은 사실이다. 한 예로 ‘북한교회재건운동’은 그러한 기대 위에 행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sup>11)</sup> 그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통일 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철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분단 하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북한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순수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실 북한선교라는 말 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사랑이 더 타당하다. 한 예로 사랑의교회(담임 목사 오정현)는 이 일을 하는 부서의 명칭을 ‘북한사랑선교회’(약자-북사랑)로 일컫는데 바람직하다 하겠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먼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야,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경우도 배고픈 자, 병든 자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육신의 떡만을 찾아 올 때 생명의 떡을 주고 싶었던 예수님도 그 점을 지적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교회는 복음 전파를 전제로 도와주는 일도 조심스

럽게 삼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순수하게 먼저 이웃을 섬기며 돕고, 그들에게 별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성경적이다.

#### 4.3) 한국 신앙고백 The Confessio Coreana를 만들어야

언젠가 21세기 세계사의 최대의 사건이 될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분명 한국교회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계교회 앞에「한국 신앙고백」(The Confessio Coreana)을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평양성에서 선포하는 것이다. 이토록 지난하게 처절하고 철저하게 나누어져 서로를 원수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던 남과 북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감사, 회개 그리고 비전을 담아 한국 신앙고백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 한국교회는 북한을 위해 많은 일을 긍정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죄악도 저질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거의 반세기 동안 공산당에게 당한 상처를 안고 한국교회는 남북분단에 대해 침묵을 해왔으며, 또는 분단을 넘어 하나 되는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위정자들의 정치놀음에 편승한 적이 적지 않았다. 곧 성경적 길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그 성경적 길을 어두운 세상에 제시하며 앞서 가기도는 잘못된 시대정신을 따라가는 자의 비겁함과 나약함을 보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분단 70년이 되어감에도 공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성경적 통일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입을 열어 변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라도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은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사에서 볼 때도 세계교회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럴 듯한 신앙고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혁신교회 전통에서 볼 때도 개혁신교회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성경에 입각한 자신들의 생생한 신앙을 고백해 왔다는 사실이다. 개혁신교회를 보면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개혁신교회에는 수없이 다양하고 많은 신앙고백들을 시대와 장소를 따라 나타났고, 그것을 개혁신교회는 고유한 유산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다. 개혁신교회가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3대 신앙고백으로는 「벨기에 신앙고백」(The Belgic Confession, 1561),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The Heidelberg Confession, 1563), 「도르트 신경」(The Dordt Canons, 1619)이다. 거기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 1647)을 추가하고 있다.

최근 한 예로 20세기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비극 그 자체였던 인종차별제도를 어렵게 종식시키며 흑백 인종 간 화해를 이루어내는 데 공헌했는데, 남아공의 화란 개혁신교회 총회는 1986년 「벨하 신앙고백」(The Belhar Confession)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새롭게 결성된 남아공 연합개혁신교회(United Reformed Church of Southern Africa[URCSA])의 ‘교회 일치를 위한 표준문서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벨하 신앙고백」은 남아공의 지난한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투쟁하던 그 어려움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였는데, 1982년에 알란 보삭(Allan Boesak)의 리더십 하에서 화란개혁신교회(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DRMC])에 의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였는데, 내용적으로는 ‘신앙에로의 부르짖음’과 ‘신실성과 회개로의 요청’이 근간을 이루었다. 한 마디로 인종차별정책은 복음진리

를 위협하는 무서운 죄악으로 ‘신앙고백적 결단’(status confessionis)을 요청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신앙고백은 인종차별의 죄악을 분명히 인식하며 민족적 결단을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sup>12)</sup>

그렇게 거창하지 않게 총 5항목으로 이루어진 「벨하 신앙고백」은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하나, 교회의 하나됨과 모든 민족과 나라들 사이의 하나 됨(Unity), 둘, 교회와 사회의 화해(Reconciliation), 셋, 하나님의 정의(Justice)이다. 「벨하 신앙고백」의 머리말은 “우리는 모든 개혁신교회들을 위해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단지 우리들만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세계 개혁신교회에게 뭔가를 행동하기를 요청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개혁신단인 CRC, RCA, 그리고 PCUSA가 이 「벨하 신앙고백」을 개혁신교회의 4번째 세계 신앙고백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한국의 교회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통일을 맞이했을 때, 아니 오늘의 복음진리가 도전받고 있는 분단의 극한 상황에서 마땅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너무도 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남북통일을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부터 서라도 통일한국에서 하나님과 세계교회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담아 고백할 「한국 신앙고백」을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한국 신앙고백」을 위한 Task Force(TF)를 구성해야

이를 위해 총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공교회적으로 「한국 신앙고백」을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할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이다. 이 TF는 그 분명한 하

나의 목적을 위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비로소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수 백 명의 사람들에 의해 거의 5년에 걸쳐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가슴 벅찬 남과 북의 하나 됨에로의 비전을 안고 뜨거운 기도 가운데 거룩하고 신중하게 성경적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분열의 과거를 회개하고 청산하면서 모이고 또 모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TF의 결성은 결국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불씨, 새로운 한국(New Korea)을 만드

는 불씨, 통일한국(United Korea)을 하나님의 공의 위에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비로소 한국교회가 남북의 분단이 오늘 한국교회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이 분단 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사의 역동적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세계교회사에 비로소 성숙한 교회로서 한국교회가 인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 거기다 통일한국에서 선언된 「한국 신앙고백」이 개혁교회가 기뻐하는 세계 신앙고백에도 채택되어지는 교회사의 쾌거를 이루기를 소망한다.

## V. 나가는 말

남북의 분단이 한국교회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길 소망한다. 한국교회에게 시험을 주셨던 하나님은 양과 더불어 이제는 한국교회의 성숙을 요구하신다. 일제 하 3.1운동에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국교회는 21세기 세계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될 통일한국에 무임승차하는 몰역사적이고 비성경적인 나태하고 게으른 교회로 비판받지 않기를 기도한다. 아무 준비 없이 통일한국에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무작정 뛰어드는 일을 한다면 한국교회는 제2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을 경고한다. 21세기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며 한국교회의 가장 무거운 십자가인 남북의 분단 극복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짐을 지는 진정한 교회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이 ‘조용한 개신교 혁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듯이 남북 분단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

험대로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남북의 허리를 잡고 힘을 못 쓰게 하는 녹슨 휴전선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계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이 이념에 발목 잡혀 있는 부끄러운 형국이 되기도 함을 부정할 수 없다. 사마리아를 향했던 예수님처럼 이제 과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찾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천국을 누리는 새 생명의 축제가 북한 땅에도 이뤄지게 하는데 소중한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21세기 한국교회가 이제 성숙한 교회로 세계교회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초막 셋을 짓고 적당히 안주하며 호화 호식하는 교회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2500만 인구를 가진 북한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억압을 모른 채하며 한국교회가 몰역사적이고 무정한 태도를 계속 가진다면 하나님은 축대를 옮겨 세계사적 과업을 한국교회가 아닌 다른 일꾼들을 불러들여 사용하실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에 우선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의 한 쪽을 사랑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한국교회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름 아닌 원수사랑임도 기억해야 하겠다. 보다 담대하고 다양하게 한국교회의 북한을 향한 복음적 사랑을 독일교회가 역사적으로 교훈하듯이 펼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는 중 한국교회는 작은 통일을 미리 맛보는 중 자연스럽게 큰 통일을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한다.

게다가 통일한국에서 가져야 할 꿈으로서, 한국교회는 교회사적 꿈도 가져야 할 것인데, 그것은 세계 개혁교회를 향한 「한국 신앙고백」을 준비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17세기 영국교회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총회에서 약 5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발표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세계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인정되었듯이, 21세기 세계사의 최대 사건이 될 한국 통일을 맞아 한국 장로교회는 넘치는 감사와 감격어린 마음으로 비로소 「한국 신앙고백」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는 그 「한국 신앙고백」을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수없이 나뉜 한국 장로교회가 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한국 통일을 향한 한국 장로교회가 지녀야 할 이 꿈이야말로 세계 교회사적이며, 개혁신학적 꿈이라 하겠다. Soli Deo Gloria!

다시 한 번 줄고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경적 비전을 가져라
2. 하나님의 숙제를 상기하라
3. 성경적 통일론을 만들어라
  - 십자가의 복음
  -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
  - 교회를 슬립화하라
4. 독일통일에서 교훈을 얻어라
5. 한국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라
  - 탈북주민의 교회정착을 실현하라
  -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라
  - 「한국 신앙고백」(The Korean Confession)을 만들라
  - TF팀을 구성하여 이 신앙고백을 준비하라



**심창섭 교수**  
역사신학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한국장로교와 통일” 논찬

### 1. 논문 개요

주 교수의 논문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성경적 조명이다. 둘째는 자신의 성경적 통일론을 독일 통일에 적용시켜 논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한국교회의 통일준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1.1. 서문에서

이 3 가지 주제를 다루기 위해 주도홍 교수는 서문에서 한국교회의 발전을 언급함과 동시에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해 어떤 자세(대안?)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총괄적으로 전개한다. 주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한국장로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다수인 한국 장로교회가 한반도의 남북 분단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엄청난 정신적·영적·국가적·재정적 문제를 간과한다거나 소홀히 해서 안 될 뿐 아니라,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게 무엇을 뜻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바로 인식해야 한다.”

주 교수는 서문에서 특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주목할 성장과 해외선교의 눈부신 활동에 도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동족의 구원과 통일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 교수는 한국교회는 남북 관계의 이념적인 갈등을 뛰어넘어 복음적 가치관으로 통일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논문의 내용은 성경적 통일론이란 주제로 이어진다.

#### 1.2. 성경적 조명에서

주 교수는 성경적 통일론을 4가지 소주제로 설명했다. 즉 1)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2) 사마리아로 향하신 예수님의 행동 3)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4) 그리고 교회의 슬림화를 통해 성경적 통일론을 제시한다.

1) 주 교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한국교회가 6.25를 통해 입은 동족상잔의 아픔과 고통이 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 교회는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의 원리를 따라 치유되어야 하며 동시에 북한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 미주

- 1)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서울: 예장출판사, 2008), 586장 1절.
- 2) 물론 신학적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나누어져야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분열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김영재, 『한국교회사』, (이레서원, 2004), 334-346.
- 3) 박명수,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과 연합의 방안”, 한국복음주의협의회, 2012년 2월 주재발표문, 8-9쪽.
- 4) 참고. 박정수, 『성서로 본 통일신학』, (한국성서연구소, 2010).
- 5) 참고.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주도홍, 『통일, 그 이후』, (서울: IVP, 2006).
- 6) 참고.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 이야기』, 67-93 : “동서독 교회의 특별한 유대 관계”.
- 7) 그는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물뎌동산교회의 담임목사이기도 하다.
- 8) 참고.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2000).
- 9) Roy Richard Grinker,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47-48.
- 10) 참고. 조용관, 김병로, 『북한 한 걸음 다가가기』, (서울: 예수전도단, 2002). “곰곰히 생각해 보면 북한이 상상하는 남조선이 허구이듯이 남한이 생각하는 북한은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한국 사회의 가장 그늘지고 소외된 극히 일부분을 남조선으로 상정하고 온갖 원한과 미움과 분노를 거기에 투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한이 희망하는 남조선은 지구상에 없다. 마찬가지로 남한은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북한으로 형상화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 그러나 북한이 보는 남한이 그렇듯 이런 북한은 허상이 아닐까?”(26)
- 11) ‘북한교회재건운동’은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빠른 보수적 한국교회의 일종의 통일운동이었다 하겠다.
- 12) 인터넷에서 「뽕하 신앙고백」을 찾아보라.

### 참고문헌

Roy Richard Grinker,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47-48.  
 김영재, 『한국교회사』, (이레서원, 2004).  
 박명수,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과 연합의 방안”, 한국복음주의협의회, 2012년 2월 주재발표문.  
 박정수, 『성서로 본 통일신학』, (한국성서연구소, 2010).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2000).  
 조용관, 김병로, 『북한 한 걸음 다가가기』, (서울: 예수전도단, 2002).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주도홍, 『통일, 그 이후』, (서울: IVP, 2006).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서울: 예장출판사, 2008).



끌어 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특히 로마서 12: 17-21절을 인용하면서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신앙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제 한국교회가 북한을 향해 가져가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 생명의 복음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미움도 버리고 아픔도 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아니 위해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원수사랑에서 그 절정을 제시한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를 자심으로 생명의 길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2) 주 교수는 사마리아로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사마리아를 북한으로 비교(21세기 사마리아 북한)하면서 한국교회의 경직된 북한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 주 교수는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를 정,반의 관계로 설정하고 설명하고 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진 유대인들(제자들)의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제자들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에서 해방되어 그들에 대한 변화된 신앙과 삶의 태도를 회복해야 하며 이것은 북한을 행한 성경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역사적 경험에서 발생한 북한에 대한 반목과 질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북한은 열악하고 비정상적인 사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북한을 위해

한국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된 그들은 한국교회가 타부시하며 미움과 타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며 선교의 대상,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여기서 한국교회는 21세기 사마리아 북한을 두고 가감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다.”

3) 주 교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같이 남한교회가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주 교수는 북한 정권을 강도로, 북한 주민을 강도 만난자로 비교하면서 인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다. 주 교수는 이 비유의 핵심은 강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라는 것이다. 주 교수는 한편으로는 북한을 정죄와 타도의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은 꿈수들의 수작이라고 말한다. 주 교수는 십자가의 복음은 강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치유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예수의 사마리아를 향한 행보를 통해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를 한국교회가 가져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들을 정죄하며 기독교적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어 소외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다시 바리새인적 우를 범하게 되며, 사람의 하나됨을 근원적으로 추구해야 할 통일의 아름다움을 한국교회가 앞서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강력한

만류를 뿌리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이룩하신 놀라운 예수님처럼 한국교회는 북한을 품에 안고 기도한 후 그가 누구이든지간에 우리가 가진 정죄와 판단의 칼을 내려놓은 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그 순전한 사랑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주 교수는 ‘교회의 슬림화’라는 주제에서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예수의 제자도를 무시하고 물질, 쾌락 그리고 명예를 중시여기는 영적, 도덕적 부패에서 탈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러한 세욕을 초월해서 사명을 다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일가친척을 떠났고, 교회사적으로도 소명을 받은 자들은 청빈의 삶을 살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다. 예수 자신은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후 마귀의 물질, 권력, 명예의 유혹을 물리쳤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공생애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주 교수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슬림화 현상이 남북 분단을 해소하는 어려운 문제에 처한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것이다. 주 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언급한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성경적 이론을 제시한 후 실제적인 사례로 독일 통일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 1.3. 독일 통일의 교훈에서

주 교수는 서독교회가 독일통일에 기여한 바를 ‘조용한 개신교 혁명’으로 표현한다. 주 교수는 독일교회가 정치적 이념적 관계를 뛰어 넘어 서독교회와 복음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주 교수는 ‘특별한 유대관계’라고 인용한다. 즉 독일의 동·서 교회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 형제적식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디아코니아 재단』(Das Diakonische Werk)을 통해 서독교회의 지속적인 동독교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디아코니아적 지원은 예수의 섬김의 정신에서 나온 사회주의 속의 교회에 대한 섬김의 신학으로 이해되어 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원칙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명목 있는 지원이었고, 확고한 철학을 근거한 순수한 지원이었고, 다양성한 지원이었고 그리고 서독 정부도 참여한 지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평가가 통일 이후에 있었는데 동독경제에 도움을 주었고, 어려운 동독의 물자조달에 도움을 주었고, 동족의 고통을 완화시켰고, 정치적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복음을 통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등 동독공산권의 붕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서독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낸 데 대해 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일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특별한 유대관계’가 계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단지 특별한 인내와 겸손 안에서, 형제자매를 도울 만반의 준비와 능력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또한 계속 돕고자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독일교회는 말했다. 독일통일 후 디아코니아 재단의 책임자였던 노이캄 목사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자신들의 분단 하 동독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성령의 역사로 묘사했다.”

#### I. 4. 한국교회의 통일준비에서

주 교수는 한국교회의 통일준비에서 탈북자의 교회 적응, 사람의 통일 그리고 한국교회의 신앙고백 등을 다룬다.

1) 탈북자의 교회 적응에서 주 교수는 한국교회는 탈북자의 교회적응 정책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탈북자의 적응에 실패했다면 그들의 사회적응도 당연히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주 교수는 실패의 원인은 교회가 물질적인 면의 도움을 중시하였고 정신적, 영적 도움을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 자체가 물질주의에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탈북자들의 정착에 대한 고민은 통일 이후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할 과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이일에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이다.

2) 사람의 통일에서 주 교수는 통일은 법과 땅만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남과 북이 70년간 서로 다른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적대적 이질감은 비록 동족이란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해결될 수 없는 서로 간의 장벽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벽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성경적 인간관계의 가르침을 통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적 인관관계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주 교수는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에서 통일 후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서 작성은 역사적 당위성이며 개혁교단의 전통임을 주장한다. 한국교회가 통일을 맞이하여 세계교회 앞에 남북교회의 공동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인 것이다. 특별히 서로 적대관계에서 미워했던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신앙공동체로 태어남을 선포하는 것이다. 주 교수는 이러한 사례는 개혁교회의 역사를 통해 존재 해 왔고 최근의 사례로는 1986년 남아공화국의 신앙고백서를 언급하고 있다. 신앙고백서의 선포는 한민족의 통일이 곧 교회의 통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말미에 이 중요한 공교회의 신앙고백서의 선포를 위한 TF(Task Force)을 제안하고 있다.

#### 평가

1. 주 교수의 [한국장로교회와 통일]은 주제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실제적인 사례, 그리고 적용을 다루어 논문의 형식을 잘 갖추었다.
2. 주 교수의 논문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의 통일에 대한 자세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3. 주 교수는 통일 후 한국교회의 신앙공백서 작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개혁과 교회의 전통을 전승한 필요한 조치로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4. 주 교수의 논문은 기독교통일학회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통일과 교회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물로서 한국교회의 통일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주 교수의 논문에 더 이상 부언할 평가의 여지가 없지만 논찬자의 미력한 소견을 아래와 같이 열거해 본다.

1. 주 교수는 [한국장로교회와 통일]이라는 논제로 다루면서 한국장로교회와 한국교회를 구분 없이 사용하므로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즉 한국장로교회와 통일을 다루는지 한국교회와 통일을 다루는지 분명하지 않다.
2. 주 교수는 [한국장로교회와 통일]을 다룬다면 장로교의 에큐메니즘을 조명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3. 주 교수는 장로교의 대의 정치적 성격을 반추하여 북한의 독재정권이 장로교 정치원리에 반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주 교수는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언급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요한 4장)에서 유대민족의 통일에 대한 예수의 통일정신을 주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주 교수는 독일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사례로 설명하지만 동독과 오늘날의 북한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 그리고 사회적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6. 주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과 관계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의 통일론은 기독교의 원론적인 견해에 머물고 있다.
7. 주 교수는 남북 간의 [평화협정체결]의 3단계 통일방안 등 정책적인 문제들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간과하고 있다.



장차남 목사  
증경총회장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장로교회가 걸어온 길
- III. 총회가 정체성을 정립할 일
- IV. 예정 총회가 지향할 목표
- V. 나가는 말

## 예정총회 100년과 나아갈 방향

### I. 들어가는 말

이땅에 주재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선교사공의회 시대, 독노회시대에 잇대어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되고 어언간 100주년의 해를 맞게 되었다. 돌아보건대 당시 예정총회의 설립은 치욕적 한일합방으로 국권을 상실한 이 나라, 이 겨레에게 절망중에 소망의 빛이요 고목나무에 움돋은 은총의 싹이었다. 그

러나 1912~2012년의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이요 굴절과 기복이 심했던 시대였다. 동시에 예정총회가 걸어온 지난 100년사 역시 한반도의 민족사와 무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영향을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정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 II. 한국장로교회가 걸어온 길

### 1) 장로교 선교와 독노회 조직

한국에 공식입국한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는 1884년 9월 20일에 입국한 장로교 의료선교사 알렌이다. 목회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이듬해 4월 3일에 부산에 입항하였고 제물포 상륙이 4월 5일이었다. 하지만 영국의 장로교 선교사 로스에게 만주에서 세례받은 서상륜에 의해 황해도 장연군에 소래교회가 1983~4년에 이미 설립되어 그 교인들 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선교사 입국과 활동보다 토착교회가 앞서 존립했고 그것이 한국장로교회의 효시이다.

이렇게 출발한 장로교회가 선교사공의회 시대를 경과하여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당에 선교사 회원 38인중 33인, 조선인회원 40인중 36인이 참석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를 설립했다. 당시의 장로교 4개 선교부인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캐나다장로교, 호주장로교 총회에 청원하여 가결을 얻어 설립하되 선교사공의회장 사무엘 마펏 선교사의 사회로 시작했고 마펏 목사가 첫 번째 노회장이 되었다. 서기에는 당일 밤에 목사가 될 7인 목사중 한 분인 한석진을 선정했다.

이 일은 한국 장로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일로 그동안 선교사를 파송한 4개교단 총회의 지도와 관할하에 있었으나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로 독립했음을 뜻한다. 흔히 독노회라 하면 전국교회에 노회가 하나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나 사실은 한국교회로 독립하여 설립됨을 뜻한다. 이 사실은 한석진 목사가 작성하여 길선주 목사가 제1회 노회 말미에 낭독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회록 서문>에 잘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보면 끝부분에 “…… 주 강생 일천구백칠년

구월 십칠일 오정에 한국노회를 설립한 후 장로회 노회라 하셨으니 이는 실로 대한민국 독립노회로다. 할렐루야 찬송으로 성부 성자 성신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세 아멘”이라고 했다. 1884년 이 땅에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이래 1907년까지는 선교사들과 그들 총회 산하의 한국장로교였으나 독노회 설립을 통해 비로소 한국교회가 독립교단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설립은 1912년이나 교단설립은 1907년을 조직년도로 봐야 한다. 부연하여 이 때에 조선이라 하지않고 대한이라 하였음은 독노회의 시발인 1907년이 대한제국 시대였기 때문이다.

### 2) 광복전 예정총회의 공헌과 과오

1911년에 모인 제5회 독노회에서 내년에 총회를 결성키로 하고 7대리회를 7노회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하여 전라노회를 필두로 경기충청노회, 황해노회, 경상노회, 남평안노회, 북평안노회, 함경노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평양 경창문 안 여자성경학원에서 창립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역사적인 예정총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예배에선 독노회 회장이었던 레이놀즈 목사가 ‘장자회’(長子會)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으며 본격적인 회무는 9월 2일에서 4일까지 평양 서문밖 장로회신학교에서 회집하니 참석회원 목사가 96명(선교사44명, 한국인 목사52명)이고 장로가 126명으로 모두 221명이었다. 임원에는 회장 언더우드 선교사, 부회장 길선주 목사, 서기 한석진 목사, 부서기 김필수 목사, 회계 블레이 선교사, 부회계 김석창 목사를 선출하였다. 한국장로교 최



초의 목회선교사인 회장 언더우드 목사는 취임설교에서 세가지를 피력하였으니 먼저 그리스도와 신자, 신자와 신자 사이는 늘 연합되어야 하며, 다음 이 악한 세상에 우리 믿는자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낼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 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릴 각오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기적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탄된 지 2년의 암울한 시대여서 뒷부분은 자못 비장한 말씀이었다. 이 때의 교세는 교인수 127,228명에 예배처소 2,054개였다.

이렇게 조직되어 장강대해(長江大海)로 출범의 닻을 올린 예장총회는 일제의 암흑기에 공현도 있었고 과오도 저질렀다. 우선 공현으로 ①예장총회는 구령전도에 주력했다.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과 1910년의 100만명구령운동, 독노회설립시에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기로 한 일과 총회설립시에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목사를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로 파송기로 한 일은 모두 구령전도와 복음선교란 교회의 기본사명에 충실했음을 보여준다. 독노회 제5회 회록의 남평양노회 보고서에 “전도하는 것은 백만명을 얻기 위하여 예배당마다 부흥회를 하며 열심히 전도하였고 또 여러 회당이 큰 곳으로 모여 부흥회를 열심히 하며 개인 전도를 하였고, 대중학도가 삼천 전도대를 조직하여 여러 지방에 다니며 열심히 전도하였고 전도인을 세운 것은 전과 같다”라고 하였다. 특히 네비우스 선교정책 (Nevius method)을 채택하여 자치(self-government), 자급(self-support), 자교육(self-educatin), 자전도(self-propagation)를 적용하므로 선교효과는 물론 교회자립의 기틀을 다졌다. 나아가서

식민지 국민이 가지는 무기력과 의존심을 탈피하여 자치력과 자립심을 키우도록 했다. ②예장총회는 근대화에 선구자였다. 항용 근대화는 서구화를 의미하고 서구화는 기독교화를 뜻하는만큼 기독교는 근대화의 상징이요 통로였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중심에 장로교가 자리했다. 최초의 주재 선교사 알렌을 통해 서구식 병원으로 광혜원(월여후에 제중원으로 개칭)이 설립되었고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라 목사의 입국으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교회설립과 병행하여 도처에 학교를 설립했다. 장로교의 경우 서울의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 평양의 숭실학교와 숭의여학교, 대구의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 등을 필두로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전문교육기관으로는 서울의 세브란스의학교와 연희전문학교,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와 조선장로교회신학교 등을 설립하여 신교육기관으로 민족과 사회계몽을 선도했다. 한국기독교의 양대 산맥인 감리교와 장로교 중에서 장로교가 강세인 것은 장·감사이에 선교구역을 나눌때에 전국 13도 중 감리교가 4도, 장로교가 9도인 사실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한글이 성경·찬송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문서, 음악, 체육 등의 보급에도 교회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③예장총회는 독립정신을 고취했다. 총회설립 7년째인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시작된 이른바 기미년 3·1만세운동은 기독교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 불쏘시개인 2.8 독립선언 역시 일본 동경의 조선 YMCA 회관에서 윤창석 목사의 사회와 기도로 대회가 시작되어 기독교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3·1절 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인중 서명할 때에 천도교의 3세교주요 연장자인 손병희가 첫 번째 서명자가 되고 기독교에선 장로교 대표로 길선주 목사가 두 번째 서명

자가 되었으며 다음 감리교를 대표하여 이필주 목사가 세 번째 서명자가 되었고 그다음 불교를 대표하여 백용성 선사가 네 번째 서명자가 되었다. 그 뒤로는 가나다 순으로 서명했으니 기독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다. 기독교 대표중엔 목사가 12명, 장로가 2명으로 박희도와 이갑성만 아니었다. 또한 군중동원도 기독교측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피해자, 체포된자의 수도 역시 제일 많았다. 그 당시 통계상으로 천도교 300만명에, 기독교 235,000명의 교세였으나 체포된 숫자가 천도교 2,283명에 기독교 3,373명이었다. 여기에 대표적 인물이 이화학당의 학생 유관순 열사였다. 뿐만아니라 3·1운동의 근본정신은 기독교 정신에서 표현되었다고 독립선언문 기초자인 육당 최남선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또 기독교인과 수시로 상종하는 동안에 자연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 사람인데다가 독립, 자유, 평등 및 정의와 같은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조국과 민족의 일대 치욕인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을 거쳐 일제시대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국내외의 독립운동에 몸바친 민족지도자들 중엔 기독교도의 비중이 매우 컸다. 그 결과 8.15 해방과 정부수립의 공간에서 기독교가 정국의 중심을 차지했다.

또한 과오로는 예장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일이다. 1938년 9월 9-15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회집한 제27회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의 사회로 신사참배를 가결한 일은 장로교 총회 100년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빌라도의 재판같은 일대 오점이었다. 물론 경남 노회는 동년 6월에 해운대 교회에서 최상림 노회장의 사회로 신사참배 반대 결의를 하였고 속칭 평양신학교를 비롯하여 장로교 선교사들이 설립,운영하던 미션계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였으며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끝내 순교를 하였으며 더러는 5-6년의 옥고 끝에 일제의 패망으로 출옥성도가 되었다.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던 해인 1938년 3월 16일에 졸업한 평양신학교 제33회 졸업앨범에 졸업생 김양선(교회사가)이 쓴 시 한편이 부착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 시대, 신학도의 비장한 결의를 보여준다.

#### 〈도마스 목사 순교암 “썬바위”〉

-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순교자의 물들인 순교암이라 내가 이 반석위에  
조선교회를 세우리라  
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후자는 적어도 그의 뜻이시라
  - 오늘 교문을 나서는 뜻같은 동무들아 우리의 역사가  
내일에 속하기전에 순교암 썬바위를 아름에 안자  
영원히 붉은 도마스의 산피에 몸을적시자  
죽음을 이긴 그의 용기를 힘껏 호흡하자
  - 아- 장할손 38년에 40도마스의 역센 행진  
이 해가 복되지 않다 뉘하며 내일의 복지조건을  
마다 할이 그 뉘랴  
부디 우리의 이름은 40도마스 아- 뜻좃아 깊어라  
38년에 40도마스  
(※ 졸업생 40도마스중에 순교자 손양원이 들어있다)
- 신사참배를 가결한 제27회 총회이후 28회 총회록에

회기중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연맹’ 결성식을 거행한바 식순 첫머리에 궁성요배와 국가봉창이 들어있다. 제29회와 제30회 총회 개최예배엔 회장지도로 국가의식을 거행한 후 찬송, 기도, 성경, 찬양, 강도, 기도순으로 되어있다. 총회가 이러하니 개교회도 주일 예배시에 일제 정보원이 상주하고 있어 황국신민서사와 동방요배가 예배에 선행해야 했다. 하지만 구차하게나마 유지하던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942년 10월 16-20일까지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제31회 총회를 모이고 막을 내리는 비운을 맞았다. 그것은 조선장로교 총회를 해산하고 일본기독교단에 예속시키고자 통합케 하였기 때문이다. 1943년 5월 7일 서울 신문내교회에서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 창립총회를 열었고 감리교회는 동년 8월에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으로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안식교와 성결교는 동년 12월에 각각 자진해산 형식으로 해산되었다. 그러다가 조국광복을 한달여 앞둔 1945년 7월 19일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장로교와 감리교란 구분없이 단일교단이 되었다. 한국교회가 일본기독교에 예속된 1943년에 장로교회인 광주중앙교회에 감리교 신학자인 정경옥 목사가 부임하여 담임목회를 한바 있다. 과연 일제말 3년은 예장총회 부재의 참담한 기간이었다. 이 어간에 지교회들도 일제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이곳 저곳서 자진이란 명목으로 교회를 해산하고 예배당을 폐문했다.

내가 신앙에 입문한 상주교회도, 첫 담임목회한 해운대교회도 예배당 폐문의 아픈 역사를 지닌 교회이다. 당시에 서정교회란 이름을 가진 상주교회의 경우 감옥에 갇던 담임목사가 출옥함과 동시에 교회문을 닫았으니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참고로 당시의 정황을 이해키 위하여 그때에 신문에 난 기사를 아래

에 그대로 옮긴다.

교회에 대한 갱생의 중

군민의 도장으로서 발족한다

#### 상주서정교회 곧 해산

(尙州) 상주 성결교회 급 함창 성결교회는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해산을 했으나 상주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가진 북장로파 예수교 서정교회도 목사 新井勳의 영단에 의해서 대동아전쟁이 종식에 이르기까지 교회 일체의 행사를 중지 할것으로 되어 9월 9일 동 교회당에 있어서 엄숙한 중지식을 거행했으나 교회당은 금후 상주군민의 도장으로서 사용하게 되어 결전하에 있는 시국을 인식하고 다른 교회에 숭선하여 중지식을 행하므로서 진실로 황국신민으로서 생산증가에 매진하려는 교도의 진정이야말로 예수교 교도에 대한 산모범으로서 각지에 산재하는 예수교에 있어서도 이것을 닮아 속속 해산 혹은 중지를 하여 국가의 요청에 응함을 희망하는 것이다. 중지식에 있어서 아라이 목사의 애찰(挨拶) 선언문 낭독은 다음과 같다.

#### 선언문

박목사의 애찰(挨拶) 〈본 예수교회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오늘 이 자리에 오늘자에 중지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 다만 이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지금은 결전시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즉 미영을 곧 타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성전(聖戰)이 진정됨에 따라서 살수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우리 예수교회도 결전태세로 들어가서 정상의 예배당 행사는 평화시대에 하는것이며 현하에 있어서는 성전완수를 위해서 인적,물

적인 결속과 직책완수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교도들은 안심하고 한가히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소비하는 예배를 보는것은 황국장병에 대해서 면목없는 이때입니다. 우리들은 종래의 모양을 버리고 진실한 황국신민 으로서 생산증산에 매진하겠음과 공히 성전완수를 위해 예배당에 있어서 행사를 중지하게되었음을 이에 중지식을 거행한 지금이 올시다.

#### 아라이 목사 선언문 낭독

대동아전쟁 결전하 일본 기독교 장로교단 상주읍 서정교회 교도일동은 미,영 격멸의 결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에 대동아 전쟁이 종료될때 까지 교회의 일체행사를 중지하고 황국신민으로서각각 그직장 혹은 봉공에 충실해서 필승신념의 양양과 생산증강에 매진함을 기약함.

소화(昭和) 18년 9월 9일 (1943.9.9)

서정교회 교도일동(西町教會 教徒一同)

### 3) 광복후 예장총회의 성장과 분열

8.15 광복을 맞아 한국장로교회는 1946년 6월 11-14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남부대회란 이름으로 제 32회 총회를 열어 예장총회를 복구했다. 하지만 남북의 분단으로 피난노회들이 생겨남에 따라 오늘날까지 헌법에 없는 무지역노회 사태를 빚으므로 예장총회의 행정적 난맥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지금은 정체상태이지만 1980년대에 이미 천만성도의 시대에 진입했다. 그 중에 장로교회가 70%를 상회하는 분포의 성장으로서 과연 한국교회가 이렇게 경이적 성장을 하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 분석을 요한다.

① 한국인의 종교적 감수성과 적응력을 들 수 있다. ② 복음주의적 신앙경향을 생각할 수 있다. ③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택한 점이다. ④ 민족의 수난과 위기의식을 말할 수 있다. ⑤ 사회참여와 선구자적 역할을 들 수 있다. ⑥ 사회변동과 물랑팽창을 들 수 있다. ⑦ 산업사회에서 정신의 황폐화를 들 수 있다. ⑧ 대형집회와 민족복음화 열정을 꼽을 수 있다. ⑨ 미국 및 서방국가와의 연대 관계를 빼 놓을 수 없다. ⑩ 한글을 공용문자로 하는 단일언어 사용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에 따른 폐해도 생겨나므로 종교의 역기능적 현상이 점증되어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오게 되었다. 교회의 급성장에 따른 문제점들로는 ① 일부 교회의 기업화 현상이다. ② 목회의 세속화 현상이다. ③ 신앙의 무속화 현상이다. ④ 체질의 동질화 현상이다. ⑤ 교회의 무력화 현상이다. 이렇게되니 한국교회는 통제불능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므로 중심을 잃은 거대집단이 되고 말았다.

다음은 광복후 신앙과 신학문제로 내부갈등을 겪으면서도 총회가 하나로 유지해 오다가 6.25 동란의 와중에 급기야 교단분열이 시작되어 지금은 한국에 200여 장로교단이 산재하여 사회혼란의 동인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느정도 명분을 갖춘 1950년대의 분열에 대해서만 약술코자 한다. 그 이후로는 자생하였거나 인위적 규합에 의해, 또한 특정인이 세운 신학교 까닭에, 그리고 교권 분쟁으로 인한 열패감 때문에 생겨난 교단들이기 때문이다.

첫째, 고신측 분열이다. 해방 후 평양 산정현교회를 시무하던 출옥성도 한상동 목사가, 1946년 그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한국 교회를 지도할 신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역시 출옥성도인 주남선 목사 등과 더불어



어 박윤선 목사를 교장서리로 하여 1946년 9월 20일에 고려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원래는 박형룡 목사를 교장으로 선임하였으나 만주 봉천에 있는 그의 귀국이 늦어지자 임시 체제로 개교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옥성도들과 경남노회 일부 교권세력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제48회 경남노회는 고려신학교에 제동을 걸었고, 한상동 목사는 경남노회에 잠정탈퇴를 선언하여 교계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결과 노회장 김길창 목사 등 임원들이 물러서게 되었다.

이때에 박형룡 박사가 귀국하여 1947년 10월 14일 고려신학교 제1대 교장직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전국교회를 배경으로 주한 4개 선교부와 연관을 가지며 총회신학교로 승격시키겠다는 박 박사의 개방적인 입장은 기존 교회구조에 불신감을 가진 출옥 성도 및 그들을 지원하는 메이첸 계통의 선교사들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1948년 4월 박 박사는 조선신학교를 견제하고 한국교회의 신학적 주도권을 확보코자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이에 경남노회는 박 박사의 신앙노선을 지지하며 고려신학교의 인정취소를 결의하였다. 한편 1948년 제34회 총회와 1949년 제35회 총회는 거듭 고려신학교와 총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천명되었으며, 6.25 전란의 와중에서 1951년 5월 24일 부산 중앙교회당에 모인 제36회 속회 총회는 경남노회 분류에 대하여 고신측이 제외된 경남노회를 승인함으로, 고신파는 한상동 목사를 회장으로 경남 법통노회를 조직한 것이 고신측 분열의 발단이다. 그리하여 1952년 9월 진주 성남교회당에서 고신측 총로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1954년 4월 제5회 총로회를 마지막으로 동년 9월 그 동안 조직된 6노회 총대들이 부산남교회당에 회집하여 총로회를 총회로 개편하고 총로회

회수를 총회 회수에 가산기로 한 것이 고신파 총회의 공식 출범이다.

둘째, 기장측 분열이다. 평양신학교가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항거하여 1938년 9월 20일에 문을 닫은 후, 이내 1939년 총회주도로 채필근 목사를 교장으로 한 “후평양신학교”가 평양에서 시작되었으며, 1940년에는 서울 승동교회당 하층에서 승동교회 김대현 장로의 설립으로 기장측의 모태인 조선신학교가 김대현 장로를 학원장으로 김영주, 함태영, 이정로, 윤인구, 김재준 목사를 교수로 하여 시작되었다. 경기도 지사의 강습소 인가를 받아 문을 연 조선신학교의 설립목적은, “복음적 신앙에 기해서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재능 있고 쓸모 있는 황국의 기독교 교역자를 양성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8.15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되자, 조선신학교는 자연히 남부총회의 직영신학교가 되었다. 그러나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교수권의 신학내용이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을 허용하고 성경유오설을 주장하므로, 학생들중 51인이 1947년 4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제33회 총회에 김재준 목사의 교수내용을 적시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김재준 교수는 1946년 ‘새 사람’지에 “정통신학은 신신학보다 더 교묘하게 위장한 실제적 인본주의요 정통적 이단이다”라고 도전할 정도로 진보적이었다. 이에 총회는 김재준 교수를 1년간 미국에 유학케 하고 보수적 교수들을 보강한 조선신학교 개조안을 결의했으나 조선신학교측의 적극 반대로 1948년 6월 박형룡 박사를 임시교장으로 하는 장로회 신학교가 신설되었고, 1949년 제35회 총회는 장로회 신학교의 총회직영을 결정하므로 총회 안에 보수와 진보, 두 개의 직영신학교가 존속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51년 부산 중앙교

회당에서 모인 제36회 속회 총회에서 권연호 총회장의 사회로 양 신학교의 직영을 일괄 취소하고 단일 총회 직영신학교를 신설한다는 결정을 내렸고(설립이사회/이사장:권연호, 서기:노진현, 회계:김광현), 1952년 4월 대구 서문교회당에서 모인 제37회 총회에서 총회의 결정에 굽히지 않는 조선신학교측을 제동, 선도하기 위해 성경 유오설을 주장한 김재준 목사를 경기노회에 명하여 면직케 하고, 서고도 선교사는 본국에 소환을 요청키로 결정했으며, 1953년 4월 대구 총회에서 전회(前會)의 결정에 따라 노회가 총회의 지시를 시행치 않았으므로 명신홍 총회장이 직접 면직을 선언하였다. 이에 1953년 6월 10일 서울 조선신학교 강당에서 호헌총회를 모임으로 기장측 분열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캐나다 선교부가 동참했다.

셋째, 통합측 분열이다. 1956년 9월 승동총회 때에 총대 100여명이 연서하여 ‘W.C.C. 탈퇴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한국 N.C.C. 총무인 유호준 목사는 “W.C.C.를 탈퇴할 수 없다”는 장문의 성명서를 인쇄 살포하였고, 한국 NAE. 총무인 조동진 목사는 “W.C.C.를 탈퇴해야 한다”는 반박문을 기독교보에 실었다. 이들의 논쟁은 두어 번 더 반복되었으며 W.C.C.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총회에서는 1957년 에큐메니칼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보고하게 했는데, 그 조직은 위원장 한경직, 서기 정규오, 위원 안광국, 황은균, 전필순, 유호준, 박형룡, 박병훈 목사로 되어 있어 찬반이 4대4이다. 세계교회운동에 대한 개방적 입장과 비판적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1958년 박형룡 박사는 신학지남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리와 목적’이란 논문을 발표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의 자유주의 세력과 교회 합동의 구경적 목적을 비판했다.

1959년 제 44회 총회가 대전중앙교회당에서 회집하였을 때 경기노회 총대권 문제로 개회도 못하고 진통을 겪다가 근소한 표 차이로 임시노회측 총대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124대 119, 기권 5표로서 중립을 지켜야할 선교사 23명이 가세한 결의였다. 이 결의에 대하여 정기노회측이 불복하고 소원장을 내므로 회장이 그것이 유효함을 선언하고 정치부와 증경총회장에게 맡겨 보고, 처리케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장내 소란으로 회장이 사무진행에 대한 대책을 증경총회장들에게 맡겨줄 것을 요청하여 거기에서 동년 11월 24일에 새문안교회당에서 모이되 경기노회 총대는 다시 투표해서 오기로 정하여 본회에서 받았다. 이에 총회장이 정회를 선언했으나 안광국 목사 등 일부가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낭독하고 임원불신임 안을 낸다면서 자의적으로 가부를 묻고 회의를 계속한다 하였고, 대전중앙교회에서 장소 사용을 허락지 않으므로 야간열차 1량을 빌려서 동조하는 총대들을 서울로 수송하여 연동교회당에서 증경총회장 전필순 목사의 사회로 총회를 계속하였으니 이것이 소위 연동총회이다. 하지만 당시 임원들 중 회계, 부회계를 제외한 전 임원과 총대들이 그대로 11월 24일에 새문안교회 대신 승동교회당에서 회집하여 총회장 노진현목사의 사회로 속회 총회를 한 것이 승동총회이다. 이때의 형편은 막강한 선교부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승동측 총회가 연동측 총회보다 훨씬 강세였고 증경총회장도 9대 2로 승동측 총회를 지지했었다.

이렇게 되니 당황한 것은 불법 이탈한 연동총회로서 궁여지책으로 한국교회의 분열을 마음 아파하는 교회의 정서를 이용하고 일부는 선교사들이 앞장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회유하여 1960년 2월 17일 새문안교회



당에서 소위 통합총회를 모이게 되었으며, 이때에 승동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순천 노회의 나덕환 목사가 거기에 합류했고 부서기로 있던 경북노회의 김삼대 목사가 거기에 동참했으나 후자는 거래의 의혹이 있음과 그 후에 본인 결과도 좋지 않았다. 그러므로 통합 총회가 허구인 것은 한번 파회한 총회를 다시 하였음과 교단대 교단의 통합이 아니라 일부가 개별적으로 묻혀나간 것이어서 기만일 뿐이다.

하지만 승동총회는 고신측과 신앙이 같은데 나누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양 교단 대표들이 합의하여 양측 총회에서 정회하고 1960년 12월 13일 승동교회 당에서 합동하여 총회를 하였기에 진정한 합동이며 합현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사실을 적시함은 산신양보다 죽은 족보를 챙기려는게 아니라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당대나 후대에 바른 입장정리가 필요하

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딤후3:9)고 한 성경말씀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총회는 교단대 교단 통합도 아니면서 몇 사람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공연히 총회만 한 차례 더한 것이고, 합동 총회는 그야말로 교단대 교단의 교섭과 합의, 양 총회에서의 승인과 정회, 합동총회로 이어졌으니 합헌적 교단인 것이다.

이상의 교회 분열을 살펴보면, 고신파는 순결문제로, 기장파는 신학문제로, 통합파는 연합운동 관계로 나누어졌으나, 여기에는 교권과 지방문제도 다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해방 후 조선신학교가 정통적 신학 입장에만 있었어도 한국교회는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보다 안정성 있는 길을 가지 않았겠는가 여겨진다.

### Ⅲ. 총회가 정체성을 정립할 일

총회설립 100주년을 기하여 예정총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정립함이 중요하다. 교단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방향설정과 일체감 조성 및 도전과 응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1) 역사정립이 필요하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장로교회가 세워진 일과 교단이 형성되고 총회를 조직한 일,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한국장로교회의 공과에 대하여와 총회분열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정총회가 어떻게 적통인 장자교단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체

계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할 수 있겠음 바른 역사정립이 긴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하여는 통합측의 분열로 선교사들과 결별하였다 하여 44회 총회 이전의 선교사들 사역과 역할을 소홀히 다루어서 안된다. 오히려 총회회관을 새로이 건립할 경우 정체불명의 비전센터라 하기보다는 제1회 총회장인 언더우드 기념회관으로 명명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총신대학교에는 평양신학교 설립자 사무엘 마펏과 최초의 한국인 교장 박형룡 을 기념하는 건물이나 홀을 마련하고, 졸업생 중 주기철, 손양원 등 만인이 공감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걸출한 동문들을 기념하므로 지금까지 105회

업생을 배출한 총신의 역사적 무게를 보여줌과 동시에 후학들에게 격려와 귀감이 되게 해야 한다. 한편 총회 회관에는 역사기념홀을 두어 지난 역사의 각종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예정총회와 한국교회가 걸어온 자취를 관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2) 신학정립이 필요하다.

21세기 한국장로교회는 교회의 터전이요 골격이랄 수 있는 신학의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리와 예배와 생활의 근간이며 지침으로서 신학적 입장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신학의 근본이 ①신본주의 ②성경중심 ③교회위주가 됨을 요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에 입각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성경의 절대권위 사상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 확인과 확립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현하 한국교회는 탈신학화 경향으로 치닫고 있다. 개신교의 전통인 성경적 신앙의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럴때에 예정총회는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한국장로교회는 성경을 토대로 한 칼빈주의 개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수용하는 영미 장로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는 교단이다. 한국에서 활동한 장로교 4개 선교부 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중심이었고 미국 북장로회 교단의 중심 신학교가 프린스턴이었기 때문에 맥코믹 신학교 출신 선교사들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도 신학적 영향은 구 프린스턴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구 프린스턴의 학풍과 신학전통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한국적 신앙정서와 전통에 맞게 접목하여 신학적 봉우리를 이룬 신학자가 박형룡 박사이다. 그가 당 80세인 1976년에 ‘한국장로교

회의 신학적 전통’이란 신학지남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표명했다. 이는 유럽대륙의 칼빈개혁주의 신학에 영미의 청교도주의를 가미하여 가진 장로교회가 우리의 뿌리요 전통인 것을 강조함인 것이다. 임직식 서약문에 들어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 요리문답이 한국 장로교회 신앙의 근간인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함이었다. 더불어 그의 신학을 사변적이 아닌 생동적이고 활력있게 하는 것은 주요 다섯가지 기초가 ① 성경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신념 ②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 ③ 주일성수와 경건생활 치중 ④ 성실한 실천(확신있는 전도실천, 성경진리의 실천궁행) ⑤ 천년기 전 재림론으로 곧 청교도적이면서 순정(純正)한 복음주의인 까닭이다. 과연 박형룡의 신학은 개혁과 전통의 다양한 유산을 도입하고 소개하면서 한국형 정통신학을 창출한 것으로 지금까지 한국장로교회의 이정표요 견인차였다.

박형룡 박사가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을 강조한 것은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모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스코틀랜드를 비롯하여 세계 장로교회들이 받아들여 장로교단의 신앙적 지침과 규범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1947년 고려신학교 제1대 교장 취임식에서 ‘사도적 신학소론’이란 주제로 취임강연을 하는 중 “우리의 한국 예수교장로회는 창립이후 근 60여년간에 걸쳐 웨스터민스터 표준문서를 신앙과 예배의 모범으로 삼고 칼빈주의 정통신학을 배운 선교사와 목사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살아왔다”면서 “우리 신학교 전학과(全學科)의 근본적 기초는 성경전서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등본(謄本)인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라고 밝

히므로 그가 얼마나 장로교 신학전통을 따르고자 했는지 새길 수 있다. 그러므로 박형룡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중심한 영미 장로교회의 신학과 전통을 생략한채 곧바로 유럽대륙의 개혁주의로 대치하려는 신진 신학자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여기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사이에 생성과 전통 및 신학적 기준에서 여러 가지 혼선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장총회는 장로교회로서의 신학전통을 분명히 확인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 3) 예배정립이 필요하다.

청교도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영국교회의 예배와 조직에 대하여 좀 더 급진적인 개혁과 보다 큰 순결을 요구하고 나섰던 당시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처음 불리기 시작했던 이름이다. 이들에겐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기초였고 특히 예배의 순결, 교리의 순결, 생활의 순결에 대한 개혁의지가 남달랐다. 교직의 특권의식을 암시하는듯한 특이한 복장과 성만찬을 받을 때 거기서 육체적으로 친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경모하는 뜻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결혼을 성례의 하나로 생각하여 반지를 사용하는 것과 세례예식에서 미신적으로 십자가의 표를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이 때는 너무 의식과 형식으로 포장한 허례와 미신적 요소를 예배에서 개혁하지는 것이었다면 작금의 현실은 이와 반대로 너무 축제와 공연의 요소를 가미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예배로 기울어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본인은 신예철 목사 강론집(능히이기리라) 추천사를 쓰면서 그 안에 오늘의 예배현실에 대하여 이런 내용을 담았다.

“근래에 한국교회에는 신학과 예배와 설교가 변질,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전통인 성경적 신앙의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단정히 정좌하여 조용히 듣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영상과 조명과 음악과 춤판이 한데 어우러져 그 속에서 체감하고 소리지르고 박수치며 흔들며 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예배와 설교의 본령에서 이탈하여 강단을 무대화 하고 연예인의 공연 흥내나 내는 어릿광대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네 현실은 주제있고 내용있는 말씀강론은 간곳이 없고 기승전결(起承轉結)도 없이 앞뒤 없는 전차요, 만담인지 개그인지, 연극인지 간증인지 번지없는 설교이기 일쑤입니다. 그것도 주역이 되지 못하고 불신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질편한 마당놀이에 잠깐 등장하는 엑스트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속화요 예배의 타락이요 설교의 종언을 뜻하기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권능있는 말씀강론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지금처럼 설교가 신비적 체험의 간증에 밀리고 세속적 놀이의 문화에 밀리고 사회적 명사의 강연에 밀려 강단을 내어줘야 하는 이 한심한 상황에서 참된 예배와 설교회복을 통해 강단의 권위가 살아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2:17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며 세습제사장인 홉니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빚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였다. 제사장들이나 신도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불경스러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충돌하실 것을 경고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로서 제사를 멸시한 큰 범죄를 예사롭게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그 집안이 몰

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그러므로 예장총회도 교단헌법의 예배모범과 교회예배 사이의 현실적 괴리를 직시하여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성경과 장로교 예배신학에 적합한 예배모범을 정립해야 한다.

### 4) 생활정립이 필요하다.

성경의 교훈에는 신앙과 행위, 교리와 윤리가 함께 있다. 예수님은산상수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하였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고 하여 믿음으로 율법의 중심사상을 실현하며 성취해야 함과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따라야 함을 말씀했다. 바울의 서신들도 대개 앞부분이 교리를 설파했다면 뒷부분은 윤리에 대하여 교훈했다. 그는 성도를 일컬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2:10)라고 했다. 그런데도많은 교인들이 성도인 하면서 실천생활이 받쳐주지 못하므로 존경은 커녕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레데인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기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1:16)고 한 것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로서 맛있는 소금이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무릇 기독교 윤리란 ① 윤리의 규범이 성경이며 ② 윤리의 본질이 사랑이고 ③ 윤리의 의장은 덕행이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화(聖化)의 과정 중이라고 볼 때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지며 신의 성품에 참여코자, 예수의 모습을 본받고자, 성령의 열매를 결실코

자 경건의 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의 교회는 물질과 성공, 명예와 권력을 탐하느라 영성과 도덕성을 상실했고 세상으로부터 속물로 폄하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신뢰도는 매년 20% 미만으로 종교계가운데서 최하위인 그야말로 바닥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학이론이나 설교내용보다 교인들의 인품과 생활에 더욱 공감하고 설복되므로 교인들의 실천생활이 교회의 이미지 개선과 감동의 확산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총회에서 준비중인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과 교회의 본질회복을 위한 바른 가치관 정립 그리고 참된 생활운동에 진력하여 예장총회의 성결성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목회자보다 성자형 목회자가 평가받는 교회풍토가 되게해야 한다. 예장총회는 신앙이 정통이니 생활도 정통이다라고 공인되어야 한다.

### 5) 체제정립이 필요하다.

장로교회는 정치제도의 특징에 따라 교파의 명칭이 부여 되었다. 신적권위를 대표하는 목사와 교인주권을 대표하는 장로로 구성된 기구가 장로회로서 지교회의 당회와 지역 교회들의 노회와 전국 교회들의 총회가 있다. 지교회 문제로는 제직회와 당회와 공동의회 사이에 기구 및 역할의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교회에서 기구간의 균형과 조화를 잃고 있다. 당회가 역할을 독점 하다싶이 하여 실제로 제직회와 공동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교회에서 제직회와 당회와 공동의회 사이에 긴장과 더불어 당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역할을



증대하여 적정한 균형을 살리도록 해야한다. 또 노회의 경우 헌법대로 일정한 지역내의 교회들로 조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예장총회의 경우 거의가 무지역노회로 되어 가고 있다. 6.25 동란과 1.4 후퇴시에 수많은 파란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웠으며 곧 통일될 것이라는 희망과 두고 온 옛 노회에 대한 향수 때문에 이북노회 명칭으로 무지역노회들이 생겨났다. 나중에 총회에서 폐지코자 했으나 무지역노회를 정치기반으로 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완강히 반발하여 결국 통일때까지 존속기로 했다. 단 무지역에선 지교회가 지역노회로 갈 수 있되 지역에선 지교회가 무지역노회로 갈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또 노회가 분쟁하다가 나누어 질때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간다고 막무가내로 우겨서 가게 되니 이것도 무지역노회처럼 되고 만다. 그리고 지난번 개혁교단과 합동

할 때 현재의 노회를 그대로 유지한채 합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무지역이 된 상태이다. 이뿐만 아니라 무지역은 아닐지라도 분쟁하다가 나누어진 경우들로서 양 노회 경계선을 양대 세력의 분포된 교회들에 따라 확정하므로 이상하게 선이 그어진 경우들도 더러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노회구획을 지역에 따라 하되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는게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결하기가 지난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개혁과제이다. 연하여 1만 2천여 교회를 포괄하는 예장총회가 너무 방만해진데다가 전국교회의 정치적 욕구수요를 위한 여과장치가 한 단계 더 필요한만큼 이제는 교단의 헌법사항인 대회제를 시행해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중앙집권적 권력에서 지방분권적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IV. 예장총회가 지향할 목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한국장로교 제교단 중에 법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통성을 가진 적자이다. WCC에 대한 본국총회의 입장에 따라 연동총회 분립과 통합총회로의 이행을 적극 후원한 선교사들과 결별하고 그들이 설립한 학교, 병원, 복지기구 등과 단절하였지만 총회임원중 장로임원(회계:김형남, 부회계:신태식)을 제(除)한 목사임원 전원(총회장:노진현, 부총회장:양화석, 서기:김상권, 부서기:김삼대, 회록서기:정규오, 부회록서기:박찬목)과 한경직(40회), 전필순(42회) 외 증경총회장 전원(23회:이인식, 24회:정인파, 25회:이승길, 35회:최재화, 36회:권연호, 37회:김재석, 38

회:명신흥, 41회:이대영, 43회:노진현)과 예장총회의 신학적 중심이었던 박형룡 박사를 비롯하여 명신흥, 김치선 박사 등이 반WCC 입장이어서 본총회의 적통성은 명약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리적, 신앙적, 신학적 정통성이란 명분을 얻었지만 재정적으로는 적수공권이었다. 민주당 정권의 국회의사당 건축결정으로 남산의 신학교 교사에서 퇴거하게 되어 장신측은 이내 대광고등학교 임시교사에서 수업하며 선교사 주도로 광나루에 신학교를 건축하였으나 총신측은 남산의 대한신학교(교장 김치선)가 야간이어서 그 학교의 콘서트 건물에서 수업하다가 용산교사를 매입하여 이전하

게 되었고 그 후 사당동과 양지 캠퍼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총회사무실의 경우도 장총교회를 시발로 종로에 있는 일양빌딩 6층의 62평을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용산구 동자동의 임대 사무실을 쓰는 등 수차 전전하다가 대치동에 지하2층, 지상10층의 총회회관을 건축하여 강남의 대치동시대를 열었다. 총신대학교 사당동 부지는 부전교회 백남조 장로가 증여했고, 총회회관 마련에는 초량교회 정태성 장로가 공헌했으며, 양지캠퍼스 부지 매입에는 지주인 군산중앙교회 강정중 장로가 혈값 매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선교사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찍 자립의 길을 택한 예장총회는 한국 기독교 최초로 일만교회 시대를 열었고 해외선교사 2천명을 파송하는 교단이 되었으니 외형으로 따져도 장자교단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총회 설립 100주년의 시점에서 과연 예장총회가 지향할 목표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었는가?

### 1) 복음선교 지향이어야 한다.

예수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코자 함은 기독교의 제일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전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전도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가장 중차대한 사명은 구령전도와 복음선교이다. 그동안 예장총회는 이 기본적 사명에 충실했던고로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통합교단이나 감리교에 비해 미약했지만 교세신장과 해외선교에는 타교단에 비해 크게 강세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영혼구원과 복음선교에 주력하는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상대적으로 약세인 부분은 사회선교적 차원에서 교세에 걸맞은 보완을 계속해 가야 할 것이다. 1974년 최동진 총회

장에 의해 일만교회운동이 제창되었고 최초의 아이디어 제공자는 김준곤 목사이며 그것을 듣고 총회정책으로 기획한 입안자는 이영수 목사였다. 이에 자극받은 감리교는 5천교회운동을, 통합측은 매년 300교회설립을 내걸었다. 이리하여 예장총회는 그동안이탈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90회 총회를 기하여 1만 8백 교회가 되었고 이제는 2만교회 운동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장총회는 계속 구령전도와 교회설립에 힘쓰면서도 기존교회가 부실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연하여 GMS를 통한 세계선교의 사명도 더욱 힘쓰되 좀 더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배치하였으면 한다. GMS를 비롯하여 본교단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과 총신출신의 현지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연계하여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되 현지인 교단과의 협력과 선교지 종족들과의 밀착된 삶을 통해 경계심이나 배타심이 아닌 우호감정과 동질감이 두터워져야 할 것이다. 정복자나 경쟁자가 아닌 그들의 진정한 친구로서 그들 편에 선 선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복음전파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기본사명은 결코 변치 않으므로 우리 총회는 국내와 해외에서 이 일에 총력경주해야 한다.

### 2) 인력양성 지향이어야 한다.

박노해 시인은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시집을 내었는데 그 안에 ‘다시’라는 시귀는 이러하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 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과연 사람이 희망이므로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각 방면의 선각자, 계몽자들은 거의가 교회를 통하여 영향을 받았고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배경으로 사회봉사, 독립운동, 해외유학을 했다. 지금도 교회는 인력배출의 산실이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예장총회는 전국의 교회들이 설교의 말씀과 성경의 교육을 통해 교인들을 정병으로 육성토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 학교들을 세워 거기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 통상적 지원은 물론이고 선별적 지원을 통해 인재를 창출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 총회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여 길러 낼 때에 교단의 경쟁력이 생기고 총회의 미래가 희망적이 된다. 작은 시골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배출한 인물이 얼마나 크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위인이 될런지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다. 본인이 총회장일 때 취임사에서 평신도 인력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1년 임기 총회장으로서는 역부족이어서 흉내만 내다가 흐지부지 하고 말았다. 그렇더라도 예장총회에 훌륭한 인력자산이 많고 이들이 잘 훈련된 정예분자들이라면 교단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그만큼 우월한 것이어서 미래지향적 교단으로 주목받게 된다. 예장총회는 신학교육이 잘된 목회자만 아니라 신학교육이 잘된 언론 문화 음악 과학 종교(이단문제) 등 각 방면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3) 사회봉사 지향이어야 한다.

보수교단은 진보교단에 비해 사회봉사에 취약하다. 진보교단이 사회구원에 관심이 큰 반면 보수교단은 영혼구원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는 함께 가져야 할 양면이다. 단지 차서를 매긴다면 영혼구원이 우선이라는게 보수교단의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예장총회는 오직 구령전도와 세계선교에 매진하느라 사회봉사에 등한했다. 그렇지 않아도 통합측이 분립할 때 WCC를 지지하는 선교사들과의 관계단절로 그들이 설립한 사회봉사 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들을 죄다 내어준 고로 오로지 교회들 뿐인 교단이었다. 지금 총회가 세운 법인체로 ‘총회복지재단’과 ‘총회은급재단’이 있되 사업규모로는 교단규모에 비해 너무 미약하고 초보단계이다. 그렇더라도 세론과 풍향은 ‘희생과 봉사, 배품과 나눔’이 대세이다. 지금은 정치인들도 경쟁적으로 복지혜택에 대하여 정책을 발표한다. 이럴때에 교회가 오히려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해서 안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립 서비스 정도로 때우려 해서 안되는 일이다. 그러므로목회자 연금제도, 영세한 목회자 생활대책, 홀사모와 여전도사 노후문제, 선교사 후생문제, 은퇴교역자 생활관운영 등 교역자대책을 세우며 장애인, 영유아, 고아, 과부, 노인, 환자 등을 돌보는 복지기관,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자원 봉사하며 도시빈민,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불우 이웃들에겐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 교회는 정치적 사회참여보다 봉사적 사회참여를 열심히 해야한다. 여기 사회봉사 중에는 총회가 교회들의 협력을 얻어 이런 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할 것들이 있고 지교회나 성도들이 시설들을 방문하여 물질과 몸으로 봉사하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양자를 병행하되 분명한 것은 예장총회가 사회봉사를 늘려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일이다.

### 4) 연합사업 지향이어야 한다.

예장총회는 1959년 연동총회 분립이후 WCC, NCC와의 관계단절 및 연합운동과 국제교류에서 고립의 길을 걸으며 오로지 내실을 다져왔다. 물론 미국과 화란 등 해외의 일부 신학교에 총신출신 학생들이 유학하고 미국의 카버넌트 신학교 학감 헤리스박사가 1963년에, 칼빈신학교 교장 크로밍가 박사가 1964년에 방문교수로 총신에서 강의 하였지만 교단간의 국제적 교류는 주한 미국선교사 몇분이 총신에 강의와 우호적 협력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는 고신, 기성, 예성 외에는 강단개방도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독립교단처럼 지냈다. 그러다가 복음주의적 기치하에 한기총을 세우는데 통합교단과 공동 지주가 되고 한장총, 교단장협 설립에까지 협력하기에 이르렀다. 강단금지의 벽도 당회에 위임할만큼 융통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최근 WCC 부산총회 결정 이후 이 행사를 한국기독교 행사로 확장하려는 한국준비위측(통합교단주도)과 이 행사를 WCC 가입 4개교단이나 NCCK 가입 8개교단으로 축소하려는 예장총회의 입장이 맞서면서 다시 균열을 보이게 되었다. 최근 몇가지 이유로 한장총에서는 예장총회측이 탈퇴한다 했고 한기총에서는 통합교단 중심으로 분립하여 한교연을 세웠다. 이런 와중에 예장총회는 과연 연합운동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체로 교회연합을 말할 때에 우선 교파의 연합 혹은 교회의 통일을 떠올릴 수 있다. 곧 교단조직의 물리적 화학적 단일화를 뜻함이다. 그러나 교파연합은 교

리와 체제와 목적과 사랑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칼빈의 경우 유형교회의 통일에 대한 열망도 아주 강열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영성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를 말했지만 할 수 있는대로 가견적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종교의 근본원리라는 본질적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에 분열되어서 안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종교의 근본원리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공화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과 이와 비슷한 것들’을 일컫는 경우이다.

또 그는 제네바에서의 초기에 이미 스위스 프로테스탄트의 연합을 모색했었다. 그리고 루터파의 대변자 멜랑톤에 대한 존중과 그와의 실질적 일치는 프로테스탄티즘 통일에 대한 희망을 칼빈속에 일으켰고 로마교회의 재흥전망과 함께 트렌트회의 개최는 모든 개신교의 통일에 대하여 더욱 갈망하는 칼빈으로 만들었다. 그는 교회의 통일에 대하여 편협한 불령거에게 제네바와 추리히가 성만찬에서 그들의 차이를 보류하고라도 형식적 일치에 도달하기를 요구했다. “우리가 반날동안 함께 이야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곤란없이 일치할 것이다” 라고 그는 1544년 11월에 썼다. 한 때 루터가 칼빈을 무섭게 비난하였지만 칼빈은 도리어 “그가 나를 악마라고 부르는 경우에도 나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뛰어난 재능과 은총을 받은 친구로 존경한다”고 할만큼 너그러웠다. 루터에게 보낸 서한 중에서는 ‘가장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사자, 가장 유명하신 높으신 어른, 나의 언제나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불렀다. 칼빈의 교회통일에 대한 갈망은 영국의 크랜머가 보낸 서한중에 영국황제가

가장 학식이 높고 탁월한 지도자들을 모아 교리의 순수성과 성례에 관한 논쟁의 합치점을 발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씀했다는 전갈에 “열개의 바다를 건너더라도 그런 회의에는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한 그의 대답에서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교회통일에 대한 개념이 교회의 통일과 연합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에 그 목적을 국한하여야 된다는 확실한 조건에 속박을 받는 분명한 척도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 강조되었다는 것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맥네일이 지적한대로 “칼빈은 평화를 위하여 진리를 희생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칼빈의 교리는 다른 개혁자들보다 유독 날카로웠다”는 것을 지나쳐서 안된다.

다음으로 교회연합을 말할 때에 사업의 연합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활동, 봉사, 선교 등에서 목적이 일치할 때 협력함이다. 현재 교계의 연합단체나 연합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전부 공동관심사의 동일목표에 대한 사업의 연합인 경우이다. 장로교회나 개혁교회간 연합의 경우는 개혁주의에 기반한 연합이 가능해도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의 교단에까지 장로교 신학의 입장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범 개신교 연합일 때는 복음주의적 신앙에 기반한 연합을 도모할 수 있다. 박형룡 박사는 1947년 고려신학교 교장 취임식에서 행한 ‘사도적 신학 소론’이란 취임 강연에서 사도적신학, 곧 바울의 신학을 사도적 전통의 전체를 포함하는 중대한 요리(要理)들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결국 기독교의 주요교리들로서 예컨대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주요교리들이라고 보아 지금까지 천천만만 성도들이 이것을 신봉하고 이 대열에 서 있다는 입장의 천명

이다. 비록 교파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다 할지라도 대개 신학자들의 경우 쟁론과 분열이 따르나 일반 성도들 사이에는 거의 다 사도신경적 신앙,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사상 그것을 소박하게 믿어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을 잘 살피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보완하고 협력함이 있어야 한다.

예장총회는 통일과 분리 사이에서 무조건 일치해야 하는가, 끝없이 분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장로교 신학과 제도의 비조인 칼빈선생의 기준을 전감삼아야 한다. ①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통일을 열망했다는 사실이다. ② 그는 신앙으로서의 연합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③ 그는 ‘기본진리’라는 적정한계선을 말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장총회는 이러한 기준과 원칙아래서 분리보다는 통일지향이 되어야겠고, 평화가 좋으나 진리에 더 충실해야 하고, 편협하지 않으면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데 정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연합사업에 전향적으로 임하되 저비용, 고효율이 되어야 하며 교단이해와 선교효과면에서 유익한 결과를 산출토록 해야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교류대상과 국제협력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 접근하고 참여해야 한다.

## 5) 통일운동 지향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미 육군성 매클로이 차관보를 보좌하던 딘 러스크 대령(미국무장관역임)과 찰스 본스틸 대령(주한UN군사령관역임)이 입안한 38선 아이디어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러스크 자신이 쓴 회고 메모집의 1950년 7월 12일자에 1945년 8월 10일 밤 미 국무성 육군성 해군성 조정위원회인 SWNCC 회의가 열렸을

때 자신과 본스틸 대령이 옆방에서 입안하여 올린 것이 38선안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사정으로서의 한반도에서 600마일이나 떨어진 오끼나와에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의 남진과 한반도 지배를 막기위해 고안해낸 것이 바로 38선인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일제시대의 긴 터널을 지나 해방의 기쁨을 맞았지만 남북으로 양단되어 남한은 미국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펴다가 각각 남북한 정부를 수립하여 오늘에 까지 이른 것이다. 이제 3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던 장장 70년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남쪽의 대한민국에 북쪽의 성도들을 내려보내사 남북한 성도들이 통일의 밑거름이요 초석이 되도록 단기간에 1천만 성도가 되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희망이요 조국통일의 밑거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무요 사명이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파분열과 물질숭배, 성공지상, 권력추구의 세속놀음에 파묻혀 사노라고 사회적,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뺏겨 버렸다. 그 결과 교회성장은 정체된지 오래이고 덩치에 비해 무력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책임에서 장자교단으로 자처해온 예장총회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여 정말 교단적 통회자복과 교회개혁이 절실하다고 여긴다. 그야말로 성경의 척도와 거울에 비추어 성령의 수술과 치유를 통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공산집단이 불안의 징표라면 1천만 기독교도는 희망의 징표로 세워졌다. 여기서 한

국교회가 역사와 민족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희망의 등불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상과 이방풍속을 좇다가 끝내 남북왕조의 통일을 이루하지 못한채 북왕국은 주전722년 앗수르 제국에게,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게 각각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중심에 있는 예장총회는 무엇보다도 민족적 사명감을 자각해야 한다. 조국의 분단상황을 극복할 신앙의 힘을 축적해 가야 한다. 예장총회가 그동안 세계선교의 선두주자였듯이 이제는 통일운동에서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이 일에서 예장총회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측면은 정부와 책임기관에 맡기고 오직 선교적 차원과 치유적 차원에서 접근하되 신앙과 사랑으로 동포를 구원하고 상처를 싸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6.25 전쟁 때에 중국선교사로 생애를 바친 이대영 목사가 중공군 포로들에게 설교하되 이념을 말하지 않고 순수복음만 전하니 그대에 결신자 수가 30년 중 국선교의 효과보다 컸다고 캠벨 선교사(총회신학교 초대교장)가 그의 저서에서 증언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며 통일의 문을 두드리다가 어느 시점에 한반도에 통일의 그날이 오면 예장총회는 우선적으로 무너진 북한교회의 복구를 위하여 교계연대와 당국협력을 통해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이 대사를 성사시켜야 하며 더불어 장로교회의 보수대연합을 주도하여 한국장로교회를 보수와 진보로 단순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믿는다.



## V. 나가는 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난 100년은 영육의 세월이 교차했다. 그 기간에는 교회설립, 병원설립, 학교설립 등으로 민족구원과 한반도 근대화에 기여했고 자주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했다. 하지만 가혹한 일제시대의 직·간접적 탄압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총회가 역사에 오점을 찍기도 했다. 총회간판을 내리는 수모를 겪었고 끝내 교회들 중에 폐문하고 해산하는 교회들까지 속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8.15광복으로 옥중성도들이 나오고 교회들도 활짝 문을 열었으나 이내 교회의 순결문제와 자유신학의 문제로 노회와 총회가 교권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총회분립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 이후 WCC의 찬반문제로 총회가 두쪽이 나는 대분열이 왔으나 예장총회는 온갖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끈끌하게 총회의 법리적 정통성과 신앙적 정통성과 신학적 정통성을 유지한 채 여기까지 왔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장로교단의 난

립현상과 교회의 세속화, 무속화와 각종 스캔들로 인하여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된게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았으니 이제부터 심기일전하여 교단의 역사와 신학과 예배와 생활과 체제를 재정비하여 우리총회 장래의 방향과 목표를 오로지 구령전도와 인력양성과 사회봉사와 연합사업과 통일운동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이제는 대교단으로서 한국기독교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수용력과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패권적 리더십이 아니라 귀감의 리더십으로 총회의 대내외적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엿으면 한다. 아무쪼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전국교회의 앞날에 광야교회의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여호와와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



김경원 목사  
서현교회

## “총회 100년과 미래방향” 논찬

전체 요지는 예장 총회를 중심으로 한국장로교 총회 100년의 회고를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다. 특히 한국장로교회의 출발과 함께 교단 분열의 역사에 대한 원인과 경과를 살피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회고와 반성 속에서 앞으로 교단이 어떤 신학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성숙과 발전을 꾀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자기반성에 인식한 공동체일수록 와해되기 쉽다”는 경구를 기억할 때 100년의 역사를 지닌 총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발제자는 원고를 크게 세 구조로 진술하고 있다.

첫 부분에서는 예장총회의 출발과, 출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분열의 역사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총회의 신사참배에 대한 지적과 그 파장, 그리고 1950년대 이후의 교단 분열 원인으로 “교단들이 자생하였거나 인위적 규합에 의해, 또한 특정인이 세운 신학교 까닭에, 그리고 교권 분쟁으로 인한 열패감 때문에 생겨난 교단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대단히 날카로운 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고신파는 순결문제로, 기장파는 신학문제로, 통합파는 연합운동 관계로 나누어졌으나, 여기에는 교권과 지방문제도 다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는 평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예장총회의 역사를 일별한 발제자는 두 번째 부분에서 예장총회가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확고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본 교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지반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이 본질이며, 그리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가를 구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역사 정립의 필요성’은 필자도 공감하고, ‘신학 정립의 필요성’에 있어서 장로교 신학의 정립을 위해 박형룡 박사가 강조한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발제자의 정리는 다시 한번 예장총회의 신학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를 뚜렷하게 밝힌 것으로 생각된다.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신도개요 및 대·소 요리문답이 신앙의 근간임과 동시에 탈 신학화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상황 속에 다시 한 번 ① 신본주의 ② 성경 중심 ③ 교회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제자의 요청은 본 교단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필수 요소임에 틀림없다.

다음으로 ‘생활 정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발제자는 신앙이 정통이라면 생활도 정통이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 있는 신앙과 신학일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동인이 될 것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 윤리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목회자들의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바, 발제자의 요청대로 현재 총회에서 준비 중인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은 시급하게, 그러나 졸속이 아니라 깊이 있게 논구하여 발표되어 목회자들이 자기 갱신에 앞장 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발제자는 총회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체제 정립의 필요성’을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발제자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노회 구획을 지역에 따라 하되 행정 구역에 따라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결하기가 지난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개혁 과제이다”라고 하여 지역 노회로의 정비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그리고 “1만 2천 여 교회를 포괄하는 예장총회가 너무 방만해진 데다가 전국 교회의 정치적 욕구 수용을 위한 여과 장치가 한 단계 더 필요한 만큼 이제는 교단의 헌법 사항인 대회제를 시행해야 할 때이다”라고 한 진술에 대해서도 총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총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행정체계가 아무리 발전적으로 변화된

다고 해도 그 행정체계를 운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모든 체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많이 보고 체감했다.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나 행정체계의 변화와 아울러 어떤 행정체제로 가든지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과 순수성, 그리고 소명감을 가진 운영자들의 자세 변화가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총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제자의 진술은 마지막 제3부에서 ‘예장총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끝을 맺고 있다. 3부를 시작하면서 발제자는 예장총회는 “한국장로교 제 교단 가운데 법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통성을 가진 적자”라는 것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 밝히고 있다. 수궁이 가는, 가치 있는 평가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질문 앞에 발제자는 다섯 가지의 지향성을 유지한다면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첫째는 국내외적으로 전략적인 구령과 선교를 가능하도록 ‘복음선교 지향성’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둘째는 교회와 교단이 인재를 발굴하고 양육하는 ‘인력양성 지향성’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는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총회가 ‘사회봉사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넷째, 연합사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 교회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보완하고 협력하는 ‘연합사업 지향성’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통일운동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 가지 모두 역사성과 동시에 시대정신을 읽어내면서 한 세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예장총회가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 여겨지며 이후 이

러한 제안들이 더욱 발전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본 논문의 전체 요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한 번쯤 한국장로교 역사와 관련하여 상기되어야 할 내용으로 여겨진다. 한편으로는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을 모색한다면 본 총회의 장자적 우월성이나 본 교단의 일방적 시각을 벗어난 반성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필자의 견해를 조금 더 덧붙인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을 지향하고 움직여 가는 것은 총회를 앞서 섬기는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와 도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은 결국 영적 지도력의 부재 때문에 야

기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한 세기의 역사를 지닌 총회가 한국 교회의 선도 교단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총 속에 총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총회 지도력이 순수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한 지도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제자의 귀한 발제 내용을 논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논찬자로서 “총회의 지도력이 어떻게 하면 더욱 존경받고 건강한 지도력을 가지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

---

---

---

---

---

---

MEMO